

놀라우신 하느님

G.W. 휴즈／성찬성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차 례

머리말	9
1 그대의 보물이 묻힌 곳	15
2 접근 방법의 확인	29
3 내적 혼돈과 그릇된 하느님상	51
4 땅 파는 연장들 - 기도 방법 몇 가지	73
5 굴토 작업을 위한 일반 지침	95
6 방향 전환	109
7 보물 발굴에 착수	129
8 발굴시 보물의 식별법	149
9 지극히 놀라우신 하느님	167
10 그리스도를 아는 일	179
11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201
12 결단 중의 최대 결단 - 하느님이나 mammon이나	215
13 계곡은 말한다 - 하느님과 핵의 위협	233
후기	247

머리말

나는 9년 전에 「길을 찾아서」(In Search of a Way)에서 두 가지 종류의 여정을 다루었다. 하나는 런던에서 로마에 이르는 1,100마일의 길을 걷는 여정이요, 다른 하나는 잉태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맺는 우리 모두가 치르는 여정이었다.

이 책은 누구나 걷는 후자의 여정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로서, 특히 갈피를 못 잡고 혼란에 빠지거나 환멸감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몸 담고 있거나 한때 몸 담았던 교회와 애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는 가톨릭인이자 사제요 예수회 회원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 사제, 특히 예수회 사제라면 결코 혼란과 당혹감 또는 환멸에 빠지는 일 따위는 없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나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들을 예수회 사제라면 반드시 극복하거나 최소한 무시하고 넘겨야 할 실패의 표지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어둠과 눈물겨운 일로 우리의 그릇된 관념과 자부심을 불시에 박살내신다.

이런 붕괴를 우리는 파열로 느낄지 모르나 실상은 밀이삭이 패는 파열에 지나지 않는다. 밀은 죽어서 새싹을 틔우지 못하면 홀로 말라 죽고 만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치시는 이 고통스런 하느님의 개입으로, 줄곧 따

분하거나 의심스러웠던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들이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누에고치마냥 폐쇄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저 멀리,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감실이나 돌로 된 성전에 거처하지 않으신다. 그리하여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미소지으시는 하느님, 혼란에 빠진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하느님, 패배감과 환멸에 싸인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요 반석이며 능력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인간의 정신에는 수많은 의식층이 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은 새로운 의식층에 진입하면 처음에는 위협을 느끼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은 바로 ‘우리 존재의 기반이요 밀밭침’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의식의 층들을 통과하는 여정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혼란과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은 우리를 살짝살짝 건드리시는 하느님의 손길이다. 이는 정다운 손길이요, 바로 그 속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 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이 책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그대가 도무지 형편 없는 밭이라 여길지도 모르는 그대 자신 안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내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침서란 대부분 그 속에 나오는 장소를 직접 가 보고 사물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읽는 속도도 더디게 마련이다. 이 내면의 여정 지침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각 장의 말미에 수록된 과제물은 독자가 나름대로 여정을 뛰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내가 기술하는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대 자신이 얻는 발견이다. 이 책이 세세한 설명을 피하고 길잡이 역

할을 하는 선에 머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식의 층들을 통과하는 내면의 여정은 일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다. 따라서 한 가지 의식 수준에서는 놀라우신 하느님께 상당히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보다 깊은 의식 수준에 이르면 이제야 출발 단계에 들어섰음을 깨닫고 다시금 안내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면의 여정에 익숙해진 독자 가운데는 어떤 단계를 다른 단계보다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요약해 본다.

제1장 : 우리 각 사람 안에 보물이 내재한다는 진리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예시한다.

제2장 : 보물이 묻혀 있는 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단계들을 기술한다.

제3장 : 밭은 보물이 묻혀 있지만 하느님을 가장한 괴물과 야수가 우글거리는 밀림임을 보여 준다.

제4장 : 밀림을 뚫고 보물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기도 방식을 제시한다.

제5장 : 이 여정이 우리의 마음이나 종교생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전존재를 망라하고 있음을 조명한다.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건강과 부와 명성과 권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와 사회와 정치의 제구조에 대한 대응 자세에 이 여정이 미치는 영향을 밝혀 낸다.

제6장 : 보물 발굴이 시작되고 첫째 층이 깨뜨려진다. 이것은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설하는 장이 된다.

제7장 : 이 첫째 층을 파헤치는 실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다.

제8장 : 발굴이 시작되면서 첫째 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텁고 단단하며,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허약하고 무기력함을 깨닫고 사

람들은 흔히 낙담하게 되는 바, 이 때의 어려움과 그 대처 방안을 고찰하고 제시한다.

제 9 장 :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보물임을 식별하는 일을 다룬다. 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시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 역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가상적인 본당 사제가 한 본당 신자의 분열적인 행동을 개탄하면서 쓴 편지 형식을 통해 조명한다.

제 10 장 : 보물을 개봉하는 일 - 그리스도를 아는 일 - 을 기술한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 정식이자 우리 생활의 기본 정식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여기에서 다루어진다.

제 11 장 : 우리 생활 속의 기쁜 일, 슬픈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감지해 내는 일을 기술한다.

제 12 장 :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리는 결단을 통해 발으로 나가 보물을 파내게 된다. 이 장은 결단을 다루는 논문이 아니라, 개인적 내지 집단적 결단에 필요한 기본 지침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제 13 장 : 이 책의 주제들을,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두려움인 핵전쟁의 위협에 적용시킨다.

내면의 여정에 나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내적 체험을 통해 내게 가르침을 베푼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을 바친다. 출판인 다턴, 롱맨, 토드에게, 그리고 특히 이 책의 초고를 참을성 있게 읽고 나서 격려를 보낸 테레사 데 베르토다노와 빅토리아 워더레드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초고에 대한 논평과 비판을 기하고 계속 집필하도록 기운을 북돋워 준 케이 폴드웰, 캐시 캠벨, 그레이엄 채드윅, 찰스 엘리엇, 리즈 에프리, 메리 로즈 피츠시몬스, 마이클 아이븐스, 브라이언 맥클로리, 앤 맥도웰, 마이클 테일러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끝으로 나를 받아들여 이 책에 스며 배인 성이냐시오의 「영신수련」으로 지도해 준 예수회와, 내게 시간을 내주어 이 책을 집필하게 해 준 예수회 관구장 조크 일리 신부께 감사드린다.

G.W. 휴즈

1

그대의 보물이 묻힌 곳

나 그이를 만나는 나날에 그이에게
인사하고,
깨달음이 올 때 찬미하는도다.

(G.M. 홉킨스, “독일땅의 난파”)

보물은 그대 안에 있다. 이 장에서는 자신 안에 내재하는 보물을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과 보물을 지녔으면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이 사례로 제시된다. 그런 다음에 결코 무시받기 거부하는 이 내적 생명과 그 복잡한 혼돈 상태, 그리고 이것이 개인과 집단의 생활 면면에 끼치는 영향이 면밀하게 고찰된다.

예수회를 창설한 사람은 16 세기에 로울라의 이니고로 불리다가 후에 성이나시오 로울라로 알려지는 바스크인 귀족이다. 스페인 궁정에서 자란 이니고는 20대 후반에 들면서 활달하고 거칠며, 허영과 야심에 들뜨고, 호색적이면서도 대담무쌍한 기질을 드러낸다. 그는 호전적이 리만큼 정통을 주장하는 자였다. 심지어 회심한 후에도 우연한 대화에서 성모의 처녀성에 의구심을 표명한 한 무어인의 살해를 계획할 정도였다. 무어인은 꼭 다행하게도 이니고가 자기 노새한테 결정권을 위임했고 노새가 주인보다 훌륭한 식별력을 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한 덕분에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니고의 윤리생활과 신심생활은 그가 신봉하던 정통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1521년, 수적으로 대단히 우세한 프랑스 군대가 공격해 올 때 그는 팜플로나 시를 방어하고 있었다. 시장이 항복했으면 하는 데도 계속 싸우자고 주장한 그는 결국 포탄에 맞아 양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한다. 승리자는 부상당한 이 포로에게 뜻밖의 호의를 베풀어 고향 로울라로 보내 치료 받게 한다. 그 곳에서 이니고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한편 서너 시간씩 백일몽을 꾸면서 여러 달을 자리에 누운 채 지냈다. 봄이 채워지면 다시 위대한 공을 세운다든가 지위 높은 귀부인의

사랑을 얻는 상상에 빠지곤 했던 것이다. 그래도 하루하루는 건기만 했고, 그래서 그는 심심풀이로 읽을 소설책을 청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로울라 성에는 소설이 한 권도 없었고, 따라서 그는 카르투지오회 수도자인 색스니 출신 루돌프가 쓴 「그리스도의 일생」과 성인전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성인들보다 엄격하게 극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또 다른 종류의 백일몽에 빠져들었다. 특별히 그를 매료시킨 성인은 폴뿌리로 연명하며 맑은 대기 속에서 기도하며 살았다던 사막의 험프리였다. 이 때쯤 이니고는 곧장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험프리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도미니코와 프란치스코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 주일에 걸쳐 두 가지 종류의 백일몽을 번갈아서 꾸던 그는 갑작스레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수백만의 삶까지도 뒤바꾸어 놓는 깨달음이었다.

그가 두 종류의 백일몽을 즐기면서 발견해 낸 사실은, 거창한 공을 세우고 귀부인의 사랑을 얻는 몽상을 즐기다가 깨어나면 따분하고 공허하고 비참한 기분이 드는 반면에, 성인들보다 더 엄격한 극기생활을 상상하는 꿈에서 깨어나면 행복스럽고 희망과 활력에 찬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차이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후에 ‘영들의 식별’이라고 스스로 명명하는 깨달음을 처음으로 얻기에 이르렀다. 이 ‘영들의 식별’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내적 기분과 느낌 중에서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을 식별하는 일’이 된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이니고의 이 이야기에서 발견된다. 보물은 바로 우리의 내적 기분과 느낌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대는 잠시 멈추어 그대가 즐기는 몽상에 관해 생각하면서 자문해 보라. “백일몽에서 깨어날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따분하고 공허한 느낌인가, 아니면 희망과 신명에 넘치는가?” 지금 단계에서는 스

스로 발견하는 바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백일몽이 남기는 여운을 파악하는 데 그쳐야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예는 풍요로운 내적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뵈어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 첫번째 인물을 나는 ‘조크’(스코틀랜드 고지대의 병사)라 부르겠다. 이유는 그가 커다란 키에 모래빛 머리카락을 갖고 주근깨가 있으며 입이 아주 무거운 스코틀랜드인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직업이 실내장식가였지만 고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내가 하루는 어떤 방을 단장하고 있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마침 그 날 조크가 와서 일손을 돕고 있었다. 그는 묵언을 서약한 수도자처럼 마냥 일만 하였고 입을 열어도 “그래요”, “그렇겠지요”가 고작이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게 되었을 때, 이미 맥주 한두 잔을 걸친 그는 식탁에서 포도주를 들면서 여전히 속마음을 굳게 걸어잠근 채 “그래요”나 “그럴 테죠”에다 간간히 “고맙소”를 덧붙이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 갈 무렵쯤 우리의 화제는 당시에 내가 일하던 북웨일스 이야기로 옮겨 가고 있었다. 그러자 조크는 드디어 접시에서 눈을 떼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더니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다.

“그래요, 여름에 웨일스에 간 적이 있었지요. 휴일에 집을 떠나 지내는 처음이었어요.”

이야기가 무척이나 장황했던지라 지금으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애인한테 견어체이고 나서 그녀를 찾아 북웨일스로 갔던 건지, 아니면 그녀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건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졌다.

“댁들은 내가 뭘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소? 황량한 벌판으로 쫓겨만 개랑 걸어갔지요. 친구들은 내가 돌았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나는 행복했어요. 바닷가 절벽쪽으로 곧장 가서 거기에 걸터앉았지요. 바다는 엄청 커 보였고 나는 아주 쫓겨맴다고 느껴졌지만 그래도 행복한 기분

이었어요. 이상치 않아요? 내 동료들한테는 말을 못 했지요. 나쁜 기쁘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조크에게는 경이로움을 감지하는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는 자연을 마주 대하며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면서도 공포 아닌 행복을 체험하였다. 놀람은 지혜의 시작으로, 그가 맛본 행복은 스스로의 왜소함과 예측을 혼연하게 받아들이는 겸손에서 우러나온 기쁨이었다. 그는 절벽 꼭대기에서 바라다보이는 정경에 심취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따라서 관상이라는 선물의 시작을 수중에 넣은 셈이다. 하지만 동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쓰으로써 내면의 성장이 질식되어 버렸을 공산이 크다. 조크는 스스로를 종교적인 또는 영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경탄과 관상 능력이라는 선물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감지했지만, 이것을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 결과, 이것이 성장하여 자기를 보다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도록 만들지는 못했던 것이다.

‘제인’은 스페인에 가서 일 년간 현대언어학을 이수하기로 되어 있던 대학생이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몹시 풀이 죽어 있었다. 내가 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인즉 일 년간을 스페인에서 보낼 일이 너무도 꿈만 같아 행복스러운데, 바로 그런 기분이 적이 불안스러워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얼떨떨했지만 최근에 연수과정을 거친 적이 있는지라, 거기에서 배운 대로 처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지낼 한 해가 걱정되는 것이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대꾸했다. “다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 이유라는 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면 이제부터 가톨릭 신자인 체하지 않아도 되고, 미사에 빠져도 부모님은 모르실 테니까 집안 소동을 일으키는 일도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미사에 참여하고 가톨릭 신자인 체해야 하는 이유가 부모님과 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뜻이겠지요?” “천천히나 가톨릭 신자인 몇몇 친구들과하고도 그냥

조.” 그녀가 내 말에 덧붙여 대답했다. 그래서 학사과정을 끝마치면 무슨 일을 할 참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페루에 가서 교편을 잡겠다고. 페루를 지망한 까닭은 페루에 관한 글을 읽고 기록 영화 몇 편을 본 다음에, 그 곳이 대단히 가난하고 농부의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란단다.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으니, 받은 것 중에서 일부나마 아예 가진 것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미미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말끝에 내가 물었다. “하느님께로부터 어떠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나?”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실없는 소리 말아요.”였다. 제인은 자기 체험에 따르면 종교적인 것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종교란 일요일에 미사에 가고 교회가 지정한 여타의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가 이해하기로는 종교적이거나 영신적인 것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녀는 미사를 의미가 없고 따분하기만하다고 생각했고, 교회의 가르침 역시 아무런 뜻도 없는 판 세계에 대한 선언으로 보았다. 그러기에 그녀는 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삭제시켜 버리고 싶어했다. 그렇다고 자신의 소신을 생활화할 만큼 내적으로 강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비종교적이지요 비영성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지배하는 감정은 동정심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했고, 남이 배풀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봉사를 자원하고 있었다. 남을 가엾게 여기고 함께 나누며 봉사하려는 그녀의 의욕 속에는, 성바울로가 말하는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필립 2,6-7)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인은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감사하는 마음이 깊었으나, 하느님과 교회와 신앙에 대한 그녀의 관념은 자신을 비종교적이지요 교회와 단절된 인간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최근 들어 나는 “가톨릭 이혼자, 별거자 협의회”라는 명칭의 한 단체와 주말마다 모임을 갖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이 이혼 또는 믿기 과정에서 겪은 체험을 함께 나누도록 격려하는 일이다. 첫번째 주말 집회 때는 이 집단이 발산하는 격한 감정에 신경이 곤두섰다. 거기에는 본의 아니게 독신생활의 불운을 겪도록 만든 배우자에 대한, 그리고 재혼했을 경우 교회의 제성사와 접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전의 배우자나 교회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채 삭이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이나 사물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기 회의에 깊숙이 침몰된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믿었다. 그 믿음이 배신당하면서 사랑은 증오로 변하였다. 그들은 공허와 허무를 체험하는 정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아차하면 자살까지 불사할 절망의 문턱에 접어들어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실패작이라고 느꼈다. 자신과 배우자에게 낙제한 것 못지않게 하느님께도 낙제한 탓에 기도하려고 해 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했다. 종교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번민을 이해하고, 그 번민을 통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다. 아니, 거꾸로 그들의 고통과 죄책감과 소외감을 가중시키면서, 그들이 비단 배우자를 잃고 가정을 파괴당했을 뿐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한 채 살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역기능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집단에게 들려 줄 답변이 내게는 없음을 나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서로를 보살피는 힘이 되었다. 가장 가혹한 피해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배척하며, 편협되고 잘난 체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저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 안에 함께 머무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스도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분의 평화와 연민과 희망이 자기들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들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죽음의 체험에서 벗어났고, 미래를 희망으로 대면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

활하신 생명을 어느 정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는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자기를 단죄하고 소외감을 더해 줄 뿐 자신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하는 소원하고 비실재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다.

몇 년 전의 일이다. 나는 북웨일스에서 런던까지 정기적으로 여행해야 했고, 그 때마다 가능하면 무임편승 여행자를 차에 태워 주곤 했다. 나는 사제 복장을 하지 않았거니와 상대가 묻지 않는 한 사제 신분을 굳이 밝히지도 않았다. 그런 가운데 상대가 자신과 자기의 소망 또는 포부를 피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내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신앙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은 내 기억에 하나도 없었다. 나를 개종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을 빼고는. 물론 대부분이 돈에 궁색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돈에 빼앗긴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새앙쥐 똥박질을 싫어하고, 삶 속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한결같은 후렴은 “사람들한테 아주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와 영성부재(靈性不在)에 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막상 영성은 너무도 편협하게 해석되어 온 까닭에, 우리는 자신과 타인 안에서 영성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내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 예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삶이 마땅히 택해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방향을 택할 수 있도록 영감과 정열을 불어넣는 우리 자신의 내적 체험이 지닌 가치가 그것이다. 이니고는 자기 체험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체험 해석의 방법을 서서히 터득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삶을 변형시키고 아울러 다른 사람 수백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른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모두가 엄청난 내적 부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어떤 이들은 이 부를 잘못 파악하기

도 했으나, 스스로 체험하는 바를 하느님이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실상 그들은 바로 그 내적 체험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과 추억, 느낌과 갈망들로 합성된 이 풍요로운 내적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생명의 구성은 유전형질과 다르며,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서로 다른 까닭에, 저마다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우리 삶 속의 체험치고 육체와 정신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과거의 체험은 대부분이 우리 기억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는 까닭에 의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들 감추어진 기억은 주변세계를 보는 우리의 인식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요,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식과 반응 방법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법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행실의 열쇠가 되는 이 내적 생명에, 우리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야생마에 올라탄 사람과 같다. 야생마는 별쩍 일어서고, 맹렬히 돌진하는가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한다. 우리는 이 야생마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내가 무엇에 씌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온 힘과 재간을 다 쏟아 안장에 매달린 채 고통스런 인생길을 질주하게 된다. 명확한 해결책이 있다면, 말을 이해하고 말과 친숙해지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참가한 경주에서 주자들은 그런 접근법을 대단히 불건전하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의 사회 풍토 속에서 말은 마땅히 무시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를 악물고 참아 내도록 되어 있다. 영국 해군의 경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병뿐이라고들 한다. 장교는 감정을 초월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계에서도 “그대의 감정은 무시해 버려라.”는 충고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말은 일생의 여정에 필요한 지침과 에너지의 원천인 내적

생명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숫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내적 생명력은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실상 우리는 이성(量)을 신성시하고 감정과 질(質)은 야수시해 왔다. 그 결과 감정은 따돌림받는 아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복수를 하고 있다. 소외받는 감정은 인정과 친근감으로 달래 주지 않으면 우리를 파괴하고 만다.

영국에서는 수많은 병실이 정신병 환자의 차지가 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육체를, 마치 기계 고치듯이 내적 생명력과 무관하게(즉 운전자가 고치지 않아도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처럼) 수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루어 온 서양 의학은 이제서 육체의 질병이 마음과 정서의 부조화와 밀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 가고 있다. 모든 질병이 마음과 정서의 부조화만 회복되면 다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아니 대다수의 육체적 질병이 내면의 부조화를 드러내는 일종의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원한이나 과거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통증 또는 욕구가 차단당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등은 관절염이나 암, 동맥혈전증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수치 학문인 경제 문제 및 수치 학문으로 변모된 국가 안보에 얽매어 꼼짝 못 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저들’이 가진 무기보다 파괴력이 더 큰 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내적인 삶을 무시하는 한, 자유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개개인의 내적 부조화는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 국가의 내적 부조화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병폐로 나타난다. 내적 생명력은 무시당하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인정받고 친근감을 획득해 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

실내장식가인 조크와 함께 있지 않은 까닭에 그가 바닷가에서 겪은

체험에 어떻게 대응했던가를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 그가 이것을 친구들이 ‘괴팍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해 버린 채, 친구들이 수궁할 것으로 생각되는 느낌만을 수용하기로 작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그랬을 경우에 그는 자아에서 심원한 부분을 무시해 버리기로 작정한 셈이다. 그리고 자신의 풍요로운 개성 및 자기가 진실로 되고자 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그대로 되고 행동하는 자유를 포기한 채, 동료의 인정을 얻어 낼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추구하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그는 황야와 바닷가에서의 느낌, 평화와 만족감을 머리에서 지워 없애려고 애쓸 수 있다. 그러나 그 체험 및 그 형태로 나타난 내적 욕구는 설령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잠재의식 속에 살아 있으면서 좌절감이나 불만 또는 초조감 같은 감정으로 표출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으며, 설혹 우울증에 걸려도 그 원인을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는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의사를 찾아가 안정제를 받아 먹기에 이른다. 안정제는 우울증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의 육체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안정제로 인해 차단되기도 하며, 따라서 그는 자기 슬픔의 진정한 원인을 더 더욱 발견하기 힘들게 된다. 사실이란 친절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 좌절감과 침울감은 본인에게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만든다. 사람이 자살 유혹을 받는 더없이 암울한 분위기에서조차 사실은 친절한 법이다. 우울증이 “목숨을 끊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현재 생활 양식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적 생명력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은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기 자녀에게 몹시 싫증을 느끼는 어머니의 경우, 그 같은 감정은 매우 수치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듯이 처신하며 깊은 애정을 지나칠 만큼 강변하고, 대화에서 말끝마다 “귀염둥이”를 연발하면서 자신을 모범적인 어머니로 믿

으려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싫증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출구를 찾게 되고, 자녀는 이를 감지하게 된다. 결국 어머니는 지나치게 과보호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지배적 태도를 보이면서 반항하는 아이를 이런 말로 책망한다. “나는 널 위해 무엇이든 다 해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토록 배은망덕할 수 있단 말이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게 된다. 그녀가 싫증을 인정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 싫증이 간간히 자식을 대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면서도 보다 차원 깊은 순수한 애정에 비할 때 더없이 피상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내적 생명력이 무시될 때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국내의 민심불안, 국가간의 전쟁 같은 이런저런 형태의 폭력으로 반드시 분출하고 만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의 보물은 내적 생명력 안에 묻혀 있다. 이 내적 생명력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결정한다. 우리가 이 내적 생명력을 무시하려 들지만, 이것은 개인생활에서든 국가생활에서든 결코 무시당하기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시했을 경우, 이 내적 생명력은 어떤 폭력의 형태로 분출하게 마련이다.

이 내적 생명은 우리가 종교적 용어로 ‘영혼’이라 부르고 있고, 이것을 알고 치유하고 그 힘에 조화를 부여하는 기능은 영성이라 부른다. 종교는 이 내적 생명을 보다 깊이 알도록 격려하고, 이것과 친숙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 힘의 원천이자 지혜의 보고인 까닭이다. 그럼에도 현재 종교는 이 같은 깨달음을 촉진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또 인식되고 있다. 가르침과 이해 면에서의 이 같은 오류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엄습하는 혼란과 당황과 환멸의 원인이 되고 있

다. 그러기에 어떤 저술가는 “종교만큼 하느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도 없다.”고 선언했을 정도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같은 오류와 그 연유를 보다 자세하게 살핌으로써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발을 향해 나아가는 접근 방법을 명시해 보고자 할 것이다.

실천 과제

1. 17쪽에서 제안한 대로 몽상에서 깨어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고찰한다.

2. 자기 사망기사를 직접 작성해 본다.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시간 낭비로 판단하기에 앞서 기사 작성을 해 보도록 한다.

그런 사망기사가 나오면 어쩌나 싶은 사망기사가 아니라 지극히 무모한 꿈일망정 그렇게 씌어졌으면 하는 사망기사를 작성한다. 내용을 분석하거나 더없이 명쾌한 기사를 쓰려고 애쓰지 말고, 공상이 제멋대로 흐르도록 놓아 둔다. 일단 작성된 기사는 다시 읽어 보면서 수정하거나 덧붙일 것이 없는지 살펴본다.

이 작업은 우리의 내적 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내적 생활의 핵심이요 방향 설정을 주도하는 우리의 욕구들을 보다 심도 있게 접촉하기 위한 지극히 효과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들 욕구에 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게 된다.

2

접근 방법의 확인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1고린 13,11).

보물은 그대가 가장 가망성 희박하다고 여기는 발에 묻혀 있다. 그 발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보물이 묻힌 발을 알아 내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우리 자신을 찾아 내고 받아들이 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도 많이 있다.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흐릿한 존재로 남는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대수롭지 않게 묵살당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내가 세 살 무렵의 꼬마 때, 저녁이면 누나 중에 하나가 나를 안아다 침대에 눕혀곤 했다. 그러면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하느님”을 발음하곤 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집에서는 저녁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벽난로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바쳤다. 벽난로 위에는 묵중한 테를 두른 할머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돌로 꾸민 정원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계셨고, 모자에서 흘러내린 면사포는 그분의 모습을 몹시 서글프면서도 신비롭게 만들었다. 나는 기도할 때, 그 초상화를 바라보며 불안에 휩싸이곤 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할머니가 몸을 움직이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이런 어린 날의 추억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어린 나에게서 신비롭고 멀리 계시며 도무지 예측불가하고 막강하신 존재로 비쳤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같은 인상은 내가 일곱 살 되면서 새롭게 각인되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며 지극히 완전하고 무한하신 절대 신’으로 규정함으로써 내 체험 속의 모든 것과 분리시켜 버린 교리 문답을 암기해야 했을 때가 그 때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것은 위협스런 일이 된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곧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 인성을 통해 그분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첫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접촉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안에서만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탐구하려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혼란과 좌절과 환멸을 심어 주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 발달 속에서 그리고 그 인격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을 예증하기 위해 나는 폰 휘젤의 2부작 중 첫째 권인 「종교 안의 신비 요소」에 기술된 사상을 활용할까 한다. 내가 알기로 이 책은 나와 다른 사람의 종교적 발달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익한 책이다.

폰 휘젤은 인격 발달의 단계를 세 단계 — 유아기, 사춘기, 성년기 — 로 잡고, 각 단계의 특징이 되는 주요한 행위와 요구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종교가 각 단계의 주요한 행위와 요구를 반드시 고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결론으로 종교는 세 가지 본질적 요소, 즉 유아기의 요구와 행위에 부합되는 제도적 요소와 사춘기에 부합되는 비판적 요소, 성년기에 부합되는 신비적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의 각 단계에 대한 그의 분석에 따르면, 유아기의 요구와 행위는 사춘기에 이르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사춘기의 요구와

행위 또한 성년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면서 이전의 요구와 행위는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할 따름이다. 폰 휘켈은 아울러 각 성장단계에 내재하는 위험도 제시한다. 실제로 종교는 이 세 가지 제도적, 비판적, 신비적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두 요소를 배제시키거나 두 가지 요소를 역설함으로써 남은 한 가지를 배제시키는 가운데, 교회 구성원의 종교적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 폰 휘켈은 이러한 분석을 모든 세계적 종교에 적용시킨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요약하는 선에서 그리스도교에 한정시켜 적용하기로 할 것이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내가 말하는 교회는 특정 교회에 대한 각별한 언급이 없는 한, 종파와 관계 없이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믿는 교회 전체를 지칭하게 된다. 낱말의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되, 명백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해 어떠한 단언도 내릴 의사가 없다.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이 모든 인간 개개인 안에 살아 계시며 모든 인간 개개인을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다.)

유아기에 우리 활동은 대체로 신체적 운동과 감각적 느낌이 주축을 이룬다. 이 때의 요구는 음식과 온기, 보호, 애정 등이다.

중세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마음에 담긴 모든 것은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금언이 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 지식은 감각적 느낌에서 시작된다. 어린이의 오감 중에 어떤 것이 손상되면, 그것은 삶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기는 마룻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만지작거린다. 딸랑이를 흔들며 좋다고 키득거리고, 밝게 빛나는 색깔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안아 주기 바라면서 어머니 곁에 달라붙으려 한다. 아기는 이런 과정에서 미래의 교육에 필요한 토대를 굳건히 다져 나간다. 그리하여 이런 감각적 느낌을 근간으로 삼아, 시늉하고 처음 말을 시작하면서, 자신

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적 도약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아기에게서 감각적인 느낌을 박탈하게 되면 평생 불구로 만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감각적 느낌이 불필요한 인간 발달의 단계는 없지만, 사춘기와 성년기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마룻바닥을 기어다니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일단 말을 시작한 아기는 처음에는 들려 오는 소리를 의미의 이해 없이 되풀이한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운율 있는 말소리를 좋아하며, 상상이 너무도 생생해서 허구와 실재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아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친구 프란치스코가 앉을 자리를 식탁에 마련해 놓지 않으면 짜증을 내곤 했다. 그러다가 여동생이 생겼을 때, 이 언니는 존재하지 않는 프란치스코를 동생한테 소개하였고, 어린 동생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프란치스코에게 애착을 느껴 식사 때면 프란치스코 맞은편에 앉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런 일은 대략 일 년 동안 계속되었다.

어린이는 가족과 지역의 역사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로 기억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보통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해 주는 이야기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 고지식한 초기 단계가 없으면 학습과정은 아예 시작되지도 못한다. 어린이에게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아무런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를 미완성 상태요 앎도 없는 그의 마음에만 내맡기는 짓은 잔혹한 처사가 된다. 어릴 적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도가 매우 심한 한 여인이 내게 들려 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에게 가장 비참했던 추억의 하나는 매일 저녁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느라면 그 때마다 집에서 부모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남들은 차례로 전화를 받는데 자기한테는 한 번도 전화가 걸려 오지 않았던 일이다.

유아기에 가장 절실한 정서적 요구는 보호와 애정이다. 이것이 없으면 아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할 줄 모르게 된다. 인간답게 성장

하는 능력은 신뢰할 줄 아는 능력과 비례하는 법이다.

유아기에 필요한 요구와 활동은 그 밖에도 물론 많다. 어린이는 감각적 인식을 통하여 행동 방향을 알아 내고 거기에 해석을 붙이며 의문을 제기하고 논리를 구성하지만, 이런 활동은 지배적인 것이 못 된다.

유아기의 요구와 행태는 건강한 어른에게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우리는 항상 감각적 인식을 필요로 하며, 우리의 기억은 꾸준히 채워지고 재충전되어야 하고, 우리의 상상력은 언제나 활력에 넘쳐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 몇 가지 권위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어른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재야 무리 유능해도 모든 일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능력 또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애정과 관심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발달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성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와 통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같은 아이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의 행동을 격려해야 한다. 물론 유아기의 요구와 활동을 특별히 강조하되, 그것이 사춘기와 성년기에도 존속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야 한다. 교회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고 말씀과 성사를 통해 하느님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단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오감에다 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감각적 느낌을 통하여, 그런 연후에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의 건축양식과 장식, 채색과 채광, 설비, 음향 시설, 실내 온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며, 예식에는 미사여구만이 아니라 음악과 몸짓과 움직임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개신교 가운데 일부는 우상 숭배의 냄새를 풍기는 것에 지독한 혐오감을 느끼고, 그 때문에 이상의 것들을 철저히 배격한다. 실제로 교회의 외양과 예식의 절차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들어 올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수도 있다. 그

결과 한 뼘짜리 촛불을 켜 두는 일로 이웃을 보살피는 임무를 대신하려 드는 행태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이가 유아기의 요구와 행동에 맞들인 나머지 사춘기로 이행하기를 무서워할 수 있는 위험 부담 역시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이 유아기의 요구와 행동을 가로막아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교회는 추후에도 그래야겠지만 특히 유아기에 교회의 역사 이야기로 기억을 채워 줄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가문 이야기를 듣듯이 그리스도교 집안 이야기도 들어서, 성서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며 복음 속의 사건 및 성인들의 일생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종교나 가르치는 기능을 지니게 마련이다. 어린이는 대체로 듣는 것을 한결같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유아가 “도대체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고, 당신이 내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어째서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하는 따위의 질문을 제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후에 가서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수용단계가 없으면 어린이는 의문을 제기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 의문의 토대가 될 만한 어떤 것도 갖추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육 기능은 사실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교훈도 병행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시행 착오를 거쳐 알아 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잔인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쌀가루 푸딩은 접시에 담아서 먹되, 화난다고 그것을 벽에다 던지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자체의 역사와 교의와 윤리를 어린이에게 가르치되, 어린이가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또한 교회의 이 교육 기능은 사춘기 청소년과 성인들에게도 꾸준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어서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 자명한 사실이 너무나 자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린이 교육에 고도로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신학 용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어른이 동일한 신비의 언어를 어린이처럼 순진하게 받아들여 주기 기대하는 태도도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주요한 요구와 행동을 수용하고, 사춘기 청소년과 성인의 그것 역시 꾸준히 보살피는 일은 교회 내부에 제도적 요소를 정립시킨다.

사춘기는 통상적으로 성적(性的) 자각의 성숙 단계로 성격지어지고 있지만, 이 시기의 자각은 성적인 것, 그 이상의 무엇이다. 사춘기는 마음에 의문이 일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제시되는 다양한 믿음과 체험, 가르침, 사실, 감각적 느낌들 속에서 일정한 통일성과 의미를 발견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수 안에서 유일’을 찾는 일은 비단 그리스 철학자들의 일만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방법은 다르지만 그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한때 기독교학교로 예수회에 소속된 스토니허스트 전문학교에서 일반수료증 0급시험을 막 치른 열다섯 살짜리 우수반에 종교를 가르쳐야 했다. 이 학교는 당시에 학생들에게 매일 미사 참석을 종용하고 있었던 까닭에, 나는 미사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다. 준비의 일환으로 나는 독일 예수회 회원인 용만이 저술한 두툼한 두 권짜리 저서를 애써서 학습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맞게 간추려 정리해 주었다. 그러나 첫 시간이 5분쯤 지나자 학생들 대부분은 전속 사제와 종교 수업을 대할 때 으레 그러듯이 흐리멍덩한 눈빛이 되어 갔다. 그런 대로 수업이 끝나니 반 학생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신부님, 신부님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일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물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그의 대답인즉 “우리 중 절반은 무신론자입니다.”였다. “그 절반이 누구를 말하지?”

이 물음에 한동안 입 다물고 있던 학생은 다른 아이들과 협의한 후라야 대답할 수 있겠노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너는 언제부터 무신론자가 된 거냐?” “열흘쯤 됩니다.” 그의 대답은 자못 엄숙했다. 그 날 느즈막하게 무신론자 학우들과 협의를 끝낸 그가 나한테 와서 명단을 내밀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다. “너는 자신을 무신론자로 보느냐, 아니면 불가지론자로 간주하느냐?” 0급 이수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미처 제시된 바 없었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임에 비해서 불가지론자는 하느님의 존재도 부재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과 친구들은 마음이 트인 자들이라 불가지론자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침내 우리는 ‘불가지론자회’를 만들고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만나 하느님의 존재 문제를 놓고 토의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회원 하나가 버트런드 러셀을 읽고 와서 다른 학생들한테 책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그 결과 모든 현상은 물체의 충격입자와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고, 이들 미립자의 운동을 지배하는 수학적 공식을 찾아 내는 일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열쇠가 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느 모임 때 나는 그들 가운데 남달리 진지한 학생을 지목하여 물어 보았다. “너는 네 어머니와 저기 놓인 석탄통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라고는 양쪽의 미립자 운동을 지배하는 상이한 수학적 공식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믿느냐?” 그는 생각하느라 눈살을 찌푸리고 앉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더니 “그렇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결국 선택한 쪽은 자신의 이론과 친구들에게 충실하는 쪽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체험 속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추구하는 사춘기 특유의 행동 양식에 준하는 좋은 예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정한 종류의 의미와 통

일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정신이상자로 딱지 붙은 사람들조차도, 비록 ‘덜정한’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망정, 사고와 행동 면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양식의 통일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편집증 환자의 경우 세상이 자기를 억압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기본 가정에서는 철저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정을 전제로 깔고 보면 그의 행실은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것이다. 인간이 빠져들 수 있는 가장 끔찍스런 두려움은 소멸과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의미와 뜻을 찾고자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물질적 평안을 보장하고 우리의 불편을 극소화해 줄 존재이론이나 의미의 틀 속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일정한 통일성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제아무리 조야하고 초보적인 이론이라도 정립시켜 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관한 일정한 꿈과 계획을 지녀야 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 설혹 그 계획이 거의 실현 불가능하게 생각되고 최소한의 정열밖에 이끌어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우리는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자면 우리 자신의 체험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체계화하고, 이론화해야 한다. ‘불가지론자회’에서 수행한 활동도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설명 애써 노력할지라도 아무도 이 일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교회는 이 절실한 인간의 요구에 응답을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자체적인 가르침의 일관성뿐 아니라, 그 가르침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대로의 삶과 일치되는 그 일관성까지 입증하는 가설과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체 가르침의 일관성에만 관심을 쏟고, 그 가르침을 매일의 체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편집증 환자의 행태나 비슷하게 처신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가르침과 실천이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해도 기본 가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회의 가르침과

우리의 일상생활은 결코 조화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시된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여타 체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 의식의 일부분으로 전락해 버린다. 우리의 인간적 체험과 유리된 교회는 신자의 의문 제기과 스스로의 사고를 능히 저지할 수 있는 동안에만 존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런 교회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복종, 즉 교도권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의 복종을 더없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자가 비판하거나, 교회와 상반된 가르침을 펴는 사람의 글과 이야기를 읽고 듣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그리스도교는 삶의 모든 부문에서 의미를 탐구하는 지성적 열정을 그 특징으로 한다. 참된 그리스도교는 항상 비판적이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느님과 인생에 대한 이해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 종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온갖 인간 체험이다. 그리스도교가 이해하는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느님이다. 그분은 만물 안에 내재하시며, 창조계 자체가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표지요 성사이다. 그리스도교가 전통적으로 학문과 배움을 더없이 강조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안셀모 말대로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며, 종교적 탐사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될 때 비판적 요소 또한 약화되며, 우리의 이해력을 발전시키려는 격려보다 거짓된 교회에 대한 경고가 강화된다. 하지만 비판적 요소가 강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 및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조금도 관계가 없는 유아기적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다.

성년기는 성숙되는 자각을 그 특징으로 한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내면의 의식을 보다 뚜렷하게 자각한다. 우리의 활동,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것 등을 통하여 외부로 표출되는

내심의 복합적인 느낌과 감정에 대한 자각도 확대된다. 그리고 희망과 절망,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기대, 확신과 의혹 등으로 결실 맺는 우리의 내면 활동에 대한 자각 역시 고조된다. 이처럼 내면세계에 대한 의식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그 세계에 매력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보다 가까워지고, 따라서 신비가들이 'tremendum et fascinans' 즉, '두려우면서 매혹적이신' 분으로 체험한 하느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 내면세계는 우리들 각자에게 저마다 독특하며 신비롭고, 우리 자신에게조차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우리는 비록 이 감추어진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과 인간성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아울러 이 내면세계가 우리의 인식과 사고 및 그에 따른 행동의 방식을 설명해 주며, 어떤 외적 환경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여러 사람이 그토록 상이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년기에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내적 생활의 복잡성과 신비로움, 표현 불가능성, 우리 내면에 겹을 이루고 있는 의식의 층들을 점차 감지하게 된다.

종교는 이 성숙의 단계에 적려와 인도로 응답하되, 우리가 끌리는 매력은 키우고, 느끼는 두려움은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또 우리에게 현상을 설명하고, 이 단계가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밝혀 주어야 한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하느님은 이제 감추어져 있고 곧잘 무서움증을 유발하는 우리 마음과 기억의 후미진 곳에서 만나도록 초대받고 있는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은 길이 우리 길과 다르고 생각이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은 하느님, 머리 속에 생각으로 떠오르기보다 직접적인 대면을 주신하시는 하느님, 일련의 분절적인 기도문이 아닌 신비로운 내적 체험을 통해 당신을 통교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하느님이시다. 이 하느님은 바깥으로부터 제시되기보다 내면에서

체험되고, 이론화되기보다 사랑받으며 생활로 체득되고, 제도적 단계에서처럼 외적인 제어력 내지 규율이 되거나 비판적 단계에서처럼 이지적인 추론이 되기보다, 행동이요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일들의 하느님이시다.

이상 세 가지 단계는 차례차례 기술되고 있지만, 실상 각 단계마다 다른 두 단계의 요소도 포함되게 마련이다. 어린이한테서도 비판의 초보단계가 시작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신비적 단계가 엿보이기까지 한다. 마찬가지로 비판적 단계에 제도적 단계의 제요소가 여전히 존속하고, 신비적 단계도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각 단계의 지배적인 요구와 행동으로 쏠린다. 어른한테는 이상의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정도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만일 그 중 한두 가지 요소가 결여된 경우, 그 어른의 인격에는 불균형이 유발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 단계를 새롭게 재검토하되, 이번에는 인생의 각 단계에 나타나며 따라서 종교적 발달단계들에도 나타나게 되는 요구 및 특수한 위험 부담을 보다 뚜렷하게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 필요한 노력과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지나온 단계를 완전히 배격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에 관해서도 살필 것이다. 일생의 여정은 세 구간으로 엮어진 다리를 통해 널따란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제도적 단계 구간에서 출발하여 비판적 단계 구간으로 이행하면서 이미 지나온 구간을 칼로 베듯이 절단한다면, 우리는 강물 속에 빠지고 만다. 마찬가지로 신비적 단계 구간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제도적 단계 및 비판적 단계와의 연결선을 유지해야 한다.

유아기 성장단계에서 위험은 이 단계가 갖는 이점들 바로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 유아기에 제공되는 것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면서 우리를 비교적 수동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보호 속에 안전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단계에 나타나는 위험은 우리가 너무

나 만족한 나머지 유아기적 상태를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지 않는 성향 그것이다. 설사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서 지독한 불편이 나타나면 어린애 같은 언동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심할 경우 어른의 교활성을 발휘하여 병을 빙자함으로써 어린이처럼 보살핌받는 상태로 환원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속임수가 제대로 먹혀 들면 정말로 심하게 앓아 눕는 수도 있다.

종교에 있어 제도적 요소가 갖는 위험은 종교적 유아기 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하는 데 있다. 우리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종교적 지침을 전달받고, 어떤 것이 교회의 윤리적 교의적 가르침이며 어떤 것이 아닌지를 이야기 듣는다. 이럴 때 위험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전진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어른의 간사한 지혜로 자신의 피동적인 자세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일례로, 16세기에 열린 트렌토 공의회 이후로 가톨릭인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방식은 이른바 질문과 답변 형식의 교리문답을 통한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교리문답은 트렌토 공의회 문헌들에 기술된 고도로 전문화된 신학적 언어를 요약한 것으로, 가톨릭인에게 종교란 이해하려 들지 말고 마음을 다해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믿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린이 같은 유치한 자세를 주입시켰고, 그것을 넘어서는 움직임은 거의 혹은 전혀 장려하지 않았다. 현재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긴장 가운데 많은 부분은 제도적 요소야말로 교회에 유일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비판적 요소 및 신비적 요소를 보다 크게 요구하는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 그것이다.

교회에서 권위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도 위험을 안고 있다. 그들은 사람이 유아기적 단계에 머물도록 부추기고, 이 저능한 상태를 “겸손하고 충실하며 유순하고 성실하다.” 칭하고, 감히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분노를 들먹이며 위협을 가할 소지가 있다. 하느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파괴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인 것이 충정,

겸손, 순명, 성실 같은 낱말을 그릇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덕들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자국을 거짓 없이 주의깊게 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덕들이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 목적에 활용할 경우,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적 권위에 이권을 표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느님과 대면하는 자리인 내적 체험에 전혀 주목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하느님이 우리 마음과 정신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파괴할 경우, 그것은 최악이요 추행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에게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혹독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는 말씀이 그것이다.

사실 세상살이에 있어 조금도 유아답지 않고 또 공적인 생활에서 대단한 지명도를 획득한 그런 사람한테서도, 유아기적 자세는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그들의 종교는 밀폐되어 있어서 그들의 경력이나 경력 추구 방법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흔히 가장 큰 목소리로 교회 내의 변화에 반대한다. 그들은 종교가 그들의 어렸을 적 그대로 존속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춘기에 일정한 종류의 일치와 의미를 삶 속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향을 발견하는 일에도 착수하지 못한다. 우리는 당장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 주기에 충분한 일치를 발견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도 있고, 또 발견하게 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려 들 수도 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미를 탐구할 경우에 수반되는 위험은 그 같은 활동이 유아기 단계에 누리던 안전과 보호와 애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탐구 활동은 결과적으로 지금껏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부모나 친구의 의견에 반발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비단 삶의 의미만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는 애정과 지원과 보호 또한 필

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문 제기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강렬하게 느끼게 마련이다. 엄마와 아빠가 본질상 석탄통이나 다를 바 없다고 믿고 그런 자신의 믿음을 엄마와 아빠한테 피력할 경우, 부모 자식간의 절절한 사랑은 유지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종교에서도 같은 문제는 생긴다. 비판과 의문 제기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종교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본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피부로 느껴 안다. 종교 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와 비판은 지금까지도 혼인과 가족 관계에 파괴를 가져올 수 있고, 교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할 수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장기간 수감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정이나 교회 또는 국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더라도 여전히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다만 종교 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와 비판이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에 입각하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면, 종교는 결국 일상생활에 조금도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원기 왕성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표지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믿음에 입각하여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그리스도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다.

교회는 자체 구성원 안에 비판적 요소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 일을 못 할 때 개개인은 종교적 믿음을 일상적 체험과 통합시키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하느님은 개인의 생활 대부분과 피리되며, 결과적으로 종교는 개인적이며 무해한 소수의 이색적인 기행 정도로 간주되고 만다.

만일 교회가 비판적 요소를 장려한다면, 교회는 구성원으로부터 질문과 도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며, 스스로가 진리의 뜻에 승복하면

서 자체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개선할 체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자세는 모든 만물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굳게 믿는 교회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부모를 굳게 신뢰하는 어린이가 그 신뢰심에 힘 입어 갖가지 질문을 해 낼 수 있듯이, 진실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교회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구성원에게 탐구하고 질문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의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며, 오랜 경험을 통해 아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경고를 보낸다. 그런 교회는 자신의 가르침을 일정한 주제에 대한 최종 단안이 아닌 표지판으로 제시하면서, 구성원이 스스로 그 길을 보다 철저하게 탐사하도록 격려한다.

만일 비판적 요소가 제도적 요소 및 신비적 요소와의 연결선이 끊기게 되면, 그로 인해 출현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이성론자이다. 그들에게 있어 하느님에 대한 신심은 신학적, 윤리적 또는 철학적 체계의 신봉으로 대체되어 버린다. 이런 사람은 감성적인 것은 무엇이든 미심쩍어 하며, 다른 사람한테도 느낌을 무시하도록 부추긴다. 비판적 요소는 배양하면서 다른 두 가지 요소는 소홀히 하는 자들은 경직되고 교조주의에 빠진다. 그들은 어린이와 무학자한테 해 줄 만한 말이 별로 없고,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어린 아이와도 접촉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복잡 미묘하여 추상적 개념으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생각과 느낌에 갇힌 신비와도 접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정통성 문제나 스스로가 비정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일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내적 자각이 심화되는 성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열망과 의지의 근원이, 그리고 그것들에서 기인하는 우리 행동의 근원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내면세계를 알고 싶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를 알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자기 삶의 방향도 모르게 된다. 우리가 이 내면세계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내면세계에 경직된 자세를 지니게 될 경우,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 자유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차단시키고 그리하여 자기를 비인격체로 전락시키게 된다.

이 단계에 따르는 위험도 있다. 우리가 내면세계와 그 신비 및 능력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삶 속의 제도적 요소를 배척하고, 물려받은 전통과 한때 받아들인 권위를 배척하며, 추상적인 신학과 철학 일체를 내면에서 발견되는 실재의 풍성한 부를 표현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경멸해 버리는 위험이 그것이다.

종교는 이러한 내적 깨달음을 장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내적 체험들 속에서 신비의 하느님, 놀라운 일들의 하느님과 대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곳도 바로 우리의 마음 안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교의적 또는 윤리적 가르침보다 기도의 지도와 가르침이 한결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의 성인 신자에 대한 주교와 성직자의 주요한 우선적 임무와 봉사는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 때의 위험은 신비적 요소가 너무 크게 강조된 나머지 제도적 요소와 비판적 요소가 소홀시되는 데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공식기도와 예배가 배척당하고, 윤리적 및 교의적 가르침이 기피되고, 신비적 요소가 비판적 요소로부터 제어받지 않음으로써 이해 불가능한 감정주의가 팽창하게 된다. 이것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면 제도적 요소 및 비판적 요소와 단절되어 제어력을 상실한 신비적 요소가 난잡한 극단주의와 위험스런 광신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교회의 삶 속에서 그러한 종교적 광신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역사가 있다.

이상이 인간 성장의 세 단계와 부합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이다. 각 단계마다 다른 두 요소를 배척하거나 한 요소를 배제한 채 다른 한 요소와 밀착하려는 천부적인 성향은 늘 존재한

다. 그 중 흔히 나타나는 예는 제도적 단계에서 비판적 단계를 건너 뛰고 신비적 단계로 직행하는 것으로, 이는 카리스마 운동과 성령 운동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유혹이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교회 안에서는 성인 신자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두 요소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요소를 특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경우도 있다. 폰 휘켈에 따르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몇몇 교황은 제도적 요소의 전형이요, 성토마스 아퀴나스는 비판적 요소의 표본이고, 십자가의 성요한은 신비적 요소의 표본이다. 그는 또한 어떤 수도회가 어떻게 해서 한 가지 요소를 다른 두 요소보다 크게 강조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예수회는 제도적 요소의 표본이고, 도미니코회는 비판적 요소의 표본이며, 베네딕도회는 신비적 요소의 표본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조화 있게 갖춘 표본적인 사람은 성토머스 모어이다.

이상의 분석은 내적 체험이라는 우리의 보물이 묻힌 밭에 다가가는 접근 방법을 선명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의 부추김과 충동질을 받아 교회의 제도적 요소에 철저히 안주한다. 그러면서 감히 비판적 요소에 근접하려는 소행은 모두 다 불충이자 비정통성과 신앙 상실을 자초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오늘날 제도적 요소를 부당하게 강조하는 결과는, 신자수를 충성스럽고 유순하고 복종 잘하고 영감이 결여된 피동적인 사람들로 축소하는 교회, 냉동된 하느님의 백성을 낳기 십상이다.

제도적 요소와 비판적 요소는 배양하면서 신비적 요소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지적으로는 활발하지만 영적으로는 삭막하며, 그런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대체로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교회에서는 예언 정신이 소멸되고, 제도적 요소인 의식과 행사에 갖든 심오한 상징성마저도 부적절한 것으로 의문시되고 배척받아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이 장을 읽고 나서 그대는 제도적 단계라는 유아기와 비판적 단계라는 사춘기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결코 신비적 단계에 진입할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분석은 우리가 신앙 면에서 어른이 되지 못하도록 아직도 방해하는 유아기와 사춘기의 남은 찌꺼기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찌꺼기들이 드러날 때, 이것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내적 자유를 향한 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 장의 남은 부분에서는 두 가지 실천 과제가 제시된다. 하나는 폰 휘켈의 분석을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 자신의 신앙 자서전을 기술해 보는 것이다.

실천 과제

1. 폰 휘켈의 분석에 관하여 :

ㄱ) 그대가 본 그대의 교회는 어느 한 요소가 우세하여 다른 두 요소가 소외당한 쪽인가, 아니면 어느 두 가지 요소가 강조되면서 다른 한 요소가 배제된 쪽인가?

ㄴ) 위의 질문을 그대의 그리스도교 신앙 생활에다 적용시켜 보라. 그대가 느끼는 혼란과 당혹감과 환멸 같은 감정 밑에 깔려 있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 있어, 그 같은 분석이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감정은 그대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요소로 만족하면서 다른 두 가지 요소의 출현을 심히 불쾌하게 여긴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혹시 그대는 이런저런 요소는 강조하고 다른 요소는 배격하는 교회에서 답답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ㄷ) 그대의 교회 내부에 긴장과 분열을 야기하는 원인 및 교회들간의 긴장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 몇 가지를 이해하는 데 이 같은 분

석이 도움을 준다면 어떤 형태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2. 그대 자신의 신앙 자서전을 기술해 보라.

(구약성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대인은 다윗 왕 치세에 누린 짙막한 영광의 순간과 하느님께 대한 불충과 패배, 수모, 포로생활 등으로 점철된 지극히 불행하고 수치스러웠던 오랜 세월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네 역사를 재난과 시련 속에서 그 재난과 시련을 통하여 이룩된 구원의 역사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와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예수 안에서 생활하였고, 예수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은 현재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네 삶 속의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역사를 하나의 구원의 역사로 인식하자면, 바로 우리 자신의 역사와 접할 필요가 있다. 이 실천 과제의 목적은 그대가 자신의 역사와 접하도록 돕는 데 있다.)

“내 인생에서 하느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본다. 그리고 떠오르는 기억은 어릴 적의 추억이든 최근 몇 년간의 추억이든 순서 없이 간략하게 휘갈겨 써 본다.

“하느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이 기억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한다면, 질문을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출몰하였는가?”로 바꾸어 본다.

갖가지 종류의 가치 판단이나 인정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 어떤 형태의 분석 시도도 혹시병처럼 생각하고 피한다.

이 작업을 일단 시작하면 추억이 꼬리를 물고 어어진다든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추억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순서 없이 간결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내적 혼돈과 그릇된 하느님상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로마 7,21).

보물은 내적 체험이라는 발에 묻혀 있다. 성년기에 이르면 우리는 이 발의 신비와 복잡성뿐 아니라 그 곳에 잠재된 위험들도 한결 또렷하게 인식하며, 따라서 발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설령 무시하는 데 성공할지라도 내적 생명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행실에 영향을 미치고 흔히 세찬 발길질을 해 댈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내적 생활의 복잡성과 위험을 고찰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는 충동과 욕망에 따르는 힘과 혼란도 살피게 된다. 종교 교사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얻자면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충고에 비판적 요소를 적용시켜 물음을 던질 것이다. “내가 향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일단 내면의 감정을 주시하기 시작할 때, 돌연한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다. 이유는 눈에 목격되는 것이 싫을 수도 있고, 감정의 일부가 우리를 압도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은밀한 내적 감정을 직시하는 일이 바람직한 것일까? 만일 원한과 쓰라림, 독기와 파괴욕 같은 감정이 목격되면 어찌 할 것인가? 이런 감정을 주시함으로써 그것이 내 의식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휘어잡아 하지 않던 짓을 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예 이런 감정은 묵살하고 지내는 편이 보다 현명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독신생활을 서약한 사제가 자신의 욕망을 주시하고, 그 결과 결혼하고 싶어한다면, 이로 인해 사제로서의 그의 생활은 난파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기혼자가 자신의 욕망을 주시하고 그 결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든가 이 배우자와는 결혼할 뜻이 없었음을 알게 되면, 이는 결국 혼인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주목하고, 그 때마다 가장 먼저 드러난 욕망

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혼돈에 빠져 버린다. 서로 상충하는 욕망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우리요, 우리는 그 같은 욕망 대부분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 욕망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체의 결정을 판장한다. 욕망간의 충돌을 아주 생생하게 예시하는 일화가 복음에 나온다. 개라사 지방의 악령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이 이야기가 그것으로, 이는 세 복음서에 모두 실릴 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배를 대고 물에 내리시자마자 광기가 대단히 심한 미치광이가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마르코는 (5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 상당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았으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매어 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이 사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광포성은 어떤 쇠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극심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 난폭성은 본인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쳤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찧곤 하였다.” 내면의 갈등이 그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예수를 발견하자 그분한테 달려가 소리를 지른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사람 내면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으니, 하나는 예수께 향하는 끌림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께 저항하는 반발이었다. 이 둘은 예수를 대하면서 동시에 터져 나온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니?” 하고 물으신다. 그러자 그는 대단한 직관력을 갖고 대답한다.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 악령을 예수께서 몰아내 주신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 이 사람은 의식을 되찾고 암전히 옷을 입은 채 예수 곁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 함께 지내도록 허락해 달라고 애원한다. 우리는 악령 들리는 일을 사실로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악령 들림의 현실성이나 비현실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로 이 이야기를 음미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내적 생활을 조명해 보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다.

‘무덤에서 산다는 것’, 삶이 죽음과 같아 보이고 한때는 낙이요 기쁨이 되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감명도 주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냉담한 상태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짓이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행한 일에서 비롯되는 쓰라림과 원한으로, 용서받지 못하거나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곤욕스런 감정으로, ‘울부짖고 스스로를 자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한날에도 감미로움과 밝음과 만인을 향한 선의로 충만되는가 싶다가도 몇 분 뒤에 무슨 일을 겪고 나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비이성적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나 재수 없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번덕을 부린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군대 같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가? 한편으로는 예수께 달려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더러 떠나 달라고 애원하는 악령 들린 사람의 이중적인 흐름이 우리 안에서도 감지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자신의 내밀한 심연을 들여다보고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까지 엿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악령 들린 사람이 지닌 특성 모두를 우리 안에서 목격하고 스스로 끔찍스러워할 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면들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할 범죄나 변태 행위, 잔혹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잠재 능력 율타리를 벗어나는 영웅 행위나 이타심, 사랑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 안에서 악의 가능성을 목격할까 두려워하는 까닭에 자신의 진정한 위대성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내적 생활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탓에 자신의 참된 자아를 묵살하며 자기 개성과 자유와 인격까지 포기하게 된다. 예루살렘

성서의 지적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 자체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내적 혼돈과 광포성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 습성은 대단히 교묘하고 유해하다. 이것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본인 자신도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가 볼 때, 잘못이 자기 아닌 옆집 사람이나 소련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이런 습관이 파괴적인 이유는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파괴의 진정한 근본 이유는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거부한다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자신의 내적 혼돈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것은 한결같이 배척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몇 사람에게서 당하는 배척은 우리를 지지하며 중요한 존재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능히 견디어 낼 수가 있다. 우리들 대다수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거부의 심연 속에 침몰시키고 무가치와 무의미로 잣아들게 만드는 철저한 배척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대면할 수 있을 때, 자아에 대한 진실에 도달한다. 즉 조물들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가 자기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 다른 인간이나 창조계 전체와 나와의 관계를 떠난 독자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도달하자면, 그런 두려움과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의 관계그물망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도, 맹목적이며 비합리적인 세력들의 복합체도 아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모든 조물이 살아 움직이고 존재를 유지하는 하느님의 통일성 그것이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진리가 우리 눈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로 비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항거하게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위협에 직면하는 것 이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

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또 다른 사람한테서도 확인을 얻어 내고 자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을 거두고 명성을 얻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신념과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는 일에 대한 흥미와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조작하게 된다. 실제로 충분한 노력만 있으면 그런 일에 진실로 흥미를 느낀다든가, 그런 사람을 진짜 애정으로 보살피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가식은 또 다른 가식을 낳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만의 올라미에 걸려 움썹달썹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짓으로 화하고 만다. 우리는 흥미도 관심도 없는 삶의 유희에 빠진 채 가장 내밀한 자아에 폭력을 가하고, 비판과 자기 의혹에 공포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에서 살고 밤낮 없이 무덤과 산을 떠돌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구사하는 것이다. 도로(H. D. Thoreau)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무리는 소리 없는 절망의 생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게라사 지방의 악령 들린 사람과 자기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부 독자에게는 과장되고 불안정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생활이 만족스럽고 질서 정연하고 덕성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경우로서, 심각한 좌절이나 한없는 갈망 또는 자아에 대한 두려움을 체험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미 갈등을 거쳤으며,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마주 대한 바 있고, 하느님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미 인정하였고, 그리하여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정서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하여 현재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일 그대가 자신과 게라사 지방의 악령 들린 사람 사이에서 유사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대는 발전한 셈이요 진실의 궤도로 진입한 셈이다. 설령 그대가 발전과 정반대의 느낌을 받더라도 그렇다.

내적 혼돈 및 서로 상충하는 욕망을 인식하는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게라사의 악령 들린 사람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면의 혼란한 모습을 그분에게 보여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의 내적 어둠을 밝혀서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욕망들, 한없이 무모한 꿈 속에서도 결코 짐작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욕망들을 드러내 보여 주기 시작하신다. 단 여기에는 우리 문제를 그분께 내보이면서 그분한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드러난 보다 내밀한 욕망들은 또 다른 욕망을 제어하고 가라앉히며 조화 있고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 내면에 일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것이다.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표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예수께로 향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하느님께로 향한다.’ 또는 ‘예수께로 향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과연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설령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이 내 자신의 은밀한 영상이나 나를 객관화시켜 신이라 부르는 주관의 객관화가 아닌, 내가 향하고 있는 하느님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스토니허스트에서 가르칠 때 열다섯 살짜리 무신론자 학생들 외에도 아주 해맑은 열세 살짜리 학생들도 담당하였는데, 그들의 일관된 요구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다. 나는 성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길」과 성안셀모의 존재론적 논거를 위시하여 그 옛날 위대한 인물들한테 충분한 만족을 준 증거들을 아는 대로 다 동원했지만, 이 학생들은 별다른 감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

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할 경우 매일 미사와 그 밖의 종교 행사는 물론 한 주간에 두 시간씩 갖는 종교 수업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매우 날카롭게 추궁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 학기 내내 하나님을 실재하는 가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께로 향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우리는 결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인 문제인 양 다루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분의 자리를 배정하고, 우리가 그분 몫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그분에게 부여하려고 덤비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적인 논증을 통하여 “그러므로 원인 없는 원인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거나 “그러므로 필연적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원인 없는 원인이자 필연적 존재를 하나님이라 이름 붙이기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 결론은 유익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하나님은 아주 다른 하나님이다. 예언자의 하나님은 신비로우면서도 감정이 더없이 풍부하여 지극히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에 넘치며, 그러기에 친히 사랑하시어 영화를 누리게 하신 자들이 서로에게 불의를 자행하면 화내고 분노하며 격분하는 신이시다. 그에 반해서 철학자의 하나님은 멀리 있고 비인격적인 신이다. 예언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생활을 절개하여 가장 숭고한 것에서 가장 비열한 것에 이르기까지 온밀한 생각과 느낌을 모조리 들추어 내는 쌍날칼과 같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충만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고대 교회의 저술가들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대고 이야기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발견한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야 정신으로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비정신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마음도 나름대로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흔히 의식적인 정신에는 간파되지 않는다. 의식적인 정신은 나중에 가서야 이 분별력을 따라잡게 된다.

하나님께로 향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든 간에 그분은 곧, 신비이시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유한한 정신을 가지고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만일 지금 그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뚜렷하고 정확한 개념을 탐구하는 중이라면, 이 책에서는 그런 개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그대가 멋지고 선명한 정의(定義)를 발견해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릇된 정의임을 확인해도 된다. 하나님은 신비이시다. 그렇다고 그분이 전혀 이해 불가능한 분이시라는 뜻은 아니다. 신비도 알 수가 있으며, 그 앎도 점차 성장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더 정확하게 파고들면 들수록 그 신비는 우리를 그만큼 더 강렬하게 사로잡으며, 우리는 그분이 신비이심을 보다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신비이시라는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 진리는 근본적인 것인 만큼, 이를 무시하는 종교는 어느 것이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 분명하다. 사람이 지극히 정교하고 그럴싸한 종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비이시라는 이 근본 진리를 바탕에 깔고 있지 못할 경우, 이 정교한 체계는 정교한 우상 숭배 체계밖에 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조형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하며,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나라에서 대단히 영예로운 자리를 그분에게 수여하되 그분을 통제하는 위치는 여전히

고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통제 불가능한 분이시다. 언젠가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손짓해 부르시는 말씀이다.” 하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더러 우리 자신을 초월하고 자기에게서 빠져 나오라고 부르시면서, 항상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의 하느님이시다. 추구하는 길을 고정시키고 변경불가하게 만든 교회가 세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훌륭한 표지가 못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느님을 아주 분명한 용어로 제시하고, 자체의 명확한 규정을 따름으로써 입수 가능한 하느님 면접권(面接券)을 제공하는 교회가 항상 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자체적인 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을 하느님으로부터의 이탈로 간주하게 마련이다.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최초의 초안 문헌은 “교회에 관한 헌장”으로 정해져 있다시피 했다. 그리고 이 초안은 첫 장에서 교회의 교계 제도 구조를 다룰 정도로 제도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교들은 이 초안을 거부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문헌의 첫 장은 “교회의 신비”로 명명되어 있다. 이는 실로 지극히 중요한 출발이었다. 이것은 그 이후의 공의회 분위기를 설정해 주었고 또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대변혁과 향후 전개될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구현하는 성사’이다. 그리스도교 교파들 가운데 ‘성사’라는 낱말을 거부할 교파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실질적인 표지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느님은 정지된 분이 아니시다. 교회 역시 자체의 의미에 충실하고자 할진대 결코 정제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느님을 완벽하게 묘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의 의미와 본질 또한 온전하게 묘사할 수가 없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로서 구조와 법, 규

율, 교육 기구, 통교 수단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의 구조는 잠정적인 것인 만큼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느님은 항상 당신의 교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위대하시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시며 각 사람 안에 거처하신다. 지혜서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도 싫어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으면 무엇이 스스로 부지할 수 있겠으며
 그분이 불러 주시지 않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연명할 수 있겠는가?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에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지혜 11, 24-26).

하느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신다. 하느님은 지위와 신분이 높은 인사나 인간의 계급 제도를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뒤엎으신다. “그분은 권세 있는 자들을 권좌에서 내쫓으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신다.” 그분은 그리스도교 종파들을 넘어서고 종교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어떤 종교도 갖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신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네 특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역설하면서 하느님을 독점하려 들지만, 하느님은 어떤 종교도 독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느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우리의 편협과 자존(自尊)을 신격화하여 이를 하느님의 뜻이라 명명하려는 유혹은 항상 끊이지 않

는다. 하느님은 신비요 손짓해 부르시는 말씀으로서, 우리더러 편협성을 뛰어 넘도록 촉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보증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계셔야 한다고 형식화하는 하느님이 아닌, 계시는 그대로의 하느님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까닭에 그분의 신비를 함께 나누고 있다. 하나같이 지문이 다른 것이 우리라면, 우리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도 별로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여행을 하고 있지만 거치는 길은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자유로이 찾아 내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무엇보다도 우선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교육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제시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내고 자신의 여정을 책임져야 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다.

우리의 여행 목적지는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은 신비이시기에 처음에는 대단히 도움 되는 길잡이로 보이지 않는다.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를 여행길에 떠나 보내면서 이 여행은 필요 불가결할 뿐 아니라 생사에 관계되는 중대사라고 단언하면서도, 더없이 중차대한 이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자신도 모르고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 “여행길에 무사하기를” 바란다며 “용기를 가져라.”고 말하는 경우나 다름이 없다.

하느님은 신비이시나 우리가 그분께로 향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이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나는 내 전존재로 그분을 향할 수 있는 것일까? 영적 문제에 조언하는 사람과 서적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답변은 “그분께 기도하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고를 듣고 나서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 생긴다. 기도가 이루어 줄 수 있고 실제로 남들에게 이루어 준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열정적인 글을 읽은 다음에 기도

하려고 애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든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내적 불안을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절감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기도하기를 몹시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든가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비교적 보편적인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정신 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여부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나는 대학교 전속 사제로 있을 때 가톨릭 신앙을 버렸거나 버리려고 마음먹은 사람 내지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더 이상 참되다고 믿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가톨릭인으로 행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직성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은 나름대로 이해하는 하느님을 진술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내 머리 속에서 하느님의 형상 하나가 합성되는 것이었다.

이 하느님은 엄마와 아빠가 대단하게 우러러보는 혈족의 한 사람이었다. 엄마 아빠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다정한 은인으로,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였다. 마침내 우리는 부모 손에 이끌려 ‘홀륭한 노인 조지 아저씨’를 찾아간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면서 턱수염을 기르고 우락부락하며 험악한 모습을 지닌 분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가정의 이 보화에 대한 부모의 찬사에 도무지 공감도 가지 않는다. 방문이 끝나자 조지 아저씨는 우리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대단히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애들아, 잘 들어라. 난 여기에서 한 주간

에 한 번씩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가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줄 테니 똑똑히 보아 두어라.”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저택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 곳은 어둡고 내려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더니, 이윽고 저층의 울부짖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지하실에는 강철문이 여러 개 있고, 조지 아저씨가 그 중 하나를 열면서 “얘들아, 안을 들어다보거라.” 하신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악몽 같은 광경 그것이다. 활활 타는 화덕이 쪽 늘어서 있고 작은 악마들이 화덕을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조지 아저씨를 찾아오지 않았거나 조지 아저씨가 시키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은 남녀 어른과 어린이를 타오르는 불길 속에 집어 던지는 중이다. 이 때 조지 아저씨는 말한다. “얘들아, 만일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십중팔구 들어가게 될 곳이 바로 저 곳이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층으로 데려와서 엄마와 아빠에게 넘긴다. 우리가 한 손으로 아빠를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엄마를 부둥켜안은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며 묻는다. “어떠냐, 이래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각과 힘을 다해서 조지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괴물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다른 소리를 했다가는 줄지어 화덕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틈에 끼일 것이 두려워 “물론 사랑할 거예요.” 하고 대답한다. 칠없는 나이에 종교적 정신분열증에 걸린 우리는 조지 아저씨한테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당신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다, 우리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자 한다는 등의 말만 줄곧 되뇌인다. 우리는 그분의 원의라고 가르침받는 사항들을 준수할 뿐, 그분을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감히 털어놓지 못한다.

조지 아저씨는 일종의 풍자화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진리가 희화되고 있다. 이 진리란 우리가 폭압적인 자화상에 해당하는 신을 조립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옥불 설교는 이제 유행에서 벗어났지만 몇 십 년을 유행했었고, 앞으로 또다시 유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설

교는 건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는 대단한 설득력을 갖는 반면에, 비교적 건전하고 섬세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폐해를 야기한다.

우리의 하느님관은 부모와 교사와 성직자를 통해 우리에게 중개된다.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하느님관은 물론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교사가 인격체로서의 우리에게 애정과 존중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치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배형 인간일 때, 우리의 하느님관은 온전하지 못한 정도를 지나서 왜곡되어 버릴 수도 있다. 하느님이 조지 아저씨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적으로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내 느낌이다. 그리고 이 느낌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다. 내 정서에서 조지 아저씨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머리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껴잡없이 하느님에게 접근하기 꺼리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고, 기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천 가지 핑계를 찾아 내게 된다. 너무 바쁘다든가 일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겠다는 등의 핑계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릇된 하느님 개념을 제거하자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느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느님 자신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가르침을 애원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어느 작가가 말했듯이, “하느님은 하느님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지적 지식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주변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영향을 주는, 느껴 아는 앎이다. 느껴서 아는 하느님 지식은 우리의 사고 양태를 변화시키고 행동 양태도 아울러 변화시킨다. 이것은 고치처럼 단단히 뭉쳐진 마음과 정신을 깨부수고, 자라면서 받은 교육과 현재의 주변환경이 굴레 씌우는 한계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조지 아저씨가 그릇된 하느님관을 풍자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그 밖에도 많다. 우리는 조지 아저씨를 몰아 내고 그 자리에서, 가끔씩 생활 속에 등장하여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형 하느님 개념을 대신 들어앉힐 수도 있다. 이 고마운 존재는 만사가 잘 풀려 나갈 때에는 곁에 붙들어 두기가 좋지만, 재난이 밀어 닥치면 그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만다. 산타클로스는 조지 아저씨에 비해 사랑이신 하느님에 보다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시며” “애초에 나를 지어 내어 내 어머니 태 속에다 안치하신” 성서 속의 하느님과와는 거의 무관하다.

우리가 지니는 특정한 하느님상은 성장 과정에서 받은 교육의 성격 및 그 교육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유는 우리의 관념과 느껴 아는 앎이 바로 체험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체험이 하느님을 우리의 과실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찰형 인물로 생각하도록 가르쳤다고 하자. 만일 우리와 하느님과의 만남이 주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저 귀로 듣는 예식으로 일관하고, 설교에서는 하느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 거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제시하는 냉랭한 교회였다고 하자. 그러면 제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께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왜곡된 하느님관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때,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진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는 계속 여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왜곡 사실들도 발견한다. 이런 발견은 처음에는 몹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고통은 오래 곁여져 있던 관절을 쭉 펼 때 느끼는 고통이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로워질 때의 고통인 것이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은 발견의 여정이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찬 여정이다. 여기에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왜곡된 하느님관을 깨우친 사람 하나를 예로 들어 본다.

‘프레드’는 모든 사람한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다. 그는 결혼한 젊은이로서, 직업상의 일 이외에도 여러 개의 자원 봉사 단체에 가입해 있었다. 신학에 관심을 가질 만큼 지성적이었고, 외식을 한다든가 영화나 연극을 보러 다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소박하게 살았다. 그는 휴일이면 아내와 단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일하였다. 그러던 어느 휴가 때, 그는 나를 찾아와 개인 피정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나는 그더러 상상력을 십분 발휘하여 복음에 나오는 장면장면을 머리 속에 그리되, 장면 속의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임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복음 속의 장면들을 상상하는 가운데 체험한 바를 내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하루는 그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상상해 보았노라고 했다. 상상 속의 광경은 너무도 생생했고, 음식이 가득 쌓인 식탁들이 푸른 하늘 아래 죽 늘어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식객들은 춤을 추었고 참으로 흥겨운 광경이었던단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리스도도 보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보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란 하얀 옷을 입고 손에는 장대를 들고 가시관을 쓴 채,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몸을 곧추세우고 앉아서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상은 대단히 홀대받고 있는 경이로운 도구이다. 상상은 우리가 정신과 감각과 느낌을 그대로 지닌 채, 복음 속의 장면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파묻혀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인식과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추억과 감정을 의식으로 끌어 올려 주기도 한다. 프레드가 상상 속에서 목격한 그리스도는 그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했던 하느님상 및 그리스도상을 상당 부분 부각시켜 주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주제삼아 기도드리기 이전까지는 “그대의 기본적인 하느님관과 그리스도관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 그는 필경 “하

느님은 사랑과 연민과 자비로 충만하신 신이시다.”라고 답변했을 것이다. 그런 그의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또 하나의 하느님상이 실제로 작용하고,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못마땅해 하시는 그리스도상을 깊이 있게 음미하는 중에 자기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즐거움을 못마땅해 하시는 그리스도, ‘홀륭한 일’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인생의 소박한 쾌락마저 허용하지 않는 전제적인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홀륭한 일에 수없이 투신해 오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아무런 기쁨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인정하도록 스스로 용인하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냉혹한 신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는 하느님께로 향하고 기도하라는 충고를 받고 자신도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하지만, 그럴수록 사태가 악화되어 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사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절실해서 기도를 도저히 마다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의료신학」(醫療神學)의 저자 프랭크 레이크 박사가 “의무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 는 경색증”이라 명명한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발견이 처음에는 프레드에게 대단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발견을 통해서 전제적인 하느님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다. 프레드의 과거 삶이 온통 낭비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성실하게 추종하였고, 그렇게 성실히 따른 덕분에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하느님은 그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느낌들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기도하라,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고 충고하는 소리를 사람 입에서 듣거나 글로 읽는 경우, 흔히 몸서리를 치곤 한다. 그 이유는 아주 그럴싸하게 제시되는 이런 종류의 충고로 말미암아 파열당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 안에서 거 짓된 폭군형 하느님이 작용하고 있을 경우, 내가 그 사람에게 해 주는

말은 “당신의 폭군한테로 돌아가라.”이다.

프로이드는 ‘초자아’(超自我)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어릴 적에 부모와 남들이 제시한 ‘해야 할 일들’에 너무 깊이 동화된 나머지 이 ‘해야 할 일들’이 사고의 일부로서 영구히 녹아 들어 마치 자신의 결정인 듯 받아들이게 된 우리 정신 속의 의식 내지 잠재의식 부분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대단한 부모는 좀더 잘 하라고 자녀를 끊임없이 북아 델 수 있다. 이럴 때 ‘우리 집안에서는 최고라야 어울린다.’에다가 ‘하느님한테는 최고라야만 된다.’가 가세한다. 어린이는 애써 노력하지만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실수가 엄마와 아빠의 분노를 사며, 이미 하느님을 소개받은 다음이라면 하느님의 분노까지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어린이도 여느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애정과 보호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애정과 보호는 음식과 거처 못지않게 어린이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어린이가 계속해서 인간됨을 쫓는다. 이 어린이는 엄마에게 인정받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된다. 결국 엄마는 이를 데 없이 강한 반면에 아이는 발달과정상 비판적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할 만큼 지독히 나약해질 때, 아이는 엄마 눈에 모범적인 자녀로 비치게 된다. 엄마는 어린이가 쟁취해 내는 성공, 어린이의 유순함, 어린이의 자기에 대한 관심을 한껏 즐긴다. 반면에 어린이는 엄마의 야심에 동화되어, 엄마가 세상을 떠난 오랜 후에도 엄마의 그 야심에 평생토록 닥달당한다. 어린이의 인격은 미처 성장할 틈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어린이는 쫓기고 불안하고 좌절된 삶을 살면서도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물론 이유는 어린이의 자아가 성장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어린이는 이 폭군적인 초자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 해방이 실현되지 않을 때, 어른이 된 어린이는 자기에게 조금도 잘못이 없고 그러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로움이요 부담만 되는 그런

이상을 실현하고자 몸부림치며 살게 된다.

그리스도교가 제도적 요소를 강조하고 특히 강도 높은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법규 불이행을 영원한 단죄로 위협하는 반면에 비판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는 배제해 버릴 경우, 그 결과는 야심적인 어머니가 자식에게 미치는 것과 동일한 악영향을 구성원에게 미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되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자에게 종교적 성격을 가진 압제자형 초자아를 형성하여, 신자 개개인의 인격을 질식시키고 내적 자유를 박탈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교적 노이로제 상태로 이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명에는 그분의 약속대로 편하고 가벼운 것이 되기는커녕, 불안과 죄책감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고통스런 짐이 되어 버린다.

이런 초자아 현상은 비단 정신과 의사의 단골손님한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특히 유아기에 있어 성장에 필요한 선익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면 이 초자아를 벗어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발견해 내지 못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보물은 자기의 체험이라는 발에, 이 체험에서 귀결되는 내적 생활 속에 묻혀 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상반된 욕망과 감정이 상호 충돌하는 복잡한 내면생활을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내적 생명력은 무시당하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화를 얻지 못할 때 조만간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습을 감행하기도 한다. 영성작가들은 우리더러 기도 중에 하느님께 향하라고 말하지만, 하느님 자신이 이 같은 혼란에 한 몫 할 수도 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릇된 하느님상들은 내적 생명력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질식시킴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두려움에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 다음 장은 작동 가능한 갖가지 그릇된 하느님상을 보다 재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도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게 된다.

실천 과제

마르 5, 1-20을 천천히 봉독하면서 마르코가 기술한 악령 들린 사람의 행태를 깊이 음미해 본다. 이 장면을 대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자신의 체험을 빠짐없이 적어 본다. 끝으로 절벽 가장자리에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그대를 상상해 본다. 그리고 돼지떼가 호수로 곤두박질할 때 예수께서 그대에게 “너의 우울증이, 너의 분노와 쓰라림이, 너의 증오가 어떻게 스러져 가리라.”는 말씀을 속삭이신다고 생각해 본다.

땅 파는 연장들 — 기도 방법 몇 가지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시편 46, 10).

이 장은 기도 방법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기도 방법 몇 가지를 기술하는 제안일 뿐 규정 사항은 결코 아니다. 이들 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럴 경우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알면 그만이다. 기도 방법은 사람 머리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저마다 자기 나름의 기도 방법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 이 장이 제안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독자에게 도움될 만한 몇 가지 기도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실상 그들에게는 이것이면 족하다. 내가 지금껏 이 점을 강조해 온 이유는, 이 점이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뿐이다. 따라서 특정한 방법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차질을 빚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옛날에는 사악한 왕과 잔인한 폭군 또는 변태적인 황제가 민중을 노예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국가든 전제주의 국가든 간에 전문가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을 모조리 통제하려고 든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썩 드물다. 예를 들어 의학계의 경우 전문가들 주장이 한결같이 만장일치로 통일된다면, 우리가 마음놓고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마음놓고 실시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없게 된다. 심리학 및 정신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특정한 문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본능적 느낌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여 단정해 버릴 때, 이들 전문가는 우리의 자유에 보다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녀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양육해야 한다든가, 통합된 인격을 지닌 인간적이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간이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

며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으로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독재 국가는 이런 전문가의 통제 기능을 익히 아는 까닭에 저항 세력에게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치료 명목으로 격리시키곤 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들은 반대자를 통제하는 데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백성은 신들을 믿는 종교적 성향을 가진 이교도들이었다. 그래서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빵과 서커스로 두루 통제할 수 없었던 백성의 마음과 정신을 보다 완벽하게 지배하고자 하였다. 그리스도 역시 똑같은 종류의 지배력을 구사하도록 유혹받으셨다. 돌을 빵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못 사람의 시선을 끌어 모으고 그리하여 세상 모든 나라를 수중에 넣도록 유혹받으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셨다. 종교 지도자와 교사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지배욕에 말려들지 말도록 당부하셨다.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마태 23, 8-10).

우리에게는 의사와 심리학자, 종교 교사를 비롯하여 모든 지식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당연하지만, 어떤 전문가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종교 교사와 권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교회에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포함한 제도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

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르침과 교회 안의 온갖 규정과 법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그분에게 보다 훌륭하게 응답하며 더욱 겸허하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신비적 요소가 강조되지 않거나, 우리가 독자적 성격을 지닌 내적 자아 속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 종교는 제도를 숭상하는 우상 숭배나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집단 내지는 사상 체계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

하느님은 진실로 우리 교사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수 있다. 아니 그분 홀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바울로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 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로마 8, 15).

만일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올바르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일까?’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의 이야기에 따라 움직이고 지배당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느님은 친히 부여하신 독자적인 그대 존재 안에서 그대와 나눴을 갖고자 하신다. 그대가 그분을, 이미 아는 자들이 그대를 위해 마련해 준 일정한 공식들에만 반응하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그분은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지식의 원천인 우리 자신의 체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체험을 읽어 내고 해석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자극들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상실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에 대한 자기 믿음에 의구심이 일거나, 아니면 자기 생활이 매우 어수선하여 먼저 삶에 변화가 있어야만 하느님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느끼는 까닭에, 선뜻 기도에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심한 부담을 느낄 때면 “기도에 대한 거부감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내 자신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는 것이 좋다. 나는 불확실한 믿음이라는 자신의 주관적 상태를 더없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과오가 하느님의 선하심으로도 어쩔 수 없을 만큼 막중하다고 보는 것인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으로 내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않다는 사실, 내가 자기와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기도를 바치는 것 자체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이 능력이 인격적 존재인지 아닌지는 모를 수가 있고, 또 이 능력의 본질에 관해 아무것도 모를 수 있기는 하다. 시편에 “너희는 평온을 찾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는 말씀이 나온다. 평온을 찾기는 어렵다. 육체적 평온도 힘들지만 마음의 평온은 더더욱 어렵다.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기억과 생각은 마치 별떼가 와글거리듯이 기승을 부린다. 기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는 추억과 생각과 상념이 들끓게 만들어, 길이 우리 길과는 다르시고 생각이 우리 생각과 같지 않으신 하느님이 들어오실 수 없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는 누에고치와 같고, 그 단단한 외피는 자신과 세상의 편협된 시각을 대변한다.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고치 속에 갇힌 채로 그 안에서 덜거덕거리는 것과 다름없다. 고치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이다.

다행히도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내가 엄지발가락에 붙어 있는 이물질에다 신경을 집중할 때는 동시에 살림살이 걱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마음과 몸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착상은 여기에서 나온다.

우선 등받이가 수직으로 된 의자에 앉는다. 몸이 유연한 사람은 마룻바닥에 앉아 정좌 또는 가부좌를 해도 된다. 등은 똑바로 세우되 몸에 힘을 주지 말고 긴장을 푼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두 발을 바닥에 착 붙이고 두 손을 넓적다리 위에 가만히 올려놓거나 무릎에서 각지를 끼도록 한다. 눈은 감지 않으면 정면의 한 점에다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런 다음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신경을 집중한다. 발에서 시작하여 점차 위쪽으로 옮겨 가되, 느낌이 발생하는 부위마다 몇 초 동안 신경을 쏟고 곧 이어 다른 부위로 옮겨 간다. 이 때 한 부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좋을 수도 있다. 신경을 집중시킬 때 그 대상은 그냥 느끼는 느낌이지 느낌에 대한 생각은 아니다. 몸이 가렵거나 불편하여 자세를 바꾸고 싶더라도, 그 불편을 인정한 채 별것 아니라고 넘기면서 몸에 느껴지는 것에도 계속 신경을 쏟는다. 마음은 이런 일을 긴 시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내 해석을 내리고 의문을 제기하여 그 해석과 의문에도 신경을 쏟게 만든다. ‘이것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힌두교도의 수도 자세가 아닌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어야지?’ 이런 형태의 의문이나 해석은 느끼는 가려움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즉 의문과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채 곧바로 몸을 느끼는 작업으로 되돌아가도록 한다. 처음에는 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이면 충분하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할 테지만, 온유한 끈기로 계속하노라면 정신 집중이 향상되며 긴장 이완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이 같은 수련이 사람을 나른하게 만들고, 따라서 불면증에 바람직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이 꽤 있다.

이 같은 수련을 통해 평온을 어느 정도 체험하게 되면, 원하는 사람은 좀더 기도다운 기도로 옮겨 가도록 한다. 이 때 스토아 학파에서 빌

린 성바울로의 말씀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를 유지한다.”를 속으로 되뇌인다. 우리는 생의 온갖 체험 속에서 하느님과 만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더욱더 긴밀하게 접촉하면 할수록 그분과도 그만큼 긴밀한 접촉을 갖게 된다. 이 방법으로 기도할 때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자기 판단은 일체 피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은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더없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자기 판단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경우에는, 이것을 가려움증 다루듯이 다루도록 한다. 그 존재는 인정하되 신경은 느낌 쪽으로 집중시키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수련법으로서 전술한 것과 동일한 자세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뿔을 때 몸에 오는 느낌에도 온 신경을 집중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때는 호흡의 장단을 고의로 변경시키려 들지 말아야 한다. 콧구멍을 통해 흡입되는 찬 공기와 내뿔는 따스한 공기에다 신경을 집중시키도록 한다. 처음에는 숨결이 의식되면서 자신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런 현상은 대체로 오래 가지 않는다. 만일 이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숨이 험뻑거리지면, 현재로서는 이 수련법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수련 방법을 통하면 숨결에 변화가 오고 호흡이 깊고 길어지면서 몸이 나른한 상태로 된다. 이 수련법은 그 자체만으로 긴장 해소에 대단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를 보다 기도다운 기도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한다. 들이마시는 숨결은 도무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자기가 현세에서 열망하고 있는 일체의 것들을 표현하게 한다. 그리고 내뿔는 숨결은 걱정 근심과 죄, 죄책감과 후회감을 포함한 자기 생활 속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표현으로 삼는다. 이 때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에 관한 온갖 근심 걱정을 넘겨 드리겠다는 의향에

다 신경을 집중하고, 그런 근심거리가 소중한 보화나 되듯이 부동켜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고요를 찾는 이런 방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듯이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평온을 유지하는 일이고, 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꿈쩍 않고 누워 있어야 잠이 든다. 그런가 하면 한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앉은 자세에서 평온을 얻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선 걸어나가기부터 해야 한다.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한테는 이런 침잠수련(沈潛修鍊)이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일수록 고요는 더 필요하고 유익한 법이다.

침잠수련에 입각한 지극히 간단한 기도 방법 하나는 우리의 신체 부위 전부를 기도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각 지체와 감각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우리의 신체 부위 모두가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복되신 동정녀”라는 제목의 시에서 제러드 맨리 홉킨스는 성모를 두고 이렇게 노래한다.

당신이 하셔야 하는 일은

이 하나 — 만사에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지라.

우리는 태양이 떠올라 밤을 몰아내고 어둠 속의 형체 없는 것들이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찬란한 새벽’을 이야기하곤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 그 자체는 보지 못하고 창조계에 스며 있는 영광의 영상들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창조계에 작용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특히 그분의

찬란한 선이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통해 유출되고, 그분의 은유와 자비가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 발산되며, 그분의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권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도록 기도드린다.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이 침잠에 젖어들기란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다. 전통적인 기도 방식 가운데 반복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많고, 이 반복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복 형식은 걸을 때의 발걸음 속도나 몸이 평정된 상태에 있을 때의 호흡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울동을 곁들이면 한결 더 효과적인 것이 된다. 이 경우는 한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유명한 순례자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처럼 간략한 한 문장이 반복될 수도 있으며, 주의 기도처럼 비교적 길지만 한 음절음절을, 걸음걸이나 조용히 앉아 있을 때의 호흡 속도에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인 기도 형식 중에는 순례자 기도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 사람은 정지해 있을 때보다 걸을 때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더 어렵다. 그래도 걸음걸이에 맞추어 한 단어나 한 문장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면 마음의 내적 평온을 기할 수가 있다. 물론 내적 평온에 도달하면 울동적인 반복 형식은 깨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는 깨어진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울동적인 반복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규정된 방법에 맹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적 자극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편 131 편은 모든 기도에 스며들어야 하는 기본적 자질인 하느님에 대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다.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습니다.

나 거창한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내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젖 떨어진 어린 아기, 어미 품에 안긴 듯이
 내 마음 평온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희망을 야훼께 두어라.

하느님은 만물 안에 현존하신다. 하느님은 내 존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내 존재를 창조하고 계신다. 온갖 기도 방식은 우리가 하느님을 '나와 내 자신 사이보다도 더 가깝게' 만나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일차적인 기도 자료는 성서이다. 이것은 '계시'에 의해 기록된 '영감받은' 책으로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단히 다양성 있는 일련의 작품집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그 속의 기록을 읽고 음미하고 기도드림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성서이다. 성서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현존을 구현하는 특별한 성사이며, 이 현존은 성체성사에 내재하시는 그분의 현존과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실재적 현존이다. 성서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봉독하면 우리의 내적 자아라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내가 과거 시대에 있었던 하느님의 활약상을 읽고 음미하는 목적은 현재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일한 그분의 활동을 감지하는 데 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서로 기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성서로 기도 바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마음에 와 닿는 구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라면 시편이

나 예언서 또는 신약 서간 몇 대목을 대충 읽어 나가면서 마음이 끌리는 단락이나 구절을 찾아 내면 된다(도움될 만한 성서 구절 몇 가지를 이 장 말미에 기재해 두었다). 이런 기도 방법을 조명해 본다는 뜻에서, 본래 포로로 잡혀 가 유배당한 채 고국땅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에게 들려 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한 대목을 예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서에 기록된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글도 아니고 훌륭한 귀감이 되는 히브리 시가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를 심려하시는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봉독하노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분간 우리 존재의 신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다. 우리 신체는 글자 그대로 무수한 세포들로 이루어진 지극히 복잡한 구성체이다. 그리고 각 세포는 형태가 더없이 다양하고 신비로우면서도, 하나같이 놀라운 조화 속에 상호 연결되어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세계의 갖가지 운송 체계는 그저 조잡스럽게 보일 따름이다. 나를 형성하는 수십억 개의 세포는 우주의 다른 미립자 전체와 통합되고 연결되어, 온 우주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다. 인간은 결코 외딴 섬이 아니다. 어린 아기가 유모차에 누워 재잘거릴 때 하늘이 진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봉독할 때, 그 말씀을 우리와는 별개인 인쇄물 속의 글자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신비 속에서 울려 나오는 말씀으로 여기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사야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귀 기울일 만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물결을 해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 내지 않으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피 준다”(이사 43,1-5).

이상의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봉독하되, 마음이 끌리는 대목이 나오면 기분 내킬 때까지 음미하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은 딱딱한 사탕을 혀로 빠는 일에 비길 수 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탕을 맛부터 보지, 분해하여 화학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이 끌리는 대목을 분석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흔히 어떤 대목이 잠재의식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은 우리의 의식이 그 같은 끌림의 이유를 파악하는 일보다 크게 앞서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대목을 분석하려고 애쓰기보다 되도록 오랫동안 음미하기만 하는 것이 유익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 주지 않았느냐?”는 대목에 우리 마음이 끌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 말씀을 몇 초 동안 음미하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수많은 의구심이 일고 진한 분심이 밀려들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 하

느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통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진실로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이런 의문들과 씨름하다 보면, 기도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문들은 당분간 보류해 둘 필요가 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 이는 이런 종류의 의문들은 하느님과 우리 마음을 떼어 놓기 위해 퍼붓는 폭탄이나 같다. 일단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느낌 속에 스며들도록 하고 나면 이 같은 의문들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아기가 밤중에 놀랄 때 어머니가 와서 끌어안고 “아무 일도 아니란다.”고 말해 줄 경우, 아기는 점차 평온을 되찾는다. 그런데 아기가 불세출의 신동이어서 “하지만 엄마, 엄마는 어떤 인식론적 내지는 형이상학적 가정 하에서 그런 말을 하시나요? 엄마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경험론적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반문한다면, 그 어머니는 실로 골칫덩어리를 팔에 안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만약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무 기준이나 설정해 두고 하느님이 그 기준에 부응하실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의 처신은 이 골칫덩어리 아기의 그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 우리는 맨 먼저 마음으로 하느님과 통교한다. 그렇다고 마음이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식적인 정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분별 능력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의문점들은 당분간 차치해 둔다고 할 때, 그러면 머리 속에 밀려드는 갖가지 분심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스 차단기를 내렸는지 궁금해지거나 부치려다 깜박한 편지가 생각나거나 꼭 걸었어야 할 전화가 퍼뜩 기억날 때가 있다. 만일 분심 내용이 가스의 경우처럼 화급한 성질의 것이라면,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지 않

고 기다려도 되는 여타 일들은 나중에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쪽지에 적어 두면 된다. 그 밖에 생각나되 분심과 거리가 먼 것들은 기도의 재료로 삼을 수도 있다. 성서 구절은 내 의식과 생각, 추억, 감상, 몽상, 희망, 야심, 두려움 등의 물결을 비취 주는 탐조등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내밀한 생각 및 느낌이 한데 어우러진 상태에서 기도를 바친다. 성서의 맨 첫머리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는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실상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서 말씀으로 기도드릴 때 나는 내 존재의 어둠과 혼돈 위로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 편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돌 수 있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인 까닭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나 내 자신과 대면하면서 나의 내적 혼돈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 주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음미하다 보면 내 자신의 두려움, 즉 나의 결함이나 건강, 죄에 기우는 성향, 내게 위협이 되는 여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솟구침을 느끼는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는, 이 다독거리는 이 사야의 말에 화가 치밀 수 있다. 그 말씀이 더없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자신의 믿음 부족과 직면하면서 이 말씀을 음미할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인다. 내 혼돈 위로 하나님의 영이 감돌고 계시며,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의 혼돈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출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로 그런 교육을 받은 까닭에 기도할 때 부정적인 느낌이,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하나라도 끼여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사고 경향에서 탈피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면전에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우리의 울화를 능히 받아 주실 만큼 그릇이 큰 분이라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어야만 온유와 연민 같은 보다 깊은 내심에 자리하고 있는 느낌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진실 속에 계시지 허식 안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는 체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성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성서 한 대목을 선정하고,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읽되, 마음에 와 닿는 어떤 구절에 정신을 집중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간에 이 구절이 그 위에 감돌게 하고, 가능한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 여쭙되, 그대의 상태 그대로인 혼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그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대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무한하게 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내면의 생각과 느낌은 물론 갈망까지도 기도의 재료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분심’은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우리의 주의력이 기우는 방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낱말맞히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알아맞히지 못한 낱말 하나를 알아 내려고 고심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이 낱말맞히기를 기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중대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아 내게 하소서. 내 공허감과 열망의 실마리, 내 인생 의미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낱말맞히기는 이제 분심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 낱말 알아맞히기는 내가 기도를 잊은 채 ‘찢기면서 부주의로 깨닫지 못하는’이라는 열네 글자를 찾는 데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때 비로소 분심이 된다.

기도에 상상력을 활용하는 일은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상상적 관상은 복음서로 기도하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된다. 이것은 복음 구절을

읽은 다음에 복음 속의 장면이 지금 이 순간에 전개되고 있고, 내가 그 장면이 직접 등장한다고 상상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요한복음 몇 구절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예시하기로 한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요한 20,19-21).

나는 어떤 성서 구절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매개로 하여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만나 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접근한다. 이 말씀에서 나는 모든 조물의 주님이시요, 당신의 평화를 내게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난다.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던가? 그 부활은 대체 어떤 성질의 것일까? 내가 지닐 수 있는 확신은 과연 무엇인가? 부활기사들이 이처럼 상충되고 때로는 모순을 보이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기도 방식에 따르면 내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노라면 나는 결국 광신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 아닐까? — 등등의 이지적인 의문과 내 믿음에 관한 의구심은 당분간 밀쳐 둔다. 물론 이들 의문은 모두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분간 접어 두는 까닭은 회피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상상적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의문점을 풀려고 고집하다 보면 아예 기도는 시작되지도 못하고 말 것이다.

우선 이 장면을 성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제안하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한테는 상상력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나는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인 인간형이 못 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 속에서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기억해 내고, 제아무리 회고무례하게나마 머리 속에 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력을 통한 기도가 가능하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마지못해 이 방법을 활용해 보려고 노력한 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상력 동원이 불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의 상상 능력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세밀한 부분까지 그림처럼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방의 크기와 가구들, 벽의 색깔, 밝기의 정도, 제자들의 얼굴 표정 등을 눈앞에 떠올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세부적인 사물은 조금도 그려 내지 못하고, 지극히 희미하고 불완전한 모습만을 겨우겨우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물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었던 바로 그 날처럼 오늘 굳게 닫힌 방, 나의 내적 두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며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내게 보여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실재를 상상력을 통해 감지해 내는 일이다.

이 형태의 기도나 여타 방식의 기도나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장면을 구성해 내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좋다. 상상 속에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위의 복음 말씀으로 기도드리노라면 때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층방으로 들어가서 그 곳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런 와중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보다 확연하게 실감하던 도중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는” 순간에 공백이 생기면서 장면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장면은

읽은 다음에 복음 속의 장면이 지금 이 순간에 전개되고 있고, 내가 그 장면에 직접 등장한다고 상상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요한복음 몇 구절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예시하기로 한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요한 20, 19-21).

나는 어떤 성서 구절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매개로 하여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만나 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접근한다. 이 말씀에서 나는 모든 조물의 주님이시요, 당신의 평화를 내게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난다.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던가? 그 부활은 대체 어떤 성질의 것일까? 내가 지닐 수 있는 확신은 과연 무엇인가? 부활기사들이 이처럼 상충되고 때로는 모순을 보이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기도 방식에 따르다가 내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노라면 나는 결국 광신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 아닐까? — 등등의 이지적인 의문과 내 믿음에 관한 의구심은 당분간 밀쳐 둔다. 물론 이들 의문은 모두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분간 접어 두는 까닭은 회피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상상적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의문점을 풀려고 고집하다 보면 아예 기도는 시작되지도 못하고 말 것이다.

우선 이 장면을 성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제안하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한테는 상상력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나는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인 인간형이 못 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 속에서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기억해 내고, 제아무리 희끄무레하게나마 머리 속에 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력을 통한 기도가 가능하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마지못해 이 방법을 활용해 보려고 노력한 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상력 동원이 불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의 상상 능력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세밀한 부분까지 그림처럼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방의 크기와 가구들, 벽의 색깔, 밝기의 정도, 제자들의 얼굴 표정 등을 눈앞에 떠올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세부적인 사물은 조금도 그려 내지 못하고, 지극히 희미하고 불완전한 모습만을 겨우겨우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물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었던 바로 그 날처럼 오늘 굳게 닫힌 방, 나의 내적 두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며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내게 보여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실재를 상상력을 통해 감지해 내는 일이다.

이 형태의 기도나 여타 방식의 기도나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장면을 구성해 내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좋다. 상상 속에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위의 복음 말씀으로 기도드리노라면 때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층방으로 들어가서 그 곳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런 와중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보다 확연하게 실감하던 도중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네” 순간에 공백이 생기면서 장면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장면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자신은 그것과 격리되는 듯한 괴리감을 느끼는 수도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기도가 실패로 끝났다고 단정하면서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 하지만 이는 기도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실체의 한 단면이 상상력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 때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그 장면 속에 머물면서 계속하여 그리스도께 기도드리는 일이다. 성서 구절로 기도드리는 앞서의 방법에서 ‘분심’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기도의 재료로 화할 수 있었듯이, 여기에서도 떠도는 상상력의 방향이 기도의 주제로 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순간에 눈 앞에서 사라져 버리신다든가 내게 말씀하시는 ‘평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의식 밖으로 내몰고, 스스로 느끼는 두려움을 내 자신에게마저 숨기고, 내적 생활의 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내 자신이 결정할 때만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하는 성향을 은연 중에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나 자신과 단절시키려는 내밀한 의식층을 상상력이 들추어 내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 만큼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며, 따라서 나는 이제 내 존재의 보다 깊은 심연에서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기도 방식에서는 보편적으로 상상력이 주도권을 쥐도록 하되 관심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상이 월터 미티(Walter Mitty) 식의 공상으로 전락되면서 관심의 초점이, 그대 자신의 가상적인 영웅 행위에 심취된다든가 그대 자신의 사악한 모습을 상상하며 탄식하는 형태로, 그대 자신에게 쏠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리스도 아닌 자기를 모든 것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성향을 드러내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계시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충방을 관상하는 과정에서 낙담하고 두려움에 싸인 사도들을 자신이 아주 성공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던 차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자 그리스도께 분노를 느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존재를 뒤흔든 체험이 되었다. 그는 상상력이 투영시킨 자기 삶 속의 진실, 즉 자기가 자신의 두려움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 자아 속에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투적이고 교조적인 이야기를 해 읊으로써 남들까지도 그들의 두려움과 필요 사항을 인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상력은 매우 풍부하되 정서적 안정도가 대단히 낮은 사람한테는 이런 기도 방식이 위험스럽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부단히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 기도 방식을 고수할 경우 대단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도 위험할 것이 없다. 사람은 자기 내면에 그 순간 감당하지 못할 기억이나 느낌, 사상을 차단할 수 있는 지극히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말은 보편화된 훌륭한 영적 격언이다. 우리가 이 격언에 따르면서 우리를 질식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상적 기도에 스스로를 억지로 끌어 넣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해를 입을 위험은 거의 없다. 이 방식은 그리스도교 전승 초기부터 수용되어 왔으며 대대로 그리스도인 예술가와 시인, 영성작가에게 영감을 제공하였다.

이나시오 로올라는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소설책을 주문했다가 소설 대신에 색스니의 루돌프가 쓴 「그리스도의 생애」를 얻어 읽게 되었는데, 바로 이 책 서문에서 상상적 관상 방법을 소개받는다. 여기에서 루돌프는 독자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복음서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대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야기되고 실천된 일들 속에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를 몰입시키라... 기술되고 있는 바를 그대의 귀로 직접 듣는 것처럼 듣고, 그대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듯이 주시하라.

이나시오로 하여금 회심의 여정에 오르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상상적 관상 방법이며, 그의 「영신수련」(우리의 숨은 자아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서를 토대로 기술한 정선된 어록집)도 상상적 관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이 적극적인 상상과 그것이 지니는 힘을 온전히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융(Jung)은 자기 환자가 무의식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진솔하도록 도와 주는 데 이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나시오 성인은 천부적인 심리학자였다. 융 학파를 필두로 한 현대심리학은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지니고 있는 진가와 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영신수련」은 그런 진가와 지혜를 흔히 간명하고 통명스런 문체 속에 담아 두고 있어 알은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 점을 실례를 들어 가며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환멸을 느끼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기도와 행동이 이분화되고 있음을 목격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런 이분현상을 그리스도께서는 주목하시고 지극히 혹독하게 매도하신 바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마태 23, 27).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지극히 경건한 신앙인이 곧잘 더없이 편협되고 비인간적이며 잔인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들

은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나 자신하는 나머지 스스로의 잔인성으로 변민하기는커녕 오히려 올바른 대의에 일편단심으로 투신하노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들은 하느님이 자기 편에서 서 계신다고, 하느님의 길과 자기네 길이 하등의 차이도 없다고, 굳게 믿는다. 그 결과로 신비의 하느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전락한다. 이제 하느님은 더 이상 하느님이 되지 못한다. 즉 하느님은 없이도 그만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유혹, 오만에의 유혹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우리의 보상으로 제창조하려는 이런 위험한 소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아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파고들어 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고찰하게 될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실천 과제

평온을 얻는 수련법들(pp. 78-79)을 직접 실천해 본다.

감각을 이용하는 기도법(pp. 79-80)을 직접 실천해 본다.

규칙적인 율동과 결부된 기도 방법(p. 81)을 직접 실천해 본다.

성서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로서 성서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바치고자 하는 초심자를 위해 제시하는 성서 구절은 아래와 같다(상상적 관상을 위한 성서 말씀은 7장과 10장 끝머리에 수록되어 있다).

시편 8; 23; 63; 131; 139

이사 25; 40; 43, 1-7; 45, 9-13; 54, 4-10; 55

예레 31, 31-34

예제 36, 22-26

호세 11, 1-8

지혜 11, 21-12, 2

요한 15, 1-17

로마 8, 28-39

에페 1, 3-14; 3, 14-21

필립 2, 1-11

골로 1, 14-20

5

굴토 작업을 위한 일반 지침

나는 한때 예수회 회원이자 천문학자로서 작은 체구에 머리통이 유난히 크고 동안을 가진 패트릭 트레너 신부와 한집에서 산 적이 있었다. 그는 걸핏하면 방에서 불쑥 튀어나와 급정거하고 제자리에서 몇 바퀴 빙글빙글 돌다가 손가락 끝을 입술에 댄 채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말하곤 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던지 그만 잊어버렸어.” 봄날 그와 함께 옥스퍼드 교외를 함께 거닐라치면 언제나 놀라운 일투성이였다. 그는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개천으로 모습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들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경이에 찬 눈빛으로 꽃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다시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한동안 꽃을 관상하고 나서, 이 꽃의 속과 종을 알려 주고 특성들을 열거한 다음에 또다시 잠적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집에 당도할 무렵이면 그의 손에는 으레 꽃다발 한 묶음이 쥐어져 있게 마련이었다. 그가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게 안 적은 없었지만, 그의 전체적인 생의 방향은 아주 명확했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느님의 온갖 경이로운 피조물에 매혹되어 있었고, 바로 그런 감흥이 그의 인생 방향 전체를 결정지워 주고 있었던 것이다.

성이냐시오 로올라는 「영신수련」을 저술한 다음에 이 수련 과정에서 이루어질 내적 여정의 골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짤막한 서문을 덧붙여 놓았다. 이 서문에 해설가들은 후에 “원리와 기초”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것은 아주 긴 여행길을 표시해 둔 축도, 즉 작은 지도에 비길 수 있다. 모든 축도가 그러하듯이, 이것은 얼핏 보면 흥미가 끌릴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룰 총체적인 방향이 여기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첫 문장에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글에는 이와 관련된 부대 내용 몇 가지가 지적되어 있다.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다.

이 문장의 핵심은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경과 봉사와 영혼구령이 찬미 다음에 이어지는 까닭이다. 바로 이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와 반대되는 방향이라면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생활이리라.

몇 년 전 미국에 있는 ‘영성 센터’를 방문하러 갔을 때 예수회 수련자가 역으로 나를 마중 나왔다. 그는 나를 차로 데려가서 태우고 시동을 걸더니 엔진이 돌기 시작하자 아주 근엄한 음성으로 말했다. “주를 찬미하라. 감사하나다. 예수여, 감사하나다.” 이렇게 천상의 합창대에 잠시 일조한 후 이윽고 우리는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냐시오의 말은 우리의 기도와 대화, 활동과 사고에다 “주를 찬미하라.”는 말쑥을 양념으로 추가하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손님에게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성찬이라고 감탄하면서도 음식을 깔짝거릴 뿐 더 먹으라 해도 마다하는 사람이겠는가, 아니면 음식을 그릇에 가득 퍼 담아 게걸들린 개처럼 먹어 치우고 더 없느냐는 눈빛으로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겠는가? 말로 하는 찬사는 찬미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순수한 감상(鑑賞)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공허한 아침으로 끝나고 만다. 이냐시오 서문에 나오는 첫마디는 ‘그대는 그대 주변세계에 대한 감상(鑑賞)을 통하여 그대의 인생 여정에 필요한 일반 지침을 발견할 것이며, 발에 숨겨진 보화를 찾게 될 것이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 첫 마디 문장을 깊이 음미하며 경이감을 느껴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말은 우리더러 창조된 세계를 기피하고 높이 올라서서 경멸을 보내며 창조된 세계와 우리를 괴리시키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

니라, 그것을 감상하고 높이 평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단독으로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인간적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창조계를 통해서, 비로소 그분을 알 수 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창조계를 하나의 성사로, 다시 말해서 하느님 현존의 신전적인 표징으로 이야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감상할 때, 나는 필경 거기에 놀라고 경탄하며 경악할 것이고, 그것에 일종의 존경심을 품되, 특히 모든 인간 존재의 신비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감상이 이루어질 때 찬사가 나오며, 진정한 찬미는 존경심과 경이감 및 경이의 대상인 사물에 몰입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려는 열망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봉사하려는 의욕, 창조계와 하나로 조화되려는 의욕, 창조계를 내 목적에 두들겨 맞추고 통제하려 들기보다 그 속에 몰입하려는 의욕의 밀뿌리가 된다. 제러드 맨리 홉킨스는 한 편의 음울한 단시(短詩)에서 우리를 전형적인 자아로부터 해방시키는 우리 존재의 이 기본 흐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한결 측은히 여기게 하라.
내 서글픈 자아를 이후로는
내가 친절히 사랑스레 생활하게 하라.
이 괴로운 심정을, 아직도 괴롭히는
이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지 말라.

소경의 눈이
암흑 속에서 대낮을 발견하는 만큼이나,
아니 온통 축축이 젖은 세상에서

갈증이 가장 완벽한 갈증을 발견하는 만큼이나
나의 불안을 더듬어서는
결코 얻어 낼 수 없는 평안을
나는 낚고 있노라.

내 영혼아, 내 자신아,
어이 짝 자네아,
내 당부하노니
넌더리나는 채로 놓아 두려무나.
잠시 이런저런 생각일랑 말려무나.
평안이 뿌리내릴 틈새를 열어 주려무나.
기쁨을 신이 원하는 시간에
신이 원하는 만큼
흐르게 하려무나,
그분의 미소는 짜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그대가 아는 바라,
시간들은 아무래도 뜻밖에 그렇게 찾아오느니라.
산들 사이로 끼여 있는 하늘이
사랑스런 한 마장의 길을 비추어 주듯이.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해 준다. 우리는 '영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 느낄 수 없는 실체요, 이른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천당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 존재 속의 영원 불멸하는 요소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는 '영혼'이란 낱말을 거세시켜 버린 것이다. 만일 영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영혼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진다. 영혼이 눈에 안 보이

고 만져 느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의지할 도리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를 포기한 채, 절대적인 해답을 알고 있노라고 우리를 설득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체험은 아무 소용도 없어지고 우리는 종교적 발육부진증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영혼’이란 바로 내 자신, 나의 가장 심원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의 합일점을 의미한다. 영혼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나의 온갖 염원, 희망, 두려움, 걱정, 불안, 야망이 바로 내 영혼의 표현이다.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 ‘내 안에 내재하는 막연한 염원들에 대한, 무의미와 내적 공허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한, 더없이 무모한 내 꿈들에 대한 해답’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가 있다. 위에 인용한 단서에서 홉킨스는 자신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영혼의 고통을 묘사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산들 사이로 끼여 있는 하늘이 사랑스런 한 마장의 길을 비추어 주는” 것 같은 경이 그것이다.

영혼은 양치기 개와 함께 있는 한 무리의 양떼에 비길 수 있다. 양치기 개는 영혼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표상한다. 성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을 발견하고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휴식을 얻지 못하나이다.”(『고백록』 제1권)라고 썼다. 이 가장 깊숙한 부분, 즉 양치기 개는 영혼 전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항상 경계를 떠면서 결코 쉴 줄을 모른다. 한편 양떼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우리 존재의 흐름에 융합되지 못하고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양탈하는 우리 안의 충동과 욕망을 표상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방황하며 허기를 채우려 들 때 가장 내밀한 부분인 양치기 개는 계

속해서 우리를 귀찮게 한다.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지 않는 어떤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면 우리는 불만과 지루함과 공허함과 좌절을 맛보게 마련이다. 바로 이것들이 양치기 개의 들볶음 그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또 다른 것 쪽으로 덤벼들며, 그러면 또다시 들볶임을 당한다. 참담과 근심 걱정, 동요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느낌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덜 성가신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한 휴식은 거짓된 안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양치기 개의 들볶음을 무시하고, 그 결과로 부정적인 느낌들을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원리와 기초”의 두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즉 사람이 조성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 건조하고 딱딱한 진술은 지극히 낙관적인 신앙의 표현이다. 이것은 창조계 속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떠한 체험도, 우리 스스로 당한 피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한 피해까지도, 어떠한 질병이나 육체적 정신적 연약성도, 모두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낙관론적인 입장 속에는 성바울로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 38-39).

우리가 당한 악, 우리가 저지른 악은 우리를 하느님과 떼어 놓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인생살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땅에서 하늘까지 뻗은 사다리에 비길 수 있다. 사다리 가로대 중에 어떤 가로대는 손으로 꼭 붙들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로 오르는 데 도움을 얻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로대는 발로 디디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로 오르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다. “원리와 기초”의 셋째 문장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만큼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또 방해가 되면 그만큼은 배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명확하고 논리적인 말로 들리지만, 그리스도교의 영성 역사에서 항상 명확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우리네 인간성의 제반 한계를 경멸하고 배척하며, 완성이란 이 인간성과는 최대한 무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으려는 유혹은 끊임없이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노이로제 증상의 뿌리 구실을 하고 있다.

폰 휘켈의 분석을 살펴보면 알게 되듯이,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유익하며 창조력을 갖지만 뒤에 가서는 파괴적이 되는 집착과 태도, 행동 양식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도움되는 것과 진실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 것일까? 나의 삶에 파괴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이 나를 휘어잡고 떨어질 줄 모르고 있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원리와 기초”는 마지막 문장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의 윤곽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우리 자유에 맡겨졌고 금지되지 않았으면 중용을 지녀야 할 것이니, 즉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원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모든 다른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을 최고 목적으로 보다 더 인도하는 사물만을 원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원리와 기초”를, 특히 이 마지막 문장을 일언지하에 싫다고 할 사람도 없지 않다. 만일 이 책을 읽는 사람 가운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가 있다면 최소한 이 장 끝까지만이라도 판단을 보류해 달라고 간청하는 바이다.

그간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중용’(무심(無心))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개인과 집단에게 상당한 고통을 유발시켜 왔다. ‘중용’ 또는 ‘초탈’(超脫)은 생명과 건강, 부와 명예, 찬사와 우정에 대한 우리 안의 온갖 자연적인 본능을 억눌러야 하고, 그 일을 잘 하면 잘 할수록 하느님께 더 큰 기쁨을 안겨 드릴 수 있다는 뜻이 담긴 낱말로 곡해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삶은 메말라져 버렸고 지금도 메말라 가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중용’이란 낱말을 오해한 나머지 다년간 그릇된 의미의 중용적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심초사하였으며, 때로는 영적 지도자의 부추김을 받아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과 주변세계 및 만물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과 단절된 채, 암울한 절망 상태에 빠져들어, 살아 있으면서도 지옥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중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자유로우려면 예속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삶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부를 누리려는 욕망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받는다면, 나는 여타의 다른 욕구 일체와 삶의 가치를 이 지배적인 욕구에 종속시키면서 스스로 추구하는 이 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관계는 부를 지향하는 내 욕구에 의해 통제되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사랑 또한 이 욕구에 종속당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건강이나 남을 지배하는 권력, 자신의 자존심 등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지 여타의 욕구와 가치를 거기에 종속시키면, 나는 결국 그 같은 집착에 예속당하고 만다. 중용을 지니는 것, 초탈하는 것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내가 내 욕구와 기호와 느낌을 모조리 억제할 경우 나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리고 억제하려는 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그것들에 더욱더 예속되어 버린다.

나는 ‘부노’라는 이름의 검정개를 돌보면서 그 녀석한테서 중용(초탄)의 참된 의미에 부합되는 일상적인 용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배움을 얻었다. 아침마다 녀석을 개집에서 풀어 내서 집 주위를 빙 돌아 부엌문 있는 데로 데려간다. 녀석은 일단 풀려 났다 하면 좋아 날뛰면서 한꺼번에 사방으로 치달으려고 덤빈다. 그러다가 사람 냄새를 맡을라 치면 그를 뒤쫓아가서 장갑이든 목도리든 빼앗아 물고 오는데, 언젠가는 수녀의 머리수건을 물고 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빠다귀나 베이컨 껌질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면 녀석은 태도가 돌변한다. 사냥개로 상 받은 제 할아버지가 상 받기 위해 기다릴 때의 정숙한 모습으로 문간에 와 앉는다. 그러다가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장갑 끼고 지나가든 목도리 두르고 지나가든 머리수건 쓰고 지나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발뒤꿈치를 따라 와, 입에서 치렁하게 침이 흘러내린 채로 꿈쩍 없이 앉아서 쇠면 걸린 모습으로 내 손에 들린 빠다귀를 뽀히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뒷발’로 기어와서 나한테서 그 소중한 보물을 받아가는 것이다.

부노는 중용의 의미를 예증해 준 훌륭한 귀감이었다. 빠다귀에 대한 애착이 최소한 일시적이거나 그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다. 중용 또는 초탈은 하느님께 철저히 집착하기에 하느님의 뜻이 요구할 때 어떤 피조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 놓아 둘 채비가 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중용을 취한다는 것은 모든 욕망과 끌림을 제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들에 매료되어 여타의 집착은 모두 거기에 종속시키고 조화되게 만든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

른 사람들 및 주변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만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통해서만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애착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다. 열차가 철로를 벗어나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인간과 사물로부터 완전히 초탈해서는 결코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중용과 초탈은 우리의 집념이 우리를 끌여가는 그 방향과 관계가 있다. 중용을 취하는 사람이란, 자기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집착을 풀어 놓고 보다 직접적으로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는 것으로 변형시킬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기에 이나시오는 “원리와 기초”를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을 최고 목표로 보다 더 인도하는 사물만을 원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로 매듭짓고 있는 것이다.

머리말의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이 책에서 고찰하는 문제의 핵심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보물은 우리의 내적 생활이라는 발에 묻혀 있다.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며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세계와 상호작용을 갖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내적 생활은 생각과 기억, 감정과 욕구, 두려움 등이 뒤섞인 복잡하고 혼돈되고 위험스런 복합체 그것이다. 이 같은 혼돈은 그 해답이 우리네 욕구들 속에 내재한다. 시인 버질은 말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구에 이끌려 간다”(Trahit sua quemque voluptas). 이 말을 좀더 산문체로 옮기면 “우리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심에서 다양하고 많은 욕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바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인가? 표피적인 욕구는 언제나 더없이 요란하고 절박하게 보체 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다 보면 우리는 공허하고 비참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유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 내심의 보다 깊은 욕구에 불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묵시록(3, 17)에서 기자는 불행한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말한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깨달음은 남녀 인간들이 흔히 겪는 ‘중년의 위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당사자를 절망에 몰아넣을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다.

우리는 자기가 진실로 바라는 바를 알아 내려면, 자기 내심의 가장 깊숙한 욕구를 감지해 내자면, 그에 앞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느님의 뜻이란 변덕스러운 하느님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내심으로 좋아하는 것들 거의 전부와 상치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삶의 청사진을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바라며, 우리 자신은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 내기 바라고 계신다. 그러므로 갈등은 하느님의 뜻에 거슬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분열된 자아와 투쟁하는 우리의 의지인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려는 의지와 충돌하는, 모든 피조물이 나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겨 주기 바라는 우리의 의지이다. 이것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충돌하는, 하느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으려는 의지이다.

성인(聖人)은 자신의 가장 내밀한 욕구를 발견해 낸 사람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일을 하지만’ 그 일은 하느님의 일이기도 하다. 그들의 뜻은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지속적인 평화와 평온, 자유와 기쁨으로 점철되며, 이러한 특징은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도 — 어쩌면 위기와 고난 속에서 특히 — 본모습을 유지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매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열망할 수가 없다.

그런 만큼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의 첫걸음은 우선 그분께 낯을 돌리고 그분이 우리의 온갖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선하시며 ‘인간의 소망인 기쁨’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최초 메시지가 “회개하고 이 복음(기쁜 소식)을 믿어라.”로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우리는 이 초대를 다음 장에서 고찰하기로 할 것이다.

실천 과제

1. 제1장 끝머리에서 제안한 자신의 사망기사와 제2장 끝머리에서 제안한 자신의 신앙 자서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 혹시 그대가 진실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이것들이 시사해 주고 있지는 않는가?

2. 종이 한 장을 둘로 나누어 한 쪽 맨 위에다 ‘내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고 적고 다른 한 쪽에는 ‘내게 죽음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쓴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열거해 본다. 그런 다음에 “원리와 기초” 편을 다시 읽어 본다. 그대가 열거한 목록이 그대의 체험 속에서 삶에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사건 내지 집착과 창조적으로 작용하는 사건 내지 집착에 관해 무엇인가 시사해 주고 있지 않는가?

이 장에서 인용한 “원리와 기초” 전문은 로올라대학 출판사가 간행한 루이스 J. 폴 편찬 「영신수련」을 윤양석 씨 번역으로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가 발간한 역에서 발췌해 온 것이다. 다음은 이 장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원문 번역과 관계 없이 이것을 내 나름으로 재구성해 본 것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계 안에서, 그 창

조계를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랑으로 생활하도록 선택받았다.

지상 만물은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우리는 도움 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평가하고 활용하되,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랑으로 생활하는 우리 삶에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일체의 것들은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철저히 유지하면서(중용을 지니고서 / 초탈하면서),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인 양 매달리는 일 없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귀보다 가난을, 건강보다 질병을, 명예보다 업신여김을, 장수보다 단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 둘 것인즉, 이는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요 피난처요 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피조물에 대해 온전히 초탈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강한 집착물이 있을 때뿐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지배적 욕구와 근본적 선택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6

방향 전환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는 협박이 아닌 초대 말씀이다. 이 말씀은 말하자면 이런 뜻이다.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알아보면, 그것이 너의 가장 터무니없는 꿈이나 상상조차도 뛰어 넘는 것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에게 잔인한 것이다. 감옥인 너의 무덤에서 나와 거짓된 안전의 벽을 허물고 나한테로 오너라. 그러면 너와 나는 한 사람인 듯이 살 수 있으리라.”

회개는 이런 초대를 받아들이는 수락이요, 죄는 받아들이기를 마다하는 거절이다. 요한복음의 최후만찬 기사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고 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다”(요한 16,8-9).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함은 개인이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악의 근본 뿌리이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제아무리 종교인이라 주장해도 부와 신분과 권력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자신이 숭배하는 —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비인격적인 — 그 무엇으로 화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마련이라는 이 진리는, 우리 모두가 순례자이며 죽음의 이 쪽 편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한 자각에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완벽한 회개 정신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진리로 저울질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내면에는 의식의 층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하느님을 향한 여행 과정에서 발견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신론의

영역들을 발견해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결코 실패가 아닌 발전의 표지가 된다. 아주 많은 성인들이 심각할 만한 비행은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살면서도 자신을 지독한 죄인으로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천만 다행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악의 심연에 몸소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경악하고 자기네 어두움과 사악함에도 자기를 받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그에 반해서 이 심연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결한 인품에 회의를 느끼며 한없이 뿌듯해 하기도 한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자면 자기 사악함과 무력함을 인정해야 한다.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 자신의 사악성을 인식하고 자기를 하느님의 선과 자비에 맡기라는 일종의 부르심이다. 물론 자신의 사악성을 철저하게 뿌리 뽑지 못한 사람 모두가 우상 숭배자라는 말은 아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 온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루가 18,10-14)에서 그 점을 명확히 밝히고 계신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회개를 했고 그리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세리다. 고상한 바리사이는 회개하지 않은 까닭에 자만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세리는 어쩌면 바리사이 이상으로 자신의 탐욕 내지는 욕욕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악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권능에 자기를 맡긴 채 자비를 구한 까닭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바리사이는 자신의 고상한 인품에서 안정을 찾은 탓으로 자신에게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회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앞서 우리는 괴이한 조지 아저씨처럼 제시된 하느님상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그릇된 하느님상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릇된 하느님상과 아울러 죄와 회개의 의미에 대한 그릇된 관념도 지닐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현시대를 개탄하면서 죄의식이 강그리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불평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사람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라졌다고 통탄해 하는 죄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죄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은 파괴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에게나 통탄할 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마땅할 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몇 가지 사례를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결시켜 들어 볼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 교회들에는 죄와 회개에 관한 그릇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의 경우 신앙의 제도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릇된 가르침은, 하느님이 한없는 자비심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에 뿜뿜한 지뢰밭을 만들어 두시고, 교황과 주교와 성직자로 이해되는 교회의 교도권에다만 지뢰밭의 지도를 맡겨서, 가톨릭 학교에 다니거나 일요일에 미사에 오는 사람한테 그 정보를 알려 주게 하셨다는, 그런 인상을 어린이와 어른들한테 심어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지뢰밭엔 두 종류의 지뢰가 묻혀 있다. 영혼에 피해를 주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입히지 않는 ‘소죄’라는 지뢰와 영혼을 아예 죽이는 ‘대

죄’라는 지뢰가 그것이다. 후자 쪽 지뢰를 밟을 경우 불멸의 영혼은 결판나고 만다. 그런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오로지 신앙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존재로 제시된다. 따라서 지뢰가 폭발해도 재앙은 당장에는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거나 가능한데도 화해성사를 받지 않은 채로 죽으면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면서 저지른 죄악의 가증스러움을 깨닫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뢰밭에 발을 들여 놓는 기회는 수없이 많이 생긴다. 가톨릭 신자한테는 훌륭한 범죄 재판소라면 어디에서나 사형을 선고할 중범죄와는 별도로 조건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행동 또는 부작위(不作爲)도 많다. 여기에 비하면 굴라그 아르키펠라고(Gulag Archipelago : 솔제니친의 소설 제목에서 유래한 소련의 형무소. 강제 수용소를 총칭한 수용소 군도)는 오히려 사치스런 호텔로 보일 지경이다. 주일에 고의적으로 미사에 빠지거나 ‘육체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통한 방종한 쾌락’은 고문이나 집단 학살과 동일한 벌을 받는다. 1958년에 부제로 서품되면서 우리는 이후로 일련의 시편과 독서와 기도로 엮어진 성무일도를 날마다 낭송하되, 이 의무를 그냥 넘기면 대죄가 된다는 말을 들었다. 성무일도는 일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빼먹고 넘어가면 대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뚫고 지나가야 할 지뢰밭이 일곱 개 추가된 셈이었다.

이런 가르침과 더불어서, 순례하는 백성이 지뢰밭에 들어가더라도 지뢰를 터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대단히 난해한 궤변이 발전한다. 주일 미사를 고의적으로 빠지면 대죄가 되나, 단 성당으로부터 도보로 3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살거나, 몸이 아프거나, 농부로서 당장 추수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망치거나, 미사에 참석할 경우 죄를 범할 중대한 계기를 제공할 상대와 마주치게 되는 때 등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그런 것이다.

기쁜 소식을 왜곡시키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 준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 때문에 내적으로 고문당한 특정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당신이 모든 윤리적 의무에서 완전하게 해방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는 내 질문에 당사자가 “성당들을 불질러 버리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에도, 나는 조금도 놀랍지가 않았다.

이 글을 쓰면서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건 터무니없는 과장이요, 가톨릭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다.’ 하는 반론이 들려오는 듯하다. 나 역시도 이것이 왜곡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왜곡이 그 동안 수많은 사람한테 파급되었고, 신경쇠약이나 망상을 야기시켰고, 불안 노이로제에다 기름을 부었으며, 윤리적 발달을 저해했고 어떤 사람한테는 죄책감을 잔뜩 안겨서 평온한 느낌을 갖는 것 자체를 나쁜 일로 여기도록 유도하였고, 그리하여 온갖 자연스런 행동과 즐거움과 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만들어 왔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거론조차 되지 않는 구시대의 가르침을 공박하면서 케케묵은 장광설을 늘어놓는다.’는 소리도 들린다. 나는 그런 반박이 아무쪼록 타당한 것이기를 바라면서 오늘날에는 이런 가르침이 더 이상 유포되는 일이 없기만을 회구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우리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만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문헌과 최근에 교황들이 내놓은 탁월한 사회적 회칙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윤리는 지나치게 선별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성윤리, 특히 피임과 낙태와 같은 악들을 지적하는 강도가 인간의 대량 학살을 획책하는 악들에 대한 지적의 강도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선별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뿐 아닌,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 대다수 그리스도인에게 낮선 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다. 우리가 실제로 죄의식과 회개정신을 상실했다는 표지 중 하나는 우리의

윤리적 가르침이 갖는 선별적 성격 및 세상의 죄와 그 흉포한 정조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책임을 무시하고,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성격 그것이다.

나는 2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몇 달을 보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흑인 거주구 소웨토에 사는 한 흑인 여성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어 패이고 표정은 자기 종족의 고난을 한 몸에서 걸머지고 있는 듯이 서글퍼 보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느릿한 말투로 강압 때문에 소웨토(요하네스버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150만 이상의 흑인 노무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일종의 수용소)에 살아야 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직장을 잃고 고국도 아닌 ‘고국땅’(homeland : 남아프리카가 인종 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변두리 불모지대 몇 군데에 설치하여 노동력이 없는 어린이와 노인, 불구자, 여성을 강제 이주시키고 명목상으로 흑인 자치를 허용하여 흑인으로 하여금 흑인을 관리하게 하던 일종의 자치구), 빈곤 지대로 내쫓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때마침 한발이 닥칠 조짐이 있어서 소웨토에는 물이 끊겨, 사서 마실 물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바로 그 날 저녁에 나는 요하네스버그 백인 지역에서 미사를 집전하였고, 그 자리에서 한 백인 의사가 나와 회중에게 낙태의 사악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대단히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으며 대책에 관해서도 아주 유창한 말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자녀를 갖고 싶지만 직장이 없고 주택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에 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민의 80퍼센트를 차지하면서도 정치적 발언권이 전혀 없는 무수한 아프리카인과 유색 인종의 비인간적 처지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의사의 설교는 낙태의 악을 유별나게 강조하면서도 그 기저에 깔린 원인들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별적이었고, 사람이 낙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제적인

압력들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악의적이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격렬하게 비난하던 범죄에 자기와 회중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독선적이었다.

죄를 잘못과 동의어로 취급하는 것은 죄의 본뜻을 말살하는 소치다. 만일 죄가 잘못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성바울로는 회개하기 전에도 아무런 죄가 없었던 셈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더없이 엄정하게 준수한 사람이 바울로였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므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필립 3, 6). 사람들에게 ‘복종, 근면, 정직, 질서, 청결, 절제, 진실, 희생, 애국’을 촉구하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부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구는 다름 아닌 나치가 강제수용소 다하우의 본관 건물 천장에다 새겨 두고 수인들한테 틈만 나면 읽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부름이 아니라 제3제국을 우상처럼 받들라는 부름이었다.

회개한다, 참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종류의 잘못을 미리 막는 다거나(물론 이것이 포함되기는 한다), 합법적인 쾌락을 배격한다거나, 자신에게 고통을 가한다거나, 교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데 보다 엄정을 기한다는 등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생활은 지극히 굴욕적인 방식으로 영위되더라도 아주 사악하고 파괴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교회에 다니면서 검소하게 먹고 마시는 금주 금연가라도 잔인 무도한 고문과 살인을 자행할 수가 있다. ‘회개’란 그리스어 ‘metanoia’에서 나왔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의 변화, 안목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등골이 오싹한 고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거인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덮쳐 들려고 하는 악몽에서 깨어나 보니, 요란한 바람소리가 나고 나뭇가지가 달빛을 받아 침실 창문에 그림자를 드리운 채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수가 있다. 이럴 때 꿈에서 현실로 깨어나는 이 과정이 바로 본래의 뜻 그대로 ‘회개’요, 안목의 변화

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는 것은 일차적 의미가 그리스도교 신경의 명제들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전존재를 하느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결혼할 때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합의는 혼례식에 따르는 제반 문제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합의이다.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되시도록, 다시 말해서 순수 창조하신 만물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으며, 당신 생명을 바쳐 우리 모두의 생명을 건져 주신 자비의 하느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과 교회 안에 드러나는 참된 회개의 표지 가운데 하나는 모든 조물에 대한 자비의 정신이 그들의 윤리 안에 팽배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강조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인권 침해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성윤리를 강조하면서 금전적 탐욕과 그릇된 애국심으로 인한 인간 생명의 파괴는 모르는 채 입 다무는 선별적인 윤리관은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우리와 하느님이 명하시는 일들 사이를 교묘하게 차단하는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죄는 우리 본성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육체적 욕망만을 억제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우리의 죄는 육체적 욕망보다 훨씬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천사의 타락 설화를 통해 표현된 바 있는 진리이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육체가 아닌 정신 속에 자리잡는 죄이다. 모든 조물이 우리를 찬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우리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우리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는 교만의 죄가 그것이다. 교만의 성향은 우리의 내심 아주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다. 그래

서 교회는 우리 삶이 끊임없는 회개,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하느님을 자기 안전의 담보물로 삼으려 하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부단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기를, 스스로 파 놓은 교만이라는 무덤 속에 묻어 두고자 하는 인간의 이 같은 성향은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에 훌륭하게 예시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창녀 카추샤의 자세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도둑, 살인자, 첩자, 창녀라면 으레 자기가 자행하는 일을 사악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리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실체는 그와 정반대이다. 범한 죄와 저지른 잘못으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면, 사람은 그 처지가 제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멋지고 훌륭하게 생각하려는 인생관을 터득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고수하려고 본능적으로 인생관이 같은 무리와 결탁하고 그 무리 속에 자리잡는다. 그 결과 놀랍게도 도둑들은 자신의 날랜 솜씨를 자랑하고, 창녀는 저지르는 비행을 뽐내 가며 이야기하고, 살인자는 잔인한 살인 수법을 우쭐거리며 지껄이게 된다. 우리가 이런 일에 놀라는 까닭은 이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무리와 그 분위기가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대체로 거기에 접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부자가 재산 자랑을 할 때 약탈이라는 동일한 현상이 드러나고, 군지휘관이 승전 이야기를 오만스럽게 떠들 때 살인이라는 동일한 현상이 목격되고, 고관 대작이 손 안의 권력을 뽐낼 때 폭력이라는 동일한 현상이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가? 그런데도 이자들의 인생관 속에서 타락상을 발견해 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부류가 비교적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그 무리 속에 끼여 있기 때문일 뿐이다...

톨스토이는 창녀 카추샤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녀는 이런 인생관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다. 아니,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 인생관을 상실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부심도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생의 의미를 상실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에 꼭 맞는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이 고정된 시각에 본능적으로 매달려야 했다.

카추샤가 느낀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두려움, 즉 자기의 무가치와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몸부림치며, 개인적으로는 공동적으로든 방법 마련에 부심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건전한 본능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방법을 인간 성장의 수단이 아닌 성장을 가로막는 얽매물로 이용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해하는 온갖 방어벽은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하느님과 합일을 향한 성장에 기여할 때만 정당성을 지닌다. “그 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하여, 즉 사람이 조성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만큼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또 방해가 되면 그만큼은 배척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방어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느님을 가로막는 방벽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우리의 방어벽은 이제껏 우리의 이상, 우리의 거짓 신이 되어 왔고,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밑뿌리에 해당한다. 첫째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감히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여타의 모든 계명이 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는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을 잘못 읽고 있다. 이것은 멸절의 위협이 아닌 진리를 대면하라는 초대이다. 사실은 친절하며, 하느님은 사실들 속에 내재하신다. 자신의 무의미성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대의 방어벽은 궁극적으로 소용 없는 것이다. 그대가 쓸모도 없는 방벽의 힘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대의 반석이자 피난처요 힘이시다. 이 진리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하느님 눈에 소중하며 하느님이 그대를 사랑하고 계시는 까닭이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함께 나누도록 그대를 부르고 계신다.” 죄는 이 초대를 받아들이기를 마다하는 거절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선호한다. 우리는 무덤에 묻힌 라자로와 같다. 하느님은 우리더러 나와서 살라고 부르신다. 하지만 우리는 “고맙습니다만 지금 있는 여기에 그대로 있으렵니다.” 하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를 차단하는 둥그런 방벽 안에 들어앉은 채, 또 다른 원형 방벽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이런 일은 가능하다. 만일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쪽 원형 방벽 속으로 끌어들여 놓고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모두를 무신론자요 악으로 선언할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방어벽을 위협하는 자들 모두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멸절시키겠다고 덤빌 경우, 하느님은 우리의 도둑질과 폭행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담보물이 되고 만다. 우리가 현재 자유와 주권 수호, 법과 질서 유지, 애국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의 도둑질과 폭행과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담보물이 되고 만다. 우리가 현재 자유와 주권 수호, 법과 질서 유지, 애국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의 도둑질과 폭행과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허울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윤리를 선별하고, 자기 방어 영역 바깥은 보지 못하는 개인주의적 도덕관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독선에 대단한 확신을 굳혀 가게 된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그릇된 자기 방어, 특히 하느님을

이용하여 자기 행실을 정당화하며, 종교의식과 외형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 안전감을 누리는 작태를 끊임없이 공박하였다. 하느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하러 이 많은 제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숫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진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제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두 손을 모아 아무리 빌어 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 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부성이,

몸을 씻어 정갈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의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 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 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이사 1, 11-17).

예언자들의 예언을 실현하신 그리스도 또한 그들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부에서 안전을 찾는 악을 경고하신다.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부에서 안전을 찾는 소행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하느님을 배척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이 우리의 배척 행위를 옹호하고 계신다는 주장을 펴는 자기독선 속의 안주이다. 온유하신 예수는 이런 거짓된 안전을 통렬하게 단죄하고, 이를 추구하는 자들을 위선자, 회칠한 무덤, 남들 면전에서 하느님 나라의 문을 닫아 걸고 자기는 물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인,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를 방세로 삼키는 사기꾼이라 몰아 세우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모상이신 예수는 나약하여 죄를 범하는 이들,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온유하시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하시다.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을 악용하고 자신의 사악한 소행을 정당화하는 데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따듯이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 그런가 하면 법과 질서를 책임 맡은 자들과 공모하여 예수를 독성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은 바로 종교인들이었다.

예수는 당신의 가르침을 첫번째 참된 행복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다시 말해서 “그지없이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로 요약하고 계신다. 자신의 덧없음을 알고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은 그지없이 행복하다. 그런가 하면 루가복음에는 그와 정반대의 처지도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부요하다’는 비단 물질의 소유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마음과 정신의 자세도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나름의 광신(狂信)에 폐쇄된 종교인이 ‘세리와 창녀’보다 더 큰 죄인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죄는 인간 생명에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오늘

날 북아일랜드와 레바논, 이란, 이라크, 남아프리카 등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 속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적을 살해하면서 하느님이 자기 편에 서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죄는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도록

허용치 않는 거부이다.

회개는 하느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 되시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알고 회개하는 일은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다. 죽기 전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치 않은 단계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의식의 층들이 층층이 겹쳐 있으며, 존재의 매순간은 우리가 허용하기만 하면 이 층들을 표출시키고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도록 용납하지 않는 내심 깊숙이 자리잡은 인간의 성향을 꾸준히 들추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온유하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악함을 점진적으로 드러내 보이신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별로 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너희 죄가 전홍 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이사 1, 18). 하느님이 중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우리가 그분께로 몸을 돌리면 그분은 제이무리 멀리 계시더라도 다가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신다. 우리의 실질적인 죄는 현재 상태의 자신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느님께로 향하기 이전에 우선 자기를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돌아서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에게 절망의 사유로 생각되는 것들 — 실패, 직업 상실, 세평, 망

신살, 사라질 줄 모르는 윤리적 약점, 신체나 정신의 질병, 결혼 실패, 수도자 성소의 좌절 — 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신뢰 속에 하느님께로 향하면 오히려 은총의 순간이자 새로운 삶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해답은 바로 고통 속에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인간 처지도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다.

이 장은 참된 회개의 특징을 거짓 회개의 표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가장 일목 요연하게 요약될 수 있다. 다음 항목을 읽으면서 거짓 회개 부분에 자신의 상태가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세리가 자신의 죄악을 알고, 그 앎을 하느님을 향한 도약대로 이용했듯이, 이 자기 발견을 환용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는 회개가 점진적인 과정이자 평생 과업이라는 점과 모든 사람의 내면에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가 혼존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참된 회개의 표지

참된 회개는 자기 편견에서 해방시킨다. 이유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둠을 보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기쁨과 내적 자유를 초래한다.

거짓 회개의 표지

거짓 회개는 우리를 자기 편견 속에 침몰시킨다. 우리는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초조해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킨다.

거짓 회개는 근심 걱정을 누적시키고 우리를 더욱 방어적으로 만든다.

참된 회개는 비판을 환영하여 거기에서 배움을 얻어 낼 줄 안다.

참된 회개는 이해와 끈기와 희망을 낳는다.

참된 회개는 동정심을 북돋고, 그리하여 온갖 형태의 불의를 예리하게 감지하는 감수성을 키워 준다.

참된 회개는 하느님의 웃음을 함께 공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 놓는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하느님께 끌려감을 느낀다.

이 같은 특성은 교회 안에 몸 담고 있는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도 적용되는 것들이다.

참된 회개 정신을 가진 교회는 자기를 유지하는 일보다 자기 사

거짓 회개는 비판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거짓 회개는 마음과 정신을 강박하게 만들고 교조주의와 편협과 비난 위주의 태도를 낳는다.

거짓 회개는 정의가 자기 개인이나 자기 집단에 이익을 줄 때만 정의에 민감하며, 따라서 윤리적 단죄면에서 선별적이 된다.

거짓 회개는 지나치게 진지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고 자연스러운 웃음을 불가능하게 한다.

거짓 회개를 할 때 사람은 하느님한테서 내몰리는 느낌을 받는다.

거짓 회개 정신을 소유한 교회는 자체의 교의적 내지 윤리적

명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인다. 이런 교회는 자신이 만든 안전 장치를 모두 덧없는 것으로 여기며 유일한 안전 장치를 하느님에게서 찾는다.

참된 회개 정신을 지닌 교회는 그 구성원 속에 제도적 요소와 아울러 비판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도 함양한다.

교회는 '민족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와 교회에 몸 담고 있는 개개인에게 참된 것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간에 모든 집단과 제도와 민족들에게도 참된 것이 되어야 한다.

참된 회개 정신을 지닌 민족은 위의 특성 외에도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다른 민족들의 삶의 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어떤 민족에게 회개 정신이 지배권을 갖게 되면, 그 민족은 진실로 회개한 개인이 이기심을 혐오하는 것 이상으로 온갖 형태의 편협한 국수주의를 혐오하게 된다.

정통성이 됐든, 누리는 사회적 특권이 됐든, 자기 조직의 보존이 됐든,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재화가 됐든 간에, 자기 유지에 일차적 관심을 쏟는다.

참된 회개 정신이 결여된 교회는 제도적 요소를 강조하는 반면, 비판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는 방치하거나 철저히 도외시한다.

회개 정신이 없는 민족은 주로 자신의 부와 국제적 지위에 관심을 쏟는다. 왕성한 경제와 우세한 방어 체제가 민족의 주요한 우선 과제가 된다. 이 민족에게 종교적 전통이 있다면, 종교는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당한다.

이 장에는 실천 과제가 없다. 죄와 회개에 관한 글을 읽고 쓴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과 세계의 죄악상을 뼈저리게 깨닫는다는 보장은 없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오로지 하느님만이 우리를 회개를 통해 당신께로 끌어갈 수가 있다. 다음 장은 우리네 삶의 어둠과 세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선을 알고, 참된 회개가 낳는 내적 기쁨과 자유를 일정 정도 체험하는 길들이 소개된다.

7

보물 발굴에 착수

그가 세상의 광채와 경이에 가려져 있다 해도,
 그의 신비는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야 마땅하나니.
 내가 그와 만나는 나날에 인사를 보내고
 이해하는 그 때에 그를 축복하는 까닭이라.

(G. M. 홉킨스, “독일땅의 난파”)

죄는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부이다. 그리고 고만한 거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러지 않는 채하면서 하느님이 온갖 실천적 목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하느님의 ‘별개성’(別個性)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 세계를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개인 세르베루스는 꿀 바른 과자를 던져 주면 무시무시한 감시의 눈이 다른 데로 옮겨 갔다. 우리도 하느님께 이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 주일 예배라는 꿀 바른 과자를 던져 드리고 정성어린 신심이 담긴 달콤한 말을 속삭여 주면 하느님은 다음 한 주간 동안 떼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 만물의 하느님,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께로 끌어당기는 하느님이 되시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부이다. 세례는 하느님이 우리를 부단하게 끌어당기신다는 이 보편적 진리에 대한 경축이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다 당신께로 부르고 계신다.

“그가 세상의 광채와 경이에 가려져 있다 해도, 그의 신비는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문에 작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식별 방법의 하나가 소위 ‘의식성찰’이라는 다음의 수련 과정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가 끝나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되면 우리의 정신은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그 날 있었던 사건 몇 가지를 아주 생생하게 되뇌

이는 성향이 있다. 그러기에 사건이 유독 많았던 날에는 잠이 쉽사리 오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낮에 있었던 말다툼을 되새기면서 좀더 재치 있었다더라면 능히 했을 명쾌하고 통렬한 말들을 머리에 떠올리는 수가 있다. 바로 이같이 자연스런 정신의 흐름을 토대로 하는 것이 의식성찰이다.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초 동안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재인식하고 자기의 전존재가 순수하게 하느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라는’ 기도로써, 설령 우리의 전존재가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 못함을 익히 안다고 하더라도 바칠 수 있는 기도이다.

하느님께 이런 청을 드리고 나면 정신이 하루 생활을 죽 더듬어 가게 한다. 이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판단은 일체 삼가고,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들만을 포착하여 음미한다. 제아무리 참담한 하루였더라도 애써 찾아보면 기쁜 순간들이 얼마간 포함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 순간은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 보던 순간일 수도 있고, 좀처럼 깨닫지 못한 사실을 깨달은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런 수련법을 시도해 본 사람은 의도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의 고통스런 체험에 파묻혀 잊혀졌거나 흐릿해졌을 수많은 다양한 기쁨의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이 ‘의식성찰’은 날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행사이다. 따라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건들을 돌아본 다음에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한다.

감사드리고 나면 자신이 맞본 내적 분위기와 느낌을 재음미하면서 무엇이 이런 분위기와 느낌을 촉발시켰는지 살핀다. 이번에도 자기 판단은 삼간다. 내적 분위기를 음미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분위기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가짐을 드러내 보이시도록 그리스도께 간청한다. 그 때의 분위기를 자신이 분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저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그 기분을 창출한 사건을 되돌아보기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루의 사건들을 관조하고 거기에서 얻은 체험으로 그리스도께 기도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때로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행되었던 장면을 주시하면서도 판단을 삼가다 보면, 장면 속의 실상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연민을 느끼는 데 반발하는 거부감이 뚜렷하게 의식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은 자신과 자기 생각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려는 우리의 가치 세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험을 분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그냥 관조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계시도록 허용하고 있는 자리와 계시 수 없도록 차단시킨 자리를 그분 친히 우리에게 알려 주시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대는 '그분의 영광을 통과시켰던' 시간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분의 진입을 가로막은 시간에 대해서는 용서를 청하도록 하라. 그분은 용서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나약함을 그분께 보여 드려서 그분이 그것을 힘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맨 끝에 가면 다음날을 간단히 예견해 보면서 그분께 매사를 우리와 함께 해 주시도록 간청한다.

이 수련에 소요되는 전체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짧은 시간은 대단히 값진 것이다. 매일같이 이 수련을 되풀이하면 우리는 비단 수련 시간만이 아니라 실제 활동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분의 활동을 한결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한 주일이 나 한 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효험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흔히 예기치 못 할 때 솟구치는 기쁨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흥분하는 횟수가 줄고 한결 평온해지며, 덜 서두르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게 된다. 의심이 줄고 신뢰하는 자세가 나타나며, 만나기만 해도 으레 신경이 곤두서던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반가움을 느끼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보다 자유로이 자기를 유지하고, 자신과 남에게 훨씬 친절하고 별걱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든다.

그 다음 단계의 수련은 상상적 관상이다. 이 수련법은 두 아들, 탕자와 그의 형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유를 이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그 밖에도 자신의 어둠 가운데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에게 용서받는 기쁨을 얻어 낼 수 있는 기도예 적합한 성서 말씀은 이 장 끝머리에 열거해 둔다.

우선 이 수련법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이다.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할애할 시간부터 정한다. 그리고 일단 40분으로 정했으면 10분이 지나서 아무 소득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싶더라도 도중 하차하는 일 없이 40분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자기 억제의 수련이 아니며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내면에는 의식의 층이 수많은 겹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보다 깊은 층에 도달하기 전 입문 단계에서 아주 흔하게 맛보는 느낌이 바로 내적 공허와 건조와 지루함이다. 따라서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기도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보다 깊은 의식층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날마다 이 수련을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만 어찌다가 한번씩 수련에 임한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를 갖는 것이 이것이다.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루가복음 15장을 봉독하되, 두 아들의 비유 내용에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봉독한다.

기도에 들어가면 우선 첫번째 수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모든 것이 기도 시간 동안에는 하느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데에 온전히 쏠리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한다. 그리고 아울러 죄를 깊이 알고 죄

에 대한 슬픔을 심화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서 본문을 영상화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체험을 토대로 기도드린다. 이 대목이 이 수련법의 핵심이며, 다음에 오는 것들은 이 핵심을 마무리하는 다듬질에 불과하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와 율사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이 남녀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 그들의 생김새와 몸짓, 눈빛과 차림새를 주의 깊게 살핀다. 그들 중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처럼 온통 흥분에 휩싸여 있는 까닭과 그리스도께 이토록 매료되어 있는 까닭을 알아 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맞아들이시고 어떤 식으로 인사를 나누며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아는 체하시는지 살핀다. 또한 가까이 다가오는 율사와 바리사이들을 지켜 보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주고받는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주시한다. 장면의 이 대목에 관심이 쏠리거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기에 앞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여기에서 시간을 끌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목적이 가르침의 내용을 섭렵하는 데 있지 않고 성서 본문을 매개체로 자기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만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정신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오락가락하는 수가 있다. 또 신앙에 대한 의혹으로 곤혹감을 느끼거나 (나는 진실로 하느님을, 성서를 믿는 것일까?) 자신의 성실성에 의문이 일거나 (나는 진실로 죄를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온갖 생각과 느낌은 지각수련(知覺修鍊)에서처럼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조용히 본래의 장면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그것들에 얽혀 들지 말아야 한다. 상상 속의 장면이 아무래도 정신집중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 장면을 설명하

는 입장을 취하면 금방 장면 속에 몰입이 가능해진다. 이것마저 통하지 않고 정신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이 산만한 정신과 흐트러진 마음을 그리스도께 내보이며, 태초에 성령이 혼돈 위를 떠돌면서 혼돈에서 생명과 질서를 출산시켰듯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혼돈 위를 떠돌게 해 주시도록 간청한다. 성령은 우리의 혼돈 위를 끊임없이 배회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내적 혼돈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는 수가 있다. 이것은 결코 실패의 표지가 아닌 직관의 선물이요 은총이다. 우리는 혼돈을 인식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비교적 피상적인 느낌의 홍수에 밀리고 떠돌면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깊이 있는 참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행동에 불만을 토로하는 바리사이와 율사들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을 지켜 보면서, 이와 유사한 불평이 오늘 날에도 일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아도 좋다. 이 경우에 내가 바리사이들에게 동조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태도들을 내 안에서 목격해 내는 수도 있다.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전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 세 가지로 죄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태도를 묘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 내가 당신과 다른 누구에 대해 느껴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나를 느껴 아시는 하느님, 양 아흔아홉 마리를 놓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 여인이 잃은 은전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듯이 세상을 온통 뒤지며 나를 찾으시는 하느님을 마음에 떠올리도록 하라. 신비가인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는 언젠가 “하느님은 당신을 우리와 합일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으신 분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말보다 훨씬 놀라운 말이 있다. “하느님은 나를 빼면 아무 할 일이 없으신 분으로 보인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야기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상속받은 재산을 싸 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작은 아들을 지켜 보라.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타지방으로 향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처음에는 기쁨에 들떠 있던 그가 돈이 동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나서 돼지우리 속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라. 그는 상속받은 정신과 육체를 소모해 가며 되도록 많은 피조물한테서 찬미와 공경과 섬김을 받으려고 노력한 우리 모두를 표상한다. 따라서 돼지우리에 앉아 있는 그를 관상하노라면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공허를 접할 수가 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고결하고 고상한 동기에 서가 아니라 배고픔과 절망감에 찌들린 까닭이다. 이것은 대단한 위안을 주는 진리이다. 아버지가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들인 것은 아들이 고결해서도, 집에 돌아온 동기가 순수해서도 아니고, 그가 당신의 아들이며 그저 집으로 돌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공허를 하느님 앞에서 자인하는 일이다. 그렇게만 하면 하느님은 뛰어서 마중 나오신다. 이 진리는 한참 동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 뵈기에 앞서 자기를 내세우며 하느님의 선하심보다 자신의 탓을 생각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광경을 지켜 보면서, 이 진리가 바로 지금 그대 안에서 체현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가 그대를 부둥켜안고 입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라. 이 진리로 그대의 불신이 깨어져서 어린 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라.

이어서 이동할 준비가 갖추어지면 집 밖으로 나가서 들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형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그가 집안에서 울려 나오는 풍악 소리에 보이는 반응을 주시하고, 하인한테서 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전해 듣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귀담아들어 보

라. 그는 아버지가 나와 달래면서 어서 들어가 함께 즐기자고 말하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나머지 아버지와 동생을 일컬어 남 대하듯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쓴다. 형의 분노와 상한 기분을 그대로 느끼도록 노력하라. 형의 분노와 상한 기분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분노와 상한 기분을 진동시켜 분출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은 자신의 힘겨운 노고와 충실한 봉사를 익히 알고 있고, 따라서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 경멸하고 자기보다 나약하거나 불성실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언제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의 보물은 그의 실생활에서 예증되듯이 자신의 선함 속에 묻혀 있으며, 따라서 또 다른 선은 조금도 감지하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로 묘사하시는 바리사이의 태도를 전형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깊이 음미하고, 이것이 20 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어쩌면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이같이 눈먼 오만을 긴 말로 나무라지 않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고만 타이르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내게 들려 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 비유를 장황하게 다루어 온 목적은 복음의 이 대목을 이런 방법으로 관상해야 한다고 알려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 어느 대목이든 상상력을 발휘하여 음미하면 상당한 부를 발견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예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복음 구절로 기도드릴 때에는 한 구절이나 한 심상에 오래 머물수록 좋다. 기도는 결코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상상적 관상이 끝나면 10 분 내지 15 분에 걸쳐서 전과정을 되돌아보고 기쁨, 평화, 희망, 활기가 났든 싫든, 의혹, 근심 걱정, 슬픔이 났든 간에 일단 느꼈던 예기치 못한 느낌들을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 이 때도 느낌들을 분석하려 들지 말고, 가능하다면 관상 중에 이런 느

낌을 유발시킨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 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어느 대목에서 정신이 텅 빈 느낌을 받고, 어느 대목에서 꼭 막히는 답답증을 느꼈는지도 알아 내면 좋다.

다음 기도 시간에도 바로 다른 성서 말씀으로 옮겨 가지 말고 다시 이 대목으로 돌아와 이전에 도움이 되었던 심상과 구절 또는 말씀에서 출발하되, 가능한 대로 오래 붙들고 머물도록 한다. 그리고 나면 불안과 슬픔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체험한 기도 대목도 되새기고, 그 느낌을 그리스도께 보여 드린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은 실패의 표지가 아닌 발견의 표지로서, 보다 긍정적인 느낌들 못지않게 소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보다 훨씬 훌륭한 가치를 갖기도 한다. 일례로 비유의 앞부분을 관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장면에서 기쁨을 맛본 반면에, 형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불안을 느끼거나 생각이 완전하게 끊겨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위선이라는 진실을 대면하기 꺼려하는 깊은 잠재의식적 혐오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는 이 진실과 대면하지 못하는 한, 그 혐오감에서 해방될 수 없으며, 또한 하느님으로부터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는 기쁨도 맛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서 말씀으로 기도드리면서 죄를 깊이 알고 참회하는 데에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대 자신 안에 있다. 따라서 그대는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대로 다음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에 감사드리노라면 그대는 자연히 하느님을 좀더 깊이 알고 자신의 전존재로 하느님을 섬기게 해 달라고 청하게 된다. 하느님을 향한 전진은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를 갖는다. 그대는 언젠가 하느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보다 깊은 의식층에 도달할 테고, 그러면 그대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불신의 영역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대는 기도 중에

회오와 참회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질 것이다.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것은 죄책감이나 자기 무가치함 같은 느낌과 남에게서 입은 상처에 대한 기억이라는,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두 가지 장벽이다.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간의 건전한 반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신에 해독을 미치는 불건전한 병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나 행하지 못한 일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면, 그리스도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체험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제약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것이요, 남의 기대치에 부응해야만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께로 향하는 것이 전부다. 우리는 참회를 놓고 양분되어 한 쪽은 참회를 바라지만 한 쪽은 참회를 바라지 않는 게라사 지방의 악령 들린 사람이나 같다. 따라서 참회를 바라는 쪽이 기도를 바치게 하고 다른 쪽은 궤방을 놓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그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마르 5, 6-7).

특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원인으로 규정하기 불가능한 끈질기고 심각한 죄책감은 일종의 마음의 병으로서, 자신이 무가치하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느낌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이런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항상 죄송스럽게 느끼고, 끊임없이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절감하면서도 제아무리 애를 써도 하느님은 물론 어떤 사람한테도 결코 인정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질환은 유아기에 부모가 거의 또는 전혀 애정을 보이

지 않고 계속해서 벌하기만 하면서 그를 무가치하고 사악한 아이로 몰아세운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는 부모의 태도에 철저하게 동화된 나머지 부모의 태도가 정신을 항구하게 지배하는 초자아(超自我 : 어렸을 때 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교훈의 잔상인 무의식적 양심)로 굳어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까지나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심각한 재난이다. 하지만 다음의 기도 방법을 통하면 이 재난의 보다 심원한 의미와 이 재난을 이해하고, 이 재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길이 드러날 수가 있다.

살바돌 달리(Salvador Dali)는 그리스도께서 못박힌 십자가가 지구 위에 걸려 있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이 그림에 담긴 심상에 그대의 상상력을 작용시키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시는 그리스도께 말을 걸어 보라.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가 되셨고, 그리하여 제아무리 은밀한 범죄라도 모두 걸머지셨고 용서하셨다. 그런 그리스도께 그대를 제외한 전인류에게는 성공을 거두셨지만 그대는 만만치 않아서 당신의 죽음조차도 그대의 죄책감을 극복시키지 못하고 있노라고 말씀드려 보라.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인간을 사랑스럽게 보시더라도 그대만은 하느님의 실패작이라서 당신이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보라. 그대가 이 기도를 꾸준히 바친다면 그분은 필경 그대의 죄책감이 당신의 사랑보다 우세한 힘을 지닌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면서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도록 허용하지 않는 그대의 오만이라는 죄책감의 숨은 근원을 벗겨 보이실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말없이 앉아서 그대의 죄책감과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그대 면전에서 썩어 가는 쓰레기더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이 쓰레기더미를 뚫고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도록 기도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훌륭한 기도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체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그대 자신에게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그대는 죄책감을 제거할 능력이 없을

을 스스로 시인하고 아울러 그분이 우리의 내적 존재로가 아닌 입술로 아주 수월하게 표현하곤 하는 분, 즉 우리 구세주가 되시도록 허용하게 된다.

과거에 입은 상처에 대한 기억 역시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1 요한 4, 20).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우나 용서를 유보하는 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하느님 되시지 못하도록 배척하고 있는 것이 된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 존재 속에 기입되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실재 인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행실의 동기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그 체험에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우리의 인식 방법을 형성시키는 사건들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묻힌 채 기억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예를 들면 특정한 소리와 냄새와 풍경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데 반해서 우리에게만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필경 이런 감각적 자극이 깊은 행복에 젖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내부에 파묻혀 감추어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극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 때의 사건 자체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 냄새와 풍경 또는 음향이 당시의 행복했던 느낌을 되살려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벌어지는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면서도 우리에게만 암울과 슬픔과 불안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에 자신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이 고통은 기억해 내면서 고통을 유발시킨 과거의 사건은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 이것이다.

상상적 관상 중에는 흔히 감추어져 있던 기억이 표출되는데, 거기에는 상처에 대한 기억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어져 온 삶 전

체가 이런 사건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음을 처음으로 깨닫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줄곧 죄책감에 시달려 온 사람이 부모에게 잘못이 있음을 갑작스럽게 깨닫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자신의 인생을 황량하게 만든 부모를 용서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런 깨달음과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을 대면하기 너무 고통스러워, 이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유혹도 생긴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은 반드시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줄곧 의식 속에 내재해 온 기억이든 돌연히 의식 속으로 뛰어든 기억이든 간에, 이것이 삶에 끼치는 숨막히는 악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런 기억을 기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도움 되는 것이 복음 속의 치유 기적을 토대로 하는 상상적 관상이다. 상상력을 통해 치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에 파고들어 가서, 그리스도 곁으로 다가가 그대의 상처와 괴로움과 만성 질환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라. 그대는 지금 복음 말씀을 매개체로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아주 깊숙이 틀어박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치유를 간청하고 관계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하여 평화와 해방을 체험한 연후에, 상처의 아픔이 또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 마음과 정신의 비교적 깊은 층에서 이 상처와 원한을 빨아올려 내뱉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복음 구절을 토대로 한 관상이 상처와 한을 대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 혼자 있는 방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고 상상해 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묵시 3, 20). 상상 속에서 그대의 인생에 상당하는 집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바퀴 돌아보라. 그대가 커다란 고통을 체험했던 사건에 해당하는 여러 방으로 그분을 안내하여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소개해 드려라. 설령 당사자가 죽고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가 여전히 아픔을 느끼는 상처를 그 사람과 그리스도께 꺼내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살펴보라. 성실성이 결여된 용서의 언사나 몸짓을 억지로 하려 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부터 느낌과 발언을 끌어 내시게 만들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으련만”이 고작일지라도, 그 자체가 발전이다. 그대가 상처를 입힌 사람한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런 기도는 실로 놀라운 효과를 내기도 한다. 사람들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 주고, 여러 해를 괴로움에 시달려 온 사람으로 하여금 삶 속에서 기쁨과 환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병원 치료로도 효험을 보지 못한 고질병을 오랜 세월 앓아 온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만들 때까지 한다.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얼마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이제까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기로 하자.

예수께서 “하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이 밭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이니고 로올라는 백일몽이 남긴 여파를 주시하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에 묻힌 보화를 어렵잖이나마 감지하였다. 이 보물은 생각과 느낌과 기억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내적 생명력 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내적 생명력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세계를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는 종교의 필수 요소 세 가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의 필요성 및 어느 한 요소를 무시할 때 오는 피해상을 알아보았다. 종교는 제도적 요소를 터무니없이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내적 생명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으로 제시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종교만큼 하느님의 얼굴을 철저히 가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사실이 된다.

우리는 게라사 지방의 악령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마르코복음 기사를 이용하여 모든 인간 안에 내재하는 욕망들의 복잡한 양상과 혼돈과 상호 갈등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로 향하라.”는 말은 욕망들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한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 혼돈은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기도 자체가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푸는 열쇠가 우리의 욕망들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릇된 하느님상을 뚜렷하게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기도 방법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모습을 빼닮은 하느님을 창조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첫걸음으로 성이냐시오의 “원리와 기초”를 고찰하였다. 첫 문장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영신수련」 서문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 기본 방향을 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자세(중용/초탈)의 윤곽을 잡아 놓고 있다. 우리는 이 중용(초탈)이 하느님과 연결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당신께로 끌어당기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최초 메시지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회개하라”는 “나에게로 몸을 돌리고 너에게 쏟는 내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의미이다.

이 장에 와서는 우리의 죄악 속에서 하느님의 선을 깨닫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 끝에는 독자에게 도움될 만한 성서 말씀들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상상적 관상을

몇 차례 실천하고 나면, 그대의 갖가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하여 지상에서 더없이 행복스런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받지 않았기 바란다. 하느님을 향해 여행하노라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고기냄비를 즐기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광야에서 투덜거리는 이스라엘인들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하느님께로 몸을 돌리면서 비로소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 버려 이제껏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삶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매혹적인 우상들을 감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 있었던 시절, 하느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무대의 가장자리 어두운 곳에 희미한 존재로 계시다가 나의 등장 신호가 떨어지면 곧바로 등장하시던 태평스런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그 하느님이 이제는 무대를 휘어잡고 계시며,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 주던 많은 것들로부터 따돌림당하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데 따른 반감과 후회와 원망의 느낌이 우리를 괴롭힐 때면, 우리는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하느님을 찾는 노력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내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일단 기도 중에 하느님께 향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기분과 내적 느낌의 기복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우리가 놀라운 일들의 하느님, 살아 계시는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좋은 표지이다. 참된 인간 관계치고 갈등 없는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기분과 이것이 갖는 보편적인 성격 및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과 대응을 피하는 방법 등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다.

실천 과제

상상적 관상에 도움되는 성서 본문들 :

보편적인 말씀

창세 3장 :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관상할 경우, 온갖 죄의 본질과 영향을 현대적 감각에 잘 맞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죄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루가 15장 : 잃었던 양,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의 비유.

요한 8,34-41 : 죄는 노예로 만들고 진리에 눈멀게 한다.

로마 7,14-25 : 바울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있다.

2베드 2,1-22 : 죄의 본질과 역사.

야고 1,13-18 : 우리 욕망들 속에 내재하는 죄의 뿌리.

야고 3,2-4,17 : 폭력과 불화의 뿌리.

2사무 11,1-12,15 :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식한다.

묵시 3,14-22 :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분별 없는 자만에 관하여.

마태 23,13-36 : 바리사이들을 탄핵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대목이 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초대교회가 스스로 바리사이적 위선에 빠져들 위험이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루가 18,9-14 : 기도드리는 바리사이와 세리.

예제 16 : 이스라엘의 불충과 하느님의 충실성이 대비되는 일종의 풍유적 역사.

시편(참회) 6; 32; 38; 51; 102; 130; 143

사회적 죄에 관한 특수한 말씀 :

마태 25,31-46 :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계신다.

이사 1,11-20 :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와 정의를 베푸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종교 예절 준수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모 5; 6 : 힘없는 사람을 수탈해서 부를 누리는 부자에 대한 통렬한 공박.

루가 16,19-31 : 부자와 거지 라자로.

루가 12,16-21 : 자기 혼자만을 위해 보화를 쌓는 부자의 비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각별히 강조하는 말씀 :

루가 7,36-50 :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발을 씻겨 드리는 죄인.

요한 8,3-11 :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인 간음한 여자.

요한 13,36-14,1 :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신 직후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사 54,4-10 : “두려워 말라... 산들이 밀려 나고 언덕이 무너져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사 55,1-9 : 하느님은 용서에 후하시다.

치유 기적 몇 가지 :

마르 1,40-45 : 나병환자의 치유.

마르 2,1-12 : 예수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낸 중풍환자의 치유.

마르 3,1-6 : 손이 오그라든 불구자의 치유.

마르 5,1-20 : 게라사 지방의 악령 들린 사람.

마르 5,21-43 : 하혈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의 부활.

마르 8,22-26 : 소경의 치유.

마르 9,14-29 : 악령에게 사로잡힌 아이의 치유.

요한 5,1-18 : 베짜타 못가의 병자 치유.

요한 9 : 안식일에 소경 치유.

요한 11,1-44 : 라자로의 부활.

8

발굴시 보물의 식별법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시편 22,1)

일부 병원들은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필적을 연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면밀한 필적 조사는 환자가 자각하지 못하고 X-선 같은 여타의 수단으로도 검진되지 않는 중질환의 초기 증세를 알아 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몸은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미세한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호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만이 정보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몸 전체가 하나의 정보망을 형성하고 있고, 의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작은 부분밖에 파악할 수 없으며, 그보다도 더 미세한 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추론이다. 우리의 몸과 느낌과 감정은 논리적인 정신보다 사건에 훨씬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의식이 원인을 탐지해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기도 하고, 얼핏 보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일이나 과거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고 주목하게 하기도 한다.

이니고 로올라는 맨 처음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와 사막의 험프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백일몽을 꾸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백일몽의 종류에 따라 그 깨어난 후의 느낌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감지하면서 - 미구에 용맹을 떨치고 신분 높은 귀부인의 사랑을 얻는 백일몽 다음에는 따분함과 서글픔과 공허감을 느끼는 데 반해서, 성인들을 앞지르는 백일몽에는 기쁨과 평화와 활력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 그 자신이 후에 '영들의 식별'이라 이름 붙이지만 우리로서는 '기분과 느낌의 정밀 감정'이나 '몸의 신호 판독'이라 명명함직한 과정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이나시오는 그의 저서 「영신수련」에서 “영들을 식별하는 규범” 두 종류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첫째 규범은 영신수련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죄를 알고 회개정신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다 적합한 것이며, 둘째 규범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상하는 사람에게 보다 적합한 것이다. 이나시오는 인간의 마음이 저마다 복잡적이고 나뉠대로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개개인 전체를 두루 망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범을 제시하려 들지 않고, 우리가 자기 기분을 읽어 내기 시작하는 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기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온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장은 바로 첫번째 “영들을 식별하는 규범”을 간략하게 간추려 기술하는 단원이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전존재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단히 당신께로 끌어당기신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 주셨나이다 (시편 139 참조).

성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마음 안의 모든 움직임에서 하느님의 이 같은 역사를 감지하였다. 그가 「고백록」에다 “주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고백록 1장)라고 기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하느님은 우리의 내적 불안과 공허에 대한 답변이시다. 우리가 하느

님을 향해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의 기본 선택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방향을 지향할 때, 우리의 느낌과 기분은 이 움직임과 공명(共鳴)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결정을 내리든 이 기본 선택에 부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심화시키면 심화시켰지 적어도 훼손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 기본 방향과 상반되는 형태로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리면, 부조화(不調和)는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느낌 속에 기재되고 그리하여 우리를 불안하거나 따분하거나 초조하거나 슬프게 만든다.

제 5 장에서 나는 영혼을 양치기 개와 함께 하는 양떼에 비유하였다. 여기에서 양치기 개는 가장 내밀한 부분, 즉 영혼의 핵심을 표상하고 양떼는 우리 내면의 다양한 욕망과 기호와 인욕을 표상했다. 훌륭한 양치기 개로 표상되는 사람은 삶의 기본 선택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같은 기본 선택에 통합되지 않은 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양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내적 욕망과 기분과 느낌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본 선택과 부합되도록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는, 내면에서 이 움직임에 역행하는 인자들의 발뒤꿈치를 덩씩덩씩 물 수밖에 없다. 양과 양치기 개가 이런 형태로 어울려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느낌은 초조, 권태, 슬픔, 싫증 등이다. 그러나 한바탕 어울려지고 나서 양떼가 무사히 출입문을 통과하게 되면 복합적인 느낌은 바뀐다. 그리하여 비록 육신거리는 통증이 얼마간 남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분은 평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양치기 개가 더 이상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쪽으로 기본 선택을 하게 되면, 양치기 개와 양떼는 한동안 좋아라고 날뛰면서 벼랑으로 몰릴 테고,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양들만 발뒤꿈치를 물리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

서 우리 존재의 핵심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다면 우리는 한동안 이기심에 안주한 채 대단히 만족스럽게 살 수 있으며, 이 만족이 방해받는 것은 돌발적인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고개를 드는 때 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분과 내면의 느낌을 해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일반 지침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된다.

1. 우리 존재의 핵심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창조적인 기분과 느낌, 행동과 결정은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유발시키는 데 반해서, 우리 내부와 바깥의 파괴적인 요소들은 초조와 슬픔과 내적 혼란을 유발한다.

우리 존재의 핵심이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의 파괴적인 기분과 느낌, 행동과 결정은 우리를 위안하고 위로하는 데 반해서 우리 내부와 외부의 창조적인 요소들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에 빠뜨린다.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보편적 지침이면서도 자기 존재의 핵심이 하느님 중심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궁금해 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그 같은 의구심 또한 당사자에게 심각한 내적 번민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대가 이런 형태의 걱정에서 사로잡힌다면, 이는 그대 영혼의 핵심이 하느님 중심적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뚜렷한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는 지극히 하느님 중심적일 수 있는 반면에 종교적 신앙을 강조하면서 종교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마태오복음(25 장)에서 최

후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는 점을 명백히 가르치고 계신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 그러므로 사람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며 살 경우, 비록 하느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찾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 첫째 지침은 131 쪽에서 언급했던 바 하루가 끝나면서 그 날 체험했던 내적 기분과 느낌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기분 밑바탕에 깔린 자세를 밝혀 보이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의식성찰’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첫째 지침은 ‘좋은’ 느낌이 하느님에게서 유래하고 ‘나쁜’ 느낌은 악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다시 말해서 평화와 기쁨 같은 느낌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슬픔과 고통 같은 느낌은 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마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영구히 높은 곳에 자리하고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만성적으로 천박한 정신에 머무른다고 보는, 그릇된 해석을 낳을 소지가 없지 않다. 사실 ‘나쁜’, 부정적인 느낌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될 수가 있다. 마태오의 수난 기사를 보면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싸여” 계신 적이 있었으며 예수 친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태 26, 37)고 토로하기도 하셨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라자로의 죽음을 대하고 흐느끼셨으며, 당신 제자들을 못마땅해 하시며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도무지 기억할 줄도 모르느냐?”는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율사와 바리사이들에게 “위선자, 눈먼 인도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는 딱지를 붙으셨을 때 결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채찍을 들어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몰아 내실 때에는 잔뜩 화가

나 세셨다.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부정적인 감정, 즉 슬픔과 분노와 초조감은 아버지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다른 면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인간이 종교의 미명 아래 수탈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격렬하게 화를 내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파괴적이지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위축시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그리스도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더없이 충만하여 계시는 까닭에 다른 사람한테서 불신과 냉담의 표지를 발견하실 때,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서구 사회의 일부 집단들, 그 중에서도 종교계 내부가 특히 분노, 흥분, 조급, 비판 혹은 슬픔을 비롯한 어떠한 감정의 표시도 ‘좋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들은 이상적인 인간이라면 동양 종교에 심취된 사람처럼 반쯤 부처의 미소를 머금고 어떠한 곤란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듯이 살거나 엄격한 공립학교 신조로 무장되어 어떠한 인간 감정에도 무감각하며 결코 동요되지 않는다는 듯이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분노와 흥분, 초조, 슬픔은 그 자체로 하등 나쁜 것이 없거니와 지극히 건전한 인간의 반응인 것이다. 이런 느낌의 표현을 배격하는 것은 내적 자아에 폭력을 휘두름이요, 그 폭력은 다른 사람을 향한 호전적인 태도로 반사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구사되어 우리를 침울에 젖게 만들기도 한다. 옳고 그름은 감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유발하는 바탕에 깔린 자세에 있다. 예를 들어 성전 환전상에 대한 예수의 분노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인간적 표현이었다. 즉 예수는 당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탈에 아버지의 집이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신 것이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성전 환전상들이 아주 손쉽게 돈벌이 하는 방법을 찾아 냈고 우리를 거기에 한몫 끼여 주지 않는 까닭에, 시기심 비슷한 전혀 색다른 분노를 느낄 수가 있다.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곳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역시 눈물은 흘리되, 그 눈물이 일터를 잃게 되리라는 서러움에서 흘러 나올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서 또 하나의 지침이 산출된다.

2. 창조적인 기분은 그 결과에 의해서 파괴적인 기분과 구별된다. 기분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확대하면 창조적인 것이요, 기분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위축시키면 파괴적인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내적 기분과 느낌을 의식하면서 곧바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이 기분과 느낌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다는 점과 창조적인 것에서 파괴적인 것을 구별해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실상 이 구별 과정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내적 기분을 너무 조급하게 분류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기분들을 막바로 정신 속의 서류함에다 ‘좋다’, ‘나쁘다’ 항목으로 분류해 넣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르침을 얻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고통스러운 느낌이 파괴적일 수도 있고 지극히 창조적일 수도 있는가 하면, 매우 유쾌한 기분과 느낌이 창조적일 수 있으면서 또한 파괴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존재의 보다 깊은 심층부에서 나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고, 다른 사람에게 한결 자비롭고 관대하게 만들며, 보다 강한 신앙을 갖게 해 주는 분노와 슬픔과 불안을 체험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영성 언어로 말하자면, 나로 하여금 하느님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기분과 내적 느낌은 평화와 기쁨과 환희가 됐든 분노와 슬픔과 불안이 됐든 모두 다 ‘위안’이라 불리운다. 그와는 달리 나를 내 안에 한결 깊숙이 밀폐시키고 나를 나와 다른 사람 및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며 자기 연민과 쓰라림, 회오와 소외의 어두운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분노와 슬픔과 불안을 체험할 수도 있

다. 이런 느낌은 전문적인 영성 언어로 ‘고독’이라 부르는 데, 실제로 얻는 느낌 역시 고독한 것이 되게 마련이다. 이런 까닭에 셋째 지침은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

3. 고통스럽거나 유쾌하거나 간에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는 기분과 내적 느낌은 ‘위안’이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고통스런 기분과 내적 느낌은 ‘고독’이라 부른다.

위안에는 유쾌하고 고통스러운 내면의 상태가 모두 포함되지만 고독은 오직 고통스러운 것만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리고 고독은 삶이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만이 체험한다는 사실도 유의하라. 자기 존재의 핵심에서 하느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은 간혹 가책의 통증을 체험할지 모르나, 일반적으로는 하느님의 부재를 느껴도 아무런 고통을 맛보지 않는다. 병들어 입맛을 잃은 사람이 점심을 거른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나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독을 체험한다는 사실은 설혹 상실감으로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선익한 징표이다. 고독은 위안이나 마찬가지로 퇴보가 아닌 발전의 표지요 성장으로 부르는 초대이다.

그렇다면 고독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넷째 지침에 나와 있다.

4. 고독에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은 위안에서 나오는 것과 상반되는 까닭에 고독 상태에서는 위안받을 때 했던 결정을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고독에 항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고독이 기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면 기도를 늘려야 하고, 고독이 자신 안에 더욱 폐쇄되도록 유도하면 더욱더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고독의 원인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고독은 흔히 위안의 발뒤꿈치를 바짝 따라붙는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충실하심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대단한 평화와 기쁨을 체험한다. 그러나 곧 이어서 행복감은 소멸되고 마음속에 의문이 일기 시작한다. ‘내가 무슨 망상에 사로잡힌 것 아닐까?’ ‘나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결코 유지할 수 없는 것일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일반적이며 유해한 형태의 고독은 139쪽에서 이미 다루었다시피 좀처럼 사라질 줄 모르는 죄의식 그것이다. 고독을 얼른 탐지하려면 “내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자신에게 쏠려 있는가, 하느님께 쏠려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면 된다.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은 그 자체가 선의이거나 유해하거나 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연약성을 체험하면서 대단히 불유쾌한 느낌이 든다 해도, 아니면 자신이 하느님과 갈라서 있다든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유리되어 있다든가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잘못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옳음과 그름은 이런 내면의 상태가 아닌 그 상태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분에 이어지는 판단과 결정 속에서, 우리는 기분과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기분에 편승하여 행동함으로써 파괴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은 절망과 낙담 같은 암울한 생각을 유발시키면서 관심의 초점을, 하느님과 다른 사람은 외면한 채, 우리 자신에게 쏠리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심화됨을 체험하는 위안 속에서는 우리의 관심이 하느님의 선하심에 보다 온전하게 집중되는데, 이 하느님의 선하심은 우리 자신의 죄악상을 훨씬 명확하게 밝혀 보이면서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온전히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신뢰를 부여한다.

넷째 지침은 우리가 고독 속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안받을 때 내린 결정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고독의 시기는 고독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로, 따라서 이 때 중요한 일은 보다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등의 일이다. 나는 고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서 고독의 원인들을 고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덕분에 고독기를 버티는 삶에 더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그들의 결정은 고독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안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고수함으로써 고독의 흐름에 항거하는 데서, 즉 고독의 흐름에 항거하고 고독의 원인을 고찰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고독의 원인을 고찰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 기분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에서 기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하느님은 온유하고 자비로운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고독에 시달리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기분을 하느님께 진솔하게 전할 때, 하느님은 쉼 때와 일할 때, 놀 때와 기도할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고독이 피로로 인한 것이 아니면 휴식과 오락으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원인을 찾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고독은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나의 능력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심한 우울증을 앓는 몇몇 사람과 함께 일해 본 한정된 체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시험적인 결론을 끌어 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비신자보다 훨씬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우울증이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쳐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타인뿐 아니라 모든 희망의 원천이신 하느님 과도 단절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경우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 끔찍한 고통을 파고들어 조사할 수 있으면, 고통 자체가 그로 하여금 고통에서 헤어나도록 끌어 주게 된다. 일시적 방편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으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내면의 느낌은 아주 질식되어 버리고 그 결과 피해자는 탈출 통로와 단절되고 만다.

신자에 따라서는 상상을 통한 복음의 치유기적 관상이 우울증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물론 그로 인해 드러나는 사실은 대단한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자신을 우울증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바, 자기 개인의 문제가 다른 누구의 문제보다 더 절실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마저도 이를 어찌지 못한다고 하는, 그릇된 가정과 불신의 늪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은 항상 더 위대하시며, 하느님이 제거하실 수 없는 어둠이나 죄책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게 되면, 우울증은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극히 막강했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위안과 고독을 구분하면서 위안이 쾌적한 느낌에서와 마찬가지로 고통스런 느낌에서도 분출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우울 상태 속에서도 위안과 고독이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개별적인 체험이다. 실제로 나는 우울이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는 경우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를 알고 있다. 하나같이 불유쾌한 이 두 가지 상태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구별이 가능해진다. '이 기분이 나를 어디로 끌어가고 있는가? 내 존재의 깊은 심연 속에서 하느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요 피난처요 힘이심을 깨닫도록 해 주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둠과 합세하여 나를 자기 폐쇄적인 편견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분열시켜 신앙과 희망과 사랑을 철저히 차단하는 벽 속에다 잡아 가두는 끔찍스런 격리로 유인하는가?'

이런 고독의 시간에 필요한 지침은 이것이다.

5. 고독 속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상기하라.

가) 고독은 반드시 지나간다.

나) 그대가 관심의 초점을 하느님께 맞추면 설령 그분의 현존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이 고독을 통해 그대에게 가르침을 베푸신다. 그분은 말하자면 거짓된 보호막을 벗겨 내고 텅빈 내면의 공백 속에 당신을 발현시켜 그 공백을 가득 채우고 소유하려 하시는 것이다.

고독은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고독의 시간에 소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위안받을 때 내린 결정을 뒤집지만 않는다면, 으레 파괴적인 성향을 갖는 고독의 효과는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된다. 진흙이 옹기장이 손 안에 있듯이 우리가 하느님 손 안에 놓여 있다고(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사용한 심상)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흙이 빚어지지 않은 진흙 상태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생명수를 담아 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형되는 과정이 곧 고독임을 알게 된다. 고독은 말하자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깎아 내는 것이다. 이 과정이 당장에는 그저 고통스럽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느낌과 인식의 영역을 발견한다. 내적 고통을 체험하고 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적 고통을 훨씬 쉽게 감지하며, 자신이 부여받은 선물도 한결 온전하게 평가할 줄 안다. 그리고 또한 고통 속에서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심오한 내적 힘을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수난의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어둠과 죽음 속으로 강림하셨다가 또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도달할 수 있으면서 하느님의 구원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체험의 깊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고독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제시해 왔다. 다음

이 여섯째 지침은 위안을 다루고 있다.

6. 위안받을 때에는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위안이 그대의 존재에 관한 보다 심오한 진리, 즉 그대가 항상 하나님의 선과 진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알리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여되는 선물임을 알고 감사히 받아들이라. 위안 속에서 그대는 절실한 체험, 이 진리의 희미한 빛을 체득하였다. 이 진리가 고독의 시간에 그대에게 희망의 닻이 될 수 있게 하라.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평화와 고요, 기쁨과 환희 같은 느낌을 체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받아들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부여되는, 마땅히 음미하고 즐겨야 하는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파묻힌 채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진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희미하게나마 표출되는 형상이다. 뒤에 가면 위안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세부적인 구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위안이든 감사히 받아들이고, 만일 이 느낌이 우리 내면의 파괴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점을 분명하게 알려 주시리라 믿으면 된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오류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 해악 아니면 환상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끊임없는 불신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신은 그 속에 파묻혀 있는 한, 하나님의 활동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힘, 신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즐기는 것이다.

우리 대다수가 위안과 고독을 번갈아서 체험하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 정신에 여러 의식층이 존재하는 데서 비롯된다. 나는 어떤 한 의식층에서,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충만될 수 있다. 그러다가 뒤이어 나의 안전이 어떤 형태로 위협받게 되고,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스며들지 못한 의식층, 즉 무의식 속에서 무신론적 입장을 견지해 온 의식층에 도달하게 된다. 이 위기의 순간은 바로 신앙의 성장을 전하는 일종의 초대이다. 나는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보다 깊은 의식층에서 몇 년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그 결과 나는 앞서보다 더 깊은 무신론의 층을 내 내면에서 인지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곡선을 그리며 나는 작은 새처럼 전진한다. 작은 새는 언제라도 떨어질 듯 떨어질 듯하지만, 실상 날 때 하강곡선으로 나타나는 추락은 새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 전반에 흐르는 한결같은 주제는 “해답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해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셈이다. 기본 판독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 되는 지침은 이것이다.

7. 떨쳐 버릴 수 없는 끈질긴 두려움은 정면으로 맞서라.

이것은 융의 정신분석학 언어로 표현하면 “네 그림자와 대면하라.”가 된다. 두려움은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위협에 대응하는 인간의 건전한 반응이다. 하지만 두려움을 맞대면하려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밀려오고 있는 위협을 발견하지 못한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피하면, 이 두려움은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 날뛰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해독을 끼치기도 한다. 반면에 일단 대면하면 두려움은 흔히 환영으로 밝혀진다. 이 점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꿈에서 생생한 사실로 예증된 바 있다. 내게 영신수련을 받으면서 꿈 이야기를 들려 준

사람을 편의상 ‘툼’이라 부르기도 한다.

짧은 일종의 악몽으로 시작되었다. 툼은 아무 무기도 없이 캄캄한 밀림에 혼자 있었고 무서운 사람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이 지역이 ‘바다’라는 이름의 장소임은 알았지만 꿈꿀 당시에는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툼은 방어 능력이 없는 처지인지라 이 위협적인 존재들과 친해져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였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자취를 감추고, 남은 자들은 그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여행길을 줄곧 지켜 주었다. 후에 꿈을 꿈꿈이 되새겨 보는 과정에서 툼은 ‘바다’가 “네가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친해지도록 하라.”는 의미의 결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삶 속에 늘 따라다니던 두려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서 그 중에 일부는 소멸되고, 나머지는 힘의 원천으로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후렴이나 다름없이 가장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의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이다.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과 파괴의 세력을 모조리 정벌하셨다. 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행된 악과 우리가 저지른 악까지도 구원의 수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의 하느님이시다. 부활성야에 교회는 ‘용약하라’는 의미의 라틴어 ‘Exsultet’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찬미가를 노래한다. 이 찬미가에는 “O felix culpa”라는 가사가 나오는 데 그 뜻은 ‘오, 복된 탓이여’이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아담이 지은 죄, 너로써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라는 대목에서 설명되고 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대단히 좋은 방법은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두려움을 털어놓는 것이다.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고 알맞는 명칭을 붙이면 더 이상 대단한 힘을 지니지 못한다. 번민에 싸인 사람들을 방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어느 때고 전화하면 대화 상대가 되

어 주는 선도적인 단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 속에서 밤낮으로 예증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 장의 내용이 소화시키기에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끝으로 유의할 사항 하나를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위안과 고독이 스스로의 출현을 선언하게 만들고, 그대 자신의 내적 기분에 대한 자기 도취적 편견에 침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위안과 고독 둘다 일반적으로 불시에 기습하는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위안이나 고독이나 우리 내심에서 발생하되, 그 즉시 의식으로 파악되지 않는 반응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내심에서 벌어지는 일을 즉석에서 깨닫지 못하며, 위안이나 고독의 기분 역시 나중에 가서야 인식한다. 이 사실에 대한 좋은 사례가 루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이다. 두 제자는 너무 낙담한 나머지 낮선 나그네와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에게서 비범한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고 서로 말한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처음에는 비교적 분명한 위안 체험이나 고독 체험을 감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체험이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라. 수련을 거듭하노라면 그대는 내적 기분의 질을 한결 빠르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반겨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집은 항상 변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우리의 사적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북한 손님으로 입증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호 관계를 뒤엎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고 혼란한 생각을 주입하고 우리의 재산과 직업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떠나 달라는 부탁은 차마 하지 못하지

만, 열쇠로 단단히 채울 수 있는 집안 구석방에다 그분을 몰아넣고 나서 비용을 아끼지 않고 고상하게 방을 장식하는 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달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 앞을 지날 때면 공손하게 절을 하거나 무릎을 굽혀 인사하면서도 생활은 평소대로 하고, 그분이 손님 이시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강조하면서도 우리 일에는 일체 간섭하지 못하도록 잡도리함으로써, 그분을 멋있고 유순하고 편안하고 무해한 예수로 축소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장은 우리 모두 안에 내재하는, 그리스도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 같은 성향을 조명하게 된다.

실천 과제

(처음에는 ‘식별을 위한 규범’을 파악하기 힘들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다음의 실천 과제는 이들 규범을 그대 자신의 체험 속에서 파악해 내도록 도와 줄 것이다.)

1. 그대는 자신의 체험을 재검토함으로써 위안이나 고독이라 부를 만한 기분 또는 내적 느낌을 확인해 낼 수 있는가?
2. 그대는 자신의 체험 속에서 넷째 규범(157 쪽), 여섯째 규범(162 쪽), 일곱째 규범(163 쪽)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낼 수 있는가?
3. 그대의 체험을 토대로 그대 나름의 ‘식별을 위한 규범’을 작성해 보라.

9

지극히 놀라우신 하느님

Tantum Religio potuit suadere malorum.

지극히 사악한 행위가 신앙심을 촉발할 수 있다(루크레티우스).

프랑스와 독일에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수십만 명의 시신이 묻힌 거대한 공동묘지들이 있다. 그리고 독일군 묘지는 연합군 묘지는 묻힌 망자들이 “Pro Deo et Patria”, 즉 “하느님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노라고 선언하고 있다. 목숨을 바친 사람은 모두가 우리에게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일 수는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하고 따라서 ‘조국을 위한다’(Pro Patria)는 목적에서 건조되어, 여러 도시를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내고 수백만의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화력을 탑재한 핵잠수함들은, 그 안에서 미사일을 조작할 탑승자들에게 ‘조국을 위한다.’뿐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다.’(Pro Deo)는 명분까지 확인시켜 주는, 장엄 축복 속에서 진수되고 있다. 죄란 하느님을 하느님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부이다. 이러한 거부가 우리 내심에 너무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이기와 압제와 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하느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자기가 의롭게 행동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앞 장에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우리 내면에서 생성되는 악의 파괴적인 행위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지침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좀더 면밀하게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어 계신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정체가 깃들어 있다. 성바울로는 “예수 안에 사셨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면서 에페소인들을 위해 기도드린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박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느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에페 3, 16-19).

우리들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 한 가지, 하느님의 모든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느님을 손아귀에 넣고 ‘신처럼 되려고’ 하며,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우리 자신의 탐욕과 소심과 독선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장의 남은 부분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까다로웠던 앞 장에 비해서 이 장은 다소 가벼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장 역시 우리가 ‘상식’과 책임과 종교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결과 우리 시대의 남녀들 안에서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미묘한 현상들 몇 가지를 파악하도록 돕는다는 중요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편지는 복음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이 글에 실린 특정한 부분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례로 나는 성당 구내에서 책을 파는 매점을 전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독자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복음 속의 예수와 오늘날 자기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글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내 자신이 북아일랜드의 한 본당에 주임 사제로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 본다.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이 곳이 그리스도 시대에 팔레스티나를 분열시킨 침예한 종교적 정치적 충돌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본당 사제는 내 본당에 소속된 채 대영제국 내의 신학교와 몇몇 수도회에 사제 지원 신청서를 낸 한 남자의 행실에 몹시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지에서 주교와 수도회 장상이 본당 사제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 지원자에 대한 조회를 부탁해 왔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부탁이 올 때마다 이 남자가 사제직에 완전히 부적격한 인물임을 명백히 밝히는 짤막한 답변서를 보내곤 했다. 그런데도 여러 곳에서 좀더 자세한 사실 설명을 요청하는 편지가 다시 날아들곤 했다. 그래서 나는 본당 사제로서 일괄적인 답변삼아 다음과 같은 회람 서한을 보내기에 이른다.

트럼군, 포틴스툼
광장, 사제관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에 주재하시는 경외하올 추기경님,
대주교님, 주교님, 대수도회 원장님, 관구장님 제위께 올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경애하옵는 형제님들.

어르신들께 회람 서한을 보내는 무례를 아무쪼록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회람 서한을 읽으시는 데 할애하는 몇 분이 어르신들의 시간과 금전을 절약해 드리고, 아울러 수하 신학교와 수련원에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 분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의 본당에 소속된 서른세 살의 젊은이 E. 마누엘 군은 어르신네 교구와 엄률수도회 및 일반수도회에 받아 주십사 하는 청원서를 몇몇 분에게 제출하였고, 나머지 분들한테도 제출할 공산이 큼니다. 실제로 몇 어르신은 이미 저한테 조회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그가 적합한 청원자가 못 된다고 하는 저의 생각을 여쭙었는데, 자선 사업과 격무에 시달리는 나머지 짤막하게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어르신께서 보다 자세한 보고서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려 하시고 사제 성소라면 제아무리 가능성 희박한 경우라도 키워 보려 하시는 심정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죄송하오나 이처럼 어려운 시절을 맞은 저로서는 실업자 마누엘 군을 두고 편지나 쓰고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저는 힘겨운 본당 업무 외에도, 바로 이 마누엘 군을 만나고 나서 2년 내리 혈전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콜큐호운 몬시뇰을 대신하여 교구의 혼인재판 임무까지 떠맡으라는 교구장님의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가정부조차 없는데, 그 이유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누엘 군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짤막한 몇 차례의 만남이 전부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이 본당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마누엘 군은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그는 어찌다 한번씩 돌아오곤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본당 회계로 새로 일하게 된 명민하고 야심만만한 청년을 비롯하여 한때 마누엘 군과 교제하여 그를 익히 아는 사람들과 길게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마누엘 군의 부모(아버지는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가 최초로 이 본당에 온 것은 햇수로 25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로는 그들이 떠돌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물려받은 방랑벽과 이제는 정착한 집시들 사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과묵한 침묵을 특징으로 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이 소문을 한결 근거 있는 것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죽은 마누엘 씨가 사실은 마누엘 군의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는 구식 인간입니다.

마누엘 군은 십대 소년 때 부모와 공휴일 나들이를 나갔다가 자취를 감추어 3일간 실종 상태에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른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의 무단 가출은 대체로 정신이상의 징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찾아 낸 다음 물었더니 아이의 답변은 자기 아버지의 일을 보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이의 비합법적인 출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그는 필경 자신의 부정한 출생에 관해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친척들 가운데는 더욱 불길한 해석을 내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악령에 씌웠다고 믿는 실정이나까 말입니다.

마누엘 군은 이야기할 만한 정식 교육은 전혀 받은 바 없고, 어린 시절에 소목장이 아버지한테 일을 배웠을 따름입니다. 청년 시절의 그는 제멋대로 방랑하면서 소일하였고 많은 시간을 이상할 만큼 조용히 지냈는가 하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지독한 달변과 매혹적인 기품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점하는 경박한 사람들을 쉽사리 속여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그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여행길에 올랐는데, 가끔가다 돌아올 때면 혼자 오기도 했지만 대체로 불미스런 패거리를 몰고 왔습니다. 그 패거리 속에는 좀 모자라는 치들 외에도 이름난 폭력배와 강도, 매춘부가 여럿 끼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안다는 말이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는 마누엘이 시골 미치광이 하나와 결탁하여 수많은 돼지떼를 야에 때죽음시켰다는 제소가 있었습니다. 시골 농사꾼이 법원에 제소한 이 고소 사건은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둘이서 돼지떼를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 속에 밀어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신학도 속세학문도 정식으로 교육받은 바 없는 마누엘은 현재 전도

자를 자처하면서 자신과 하느님에 관한 기상천외한 주장을 펴고 다닙니다. 그의 신학적 주장이라는 것은 미국 서해안 지방에서마저도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것입니다.

지난 20년에 걸쳐 교회의 몇몇 집단을 잠식해 온 어리석은 관용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일입니다만, U.C.M.(가톨릭 자모연합회)과 성골롬바노 기사회가 합동으로 마누엘 군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적도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마누엘 군이 이들 단체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의 강연은 관용주의에 대한 훌륭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 청중에게 범죄자와 창녀가 그들보다 먼저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한 어떤 본당의 사도회에서도 그를 초청해다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는데, 강연을 끝내고 용케 살아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 그로서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개신교도와 이방인이 그 사람들보다 하느님 가까이 있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소동이 일고 몹시 불쾌한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성이 의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다가 그처럼 엄청난 분노와 소란을 야기시킨 자라면 과연 어떤 정신의 소유자일 것인지 어른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맨 처음 본당에 부임하여 마누엘 군의 소행을 전해 들은 저는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패거리를 빼고 본인 한 사람만 불러서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선구자적인 도덕가요 교구 혼인재판소 소장이신 쿨쿠호운 몬시뇰을 비롯한 지역 성직자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모인 성직자들은 마누엘 군이 도착했을 때 합당한 예절을 갖추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에 읍내에서 소문이 자자한 여자가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와, 시종일관 감상적인 기분과 병적

인 흥분 상태 속에서 마누엘 군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넉넉히 짐작하시겠지만 모인 좌중은 어이가 없어 멍청한 상태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누엘은 철면피하게도 성직자인 우리의 격식 있는 환대를 여자의 찔끔거리는 하소연조의 심경 토로에다 비교하면서, 나한테 대고 우리 쪽의 대접이 미흡했다는 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여인에게 자기를 믿은 까닭으로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공언하는 만용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에 콜큐호운 몬시뇰께서는 자리를 뜨셨고 이어서 심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마누엘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덕분에 콜큐호운 몬시뇰의 무거운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뿐 아니라,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가정부마저도 개인적으로 여자를 초대한 적이 없다는 내 진술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믿어진 일이 꽤썩해서 못 참겠다며 떠나 버렸습니다.

마누엘은 공터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끔씩 소풍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업자인데도 음식을 한정 없이 구입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적어도 한번은 술도 사들여 아무렇게나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임은 종교의식이라기보다 잔치 같은 성격이 짙습니다. 한번은 그가 무례하게도 남은 음식 일부를 사제관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도둑질한 장물이 아니라고 믿을 길이 없는지라고 교구 윤리학자와 상의한 연후에 초교회적 행동의 일환으로 구세군에 넘겼습니다.

설교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의 유창한 언변과 성구를 둘러대는 능력은 소박한 신자들의 정신에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그들의 종교 생활 및 윤리생활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성직자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누엘 군은 자신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기가 “독사의 족속”이니 “회칠한 무덤”이니 하는 딱지를 붙인 사람들에게 소박한 신자

들이 존경심을 갖고 복종하리라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바, 이 아빠는 마누엘 자신의 친구 부류들, 즉 범죄자와 창녀를 찾아 나서는 데 시간을 소모하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주일 의무가 법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이 지방 전역에서 주일을 지키는 신자수가 격감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정세가 폭력적이고 복잡 미묘한 데도 그는 어리둥절할 만큼 고지식합니다. 우리가 갈라진 시련의 땅에서 결속된 힘을 보전하자면 가톨릭 몸체 내부에 응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의 가르침은 이 지역의 그리스도교 종파들을 갈라 놓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차별성을 무시한 채, 사람들의 관심을 윤리 신학의 엄연한 실체와 교도권의 규정으로부터 모든 사람 —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성화하는 우리입니다 — 을 다 사랑한다는 “아빠” 쪽으로 돌려 놓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 불개입을 주장하면서 영국군의 폭력이든 아일랜드 공화군이나 U.D.A.의 폭력이든 모든 폭력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빠”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평화를 가져오는커녕 모든 분파를 다 위협함으로써 분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그에게 정치적 야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는 각 파벌의 저명 인사 몇 사람을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폭로된다면 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묘한 정치 정세 속에서 경솔하고 분별 없는 발언은 폭탄이나 다름없이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마누엘 군은 걸어다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E. 마누

엘 역시 난폭한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아주 최근 들어서 그는 대성당 구내에서 매점과 책 판매대를 뒤엎는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체포 사유도 충분하지만, 그는 도망가서 숨어 버렸기 때문에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불안한 점은 그가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름 아닌 그의 친척 가운데서 서슴없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 들린 남녀와 교제해 온 것이 분명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현재 흔들릴 줄 모르는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악령 들린 사람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힘까지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가면 그는 불잡혀 구속될 것이 뻔합니다. 그를 장기간 격리시켜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죄목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가 뱀처럼 교활한지라 이 지방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골치 썩일 짓을 계속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편지가 너무 길어진 점을 어르신 제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편지를 올리지 않는다면, 사제직 성소가 전반적으로 매우 딸리는 시절인지라 어르신들 가운데 몇 분께서는 이 사람을 키우는 데 시간과 금전을 허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얼핏 보면 대단히 그럴싸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만일 신학교나 수도회가 분별 없이 그를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엄청난 해독을 끼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 어르신께서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교구와 엠룰수도회 및 일반수도회에 훌륭한 성소자가 갈수록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어르신들께 충직한

포틴스툼 본당 사제, P. 시몬, DD

나는 이 편지를 작성하면서 P.시몬의 눈먼 인격상의 결함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의 결점 여러 가지를 새롭게 감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의 좁은 소견과 편협된 행동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데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기만을 저지하자면 교회의 제도적 요소와 비판적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교사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도록 간청하는 것뿐이다. 복음의 장면을 토대로 하는 상상적 관상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감지하는 데 더없이 소중한 수단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당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때, 우리는 예수를 우리 삶 속에 맞아들인다기보다 우리 집을 통째로 그분에게 넘겨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성찰이 두 장에 걸쳐 기술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독자가 상상을 통해 복음서 속의 그리스도를 관상함으로써 독자 나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돕자는 데 있다. 이것이 독자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최선의 방법이요 또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천 과제

복음서들 가운데 하나를 정성스럽게 봉독한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환대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배척하는지 묘사하는, 편지나 산문 또는 잘못된 이야기 형식의 글을 지어 보자.

40

그리스도를 아는 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필립 3,8-9).

사람은 상상력을 활용하여 복음서의 장면들을 관상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에게 곧잘 놀라게 된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평범한 분으로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익살을 떨거나 짐마차를 끄는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처럼 놀라거나 충격을 받기도 한다. 놀람은 놀라우신 이들의 하느님 모상을 지니신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다는 표지이다. 성요한은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요한 1, 11)고 기록하였다. 이 말은 그분이, 영광에 싸인 권능의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의 기대치에 영합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분의 인성이 흐려지고 우리 또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간성 속에서 그분의 인성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셨을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분의 신성은 인성을 위축시키는 일이 결코 없고 반대로 완성시킬 뿐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느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야 했고, 평생에 걸쳐서 믿음을 키워 가야 했고, 사랑과 기쁨, 두려움과 공포 같은 감정을 체험했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었고,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로에 젖고 유혹을 받는 등, 굴레와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보는 것이 복음을 봉독·관상하기 위한 첫번째 지침이 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그 인성을 통해서만,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체험을 거쳐야만 그분의 신성이 지닌 의미의 파악에 착수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 즉 우리의

인간성 바깥이 아닌 그 내부에서 우리와 만나고 계시며, 당신 자신은 가장 본질적으로 계시하시는 모습도 우리네 공허 속의 현존이요 우리의 고독 중심부에서 생활하시는 동반자로서의 당신이다. 우리의 인성은 소중하다. 하느님이 친히 취하셨을 만큼 귀중하다. 이 같은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둘째 지침이다.

우리는 복음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제 무엇을 읽든 간에 우리의 자화상을 대하고 있는 것도 된다. 우리가 되도록 부르심받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초대 교부 가운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행실의 귀감이 아니시며, 본래부터 그러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오감이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로마 8, 11). 우리는 복음 장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시함으로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우리더러 되라고 부르신 존재, 즉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렵게나마 파악하기 시작한다.

이 장의 나머지는 셋째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접근하는 열쇠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책 서두에서 유추한 바대로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은 우리 자신의 삶이며 보물은 우리의 내적 자아, 즉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자아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서와 성서에 대한 자신의 이해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인다. 하지만 이 교회의 역할은 파야 할 밭자리를 알려 주고 이어서 보물이 담긴 금고를 보여 주는 사람의 역할과 같다. 보물은 우리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적 자아 속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교회나 교회안의 그 누구도 우리 대신에 금고를 열어 보물을 꺼내 보일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저마다의 은행 창장

번호를 갖고 있는 셈이다. 기도가 비교적 신심 깊은 그리스도인이 임의로 택할 선택 사항이 아닌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본질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회 안에서 신비적 요소가 강조되지 않고 기도가 배제된다면, 우리는 보물상자를 지독하게 애지중지하면서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보물을 누리지는 못하는 수전노와 같다. 보물상자 속에는 오래된 뼈다귀가 가득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보물상자를 지키고 간수하고 소중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옳은 경우도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잘못된 경우는 우리가 내용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물상자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된다고 믿도록 조건지어져 있으면서도 내용물을 검토하라는 말을 들어 본 적도, 그럴 필요성을 느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이런 오류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교회간의 분열에 근본 뿌리 구실을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무감각, 탐욕, 권력욕, 안락과 자존심 숭배에다 내려붙이는 상표로 전략해 버리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도전이나 비판에 직면하면 상대방의 면전에다 그리스도라는 상표를 흔들며 보이면서 너희가 비정통적이다, 이단이다,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다 하면서 겁을 주고 우리와 하느님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망쳐 놓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실제로 오늘의 교회 내부에 일고 있는 실질적인 분열은 그리스도교 종파들간의 분열이 아니라, 보물상자를 열고 보물이 제공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밀폐된 상자 위에 절터앉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생활의 조짐을 보이는 이들을 경고하고 백안시하고 단죄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나타나는 분열이다.

셋째 지침은 우리에게 보물을 열어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제조한 우상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상표를 붙이고 숭배하는 위험에서 지켜 줄 수는 있다. 이 지침은 그리스도와 그분 아버지와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야말로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통일성과 응집력을 부

여히며,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통일성과 응집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서른 해를 사실 때까지 직접 하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부모와 같이 엇갈려 3일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루가 2, 49)이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중에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루가 22, 42) 하는 말씀이 들어 있다. 그분은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루가 23, 46)고 기록되어 있다. 마르코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최초 말씀도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이다 - 여기에서 ‘나라’는 당신 아버지의 주권을 의미한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식,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자세, 사람들에게 배운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모두는 그분과 당신 아버지와의 상호 관계를 함빡 머금고 있다.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리듯이,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이, 빛이 어둠 속을 퍼져 나가듯이, 당신 아버지께 대한 지식은 그분의 존재를 가득 적시고 있다. 그분은 참새든, 들의 백합이든, 심거나 거두는 곡식이든, 키우는 양떼든, 나무 열매든, 풍경이든, 사람의 얼굴 표정이든, 구름의 빛깔과 모양이든, 입는 의상이든, 사회 관습이든, 정치 세계나 경제 세계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당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바라보신다.

그렇다면 예수는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불운에 대한 답변은 그분이 사용하신 비유들을 음미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비유는 그분이 바라보고 평가하시는 방법들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당신 아버지가 왕으로 계시는 하늘 나라의 표상으로 삼기

사용하신 것 하나가 잔치요 결혼 축제이다. 이 왕은 원래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자 종들을 보내서 한길에 나가 눈에 띄는 사람이면 ‘좋은 곳든’ 모두 초대하게 한다. 루가복음을 보면 종들은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데려 온다. 그래도 왕은 만족하지 않고 말한다.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복음에 제시되고 있는 아버지는 가진 것을 되도록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선하디선하신 하느님이다. 이분의 분노를 사는 유일한 인간은, 여러 비유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당신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이다.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한테 어리석을 만큼 관대하여 마치 아들보다 더 낭비가 심한 분처럼 제시되고 있다. 가족을 망신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받아 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관용을 베푸는 셈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노심초사하다가 멀리 오고 있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포옹한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겹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 주는가 하면 심지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인다.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엄청난 낭비로서, “양극단 중간에 덕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언에 따라 양육된 만큼 분별 있고 신중하며 자기 억제를 잘 하는 우리로서는 냉철한 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형을 전적으로 편들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큰아들이 면전에서 화를 낼 때에도 이 아버지는 헤폰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아혼아홉 마리 양을 버려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버지 역시 어리석은 낭비벽을 지닌 분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시정한답시고 안전한 양 한 마리한테 관심과 정열을 온통 기울이면서 아혼아홉 마리는 버려 두는 일이 비일

비재하지만,

이 아버지는 또한 재정 면에서도 무분별한 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분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일만 달란트를 채무자의 빚만 들고 전액 탕감해 주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남한테서 몇 푼 안 되는 빚을 강제로 회수하려고 하자 버럭 화를 낸다. 이분은 이런 불의한 빚쟁이나 또는 라자로가 자기 집 문간에서 굶어 죽어 가고 있을 때 안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부자 같이 야박한 자와 인색한 자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이분은 금전에 관해 너무도 무분별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 부정을 묵인한다고 비난받아도 쌀 정도이다. 약삭빠른 청지기가 곤란한 입장에 놓이자 왕한테 빚진 사람들의 장부를 변조해서 미리 친구를 확보해 둔다는 비유를 보면 그렇다. 여기에서 왕은 이 청지기의 부정한 행실을 칭찬하고 있다. 온종일 일한 일꾼과 일이 끝날 무렵에 와서 잠깐 일한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는 처사도 금전 문제에 전혀 무분별한 소치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말은 달란트를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아온 주인에게 돌려 주는 신중한 종은 단죄를 받고, 위험한 투자로 달란트를 불린 두 종은 칭찬을 듣는다.

이런 비유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아버지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꼐줄 모르고 낭비벽이 있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우리 세계에서 그분 같은 가치관으로는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로 나타낼 때 그분의 표현에 해당하는 예수, 즉 그분의 ‘말씀’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낭비벽을 드러내고 있다. 이분은 가나에서 물경 180 갈론(대략 900 리터)이나 되는 포도주를 빚어 놓는데, 이것은 잔치가 파장에 이른 마당에서는 터무니없이 많은 필요 없는 분량이다. 이분이 오천 명에게 먹을 것을 장만해 줄 때에도 음식이 열두 바구니나 남았다. 금전에 대한 이분의 무분별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상의 자를 뒤엎고 장사꾼을 쫓아 낸 후로 당신의 최종적인 몰락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이상은 우리의 시각이다. 그리스도는 당신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시는 까닭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지위나 신분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 지칭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몇몇 주해가에 따르면 ‘보통녀석’ 또는 스코틀랜드 말로 ‘평범한 뱃사공’에 해당하는 아람어 방언의 번역이다. 인간으로서 그분의 존재는 하느님 자신의 존재를 반영하는 영상이다. 따라서 그분 스스로가 ‘아버지를 위한’ 존재로 자처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본질인 만큼, 우리 눈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분’으로 비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 본질적인 특성은 최후만찬 기사에서 더없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 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요한 13,3 이하).

바로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하느님의 행위, 즉 발을 씻겨 주시는 하느님의 행위이다. 그리스도는 이 행위 속에서 봉사의 본보기만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분은 극구 사양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부여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벗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

이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4-15).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최후만찬 기사를 보면 그리스도는 빵을 많이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신다.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인간 예수 안에서 표현되는 아버지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시는 생명이자 —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는 말씀은 예식을 집전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요 따라서 아버지의 삶이기도 한 나눔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수용하라는 요구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받쳐 주는 지주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자기방어와 자기 보호와 자기 성장의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 왜냐하면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께서 우리 존재를 몽땅 점유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최후심판 묘사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생활화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마태 25장). 반면에 낙오되는 사람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의무를 제아무리 빈틈 없이 준수하고 신앙적으로 철저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화를 입는다.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 치워라.

거문고 가락도 귀찮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아모 5,21-24).

성바울로는 종교적 의무를 지키면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속의 유치한 원리들을 버렸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이것은 집지 말고 저것은 맛보지 말고,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따위의 규정에 묶여 있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한번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으로서 인간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골로 2,20-23).

성바울로의 글에 나오는 ‘육체’는 하느님에게 반발하는 우리 존재의 영역 일체를 뜻한다. 회심하기 전에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철저한 금욕생활을 한 바울로는 후에 자기가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을 영위해 왔노라고 술회한다.

복음 속의 예수는 어떤 인간보다 온유하고 이해심과 자비에 충만한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비타협적이기도 한 분이다. “하느님과 재물(맘몬)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루가 16,1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마태 12,30). 그리스도교 전승 속에서 삶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간의 전쟁, 하느님과 맘몬간의 전쟁, 우리 모두가 좋은 삶든 참가해야 할 뿐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한 전쟁으로 간

주되고 있다. 하느님의 삶은 베푸는 삶이요 타자를 위한 삶이다. 반대로 맘몬의 삶은 타자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보존을 꾀하는 삶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거짓 신 맘몬의 정신은 악마 또는 사탄으로 인격화되고 있다. 이것은 허울 좋고 그럴 듯한 빛의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의미로 루치펠이라 불리우기도 하지만, 심오한 이를 “저것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에서 공생활에 착수하신 그리스도를 관상하기 위해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묵상”을 제안한다. 그는 이 묵상을 대단히 중시하여, 수련에 임하는 사람에게 하루를 할애하고 한 번에 한 시간씩 세 차례에 걸쳐 도합 세 시간 동안 이 한 가지 묵상을 계속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개의 깃발이란 ‘사탄의 깃발’과 ‘그리스도의 깃발’을 말하는데, 묵상에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나시오는 피정자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이미 선택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묵상은 피정자가 ‘인간성의 제일가는 원수’인 루치펠이 선의 형상으로 가장한 채 획책하는 음흉한 세상 파괴 음모를 보다 깊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혹자는 악마/사탄/루치펠이라는 낱말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런 낱말을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끔찍한 파괴성만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파괴성은 점잖고 은근하고 정중하며 때로는 경건하기까지 한 낮빛으로 파괴들어 와서, 한동안은 조용하고 평온하게 힘은 축적한 다음에 마침내 흉악하고 파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몇 년 전에 나는 중거리 탄도탄 핵잠수함들이 주둔하는 스코틀랜드 하이록을 거닌 적이 있었다. 아름다운 오월이라 수표면은 하늘과 산이 반사될 정도로 잔잔했다. 다만 수면 바로 밑으로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는 핵잠수함의 잠망경 때문에 생기는 잔주름이 눈에 띈 뿐이었다. 이 풍경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 세계의 안팎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훌륭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표면 바로 아래에는 포탄 한 발로 전주민을 몰살하고 생존자는 불구로 만들어 끔찍하게 괴롭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상처를 안겨 줄 엄청난 파괴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개의 깃발” 묵상에서 이나시오는 악의 심상을 표현하면서 루치펠이 바빌론 별판의 안개 자욱한 옥좌에 앉아 있고, 그가 “어떠한 지방이나 장소를 막론하고 또 어떠한 신분도, 즉 어떠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빠짐없이” 망라하도록 세상 전역에 파견하는 작은 마귀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작은 마귀들은 모든 인간을 세 가지 단계를 거쳐 후려 내도록 저지른다. 우선 인간이 부귀를 탐하도록 가르치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영화를 사랑하게 유도하며, 끝내는 오만의 높에 빠져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부는 그 자체가 악이 아니며 영화나 사회적 지위 내지 신분 역시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다. 이런 것들 자체는 선익한 것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부는 축적이 아닌 나눔을 위한 것이요 영화와 권세는 그릇된 자존심을 키우기 위함이 아닌 타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봉사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귀와 영화는 우리의 우상, 우리의 맘몬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혹자나 적자라는 은행 잔고에 따라 좌우되고 또 우리가 받는다고 상상하는 존경이나 경멸에 따라 좌우되어 버린다.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국가로서의 우리는 사탄의 깃발이라는 표상 속에 갇혀 있는 진리 및 사탄이 ‘인간성의 제일가는 원수’라 불리우는 까닭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상의 부귀는 하나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면서 우리가 자신과 남들을 본래의 가치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시장성 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파괴성

이 스며든다. 우리 모두는 영화를 누릴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소중히 알고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서 소유하는 부나 행사하는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까닭에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경시받고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되며, 본인이 강한 내적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할 경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해 버린다. 오늘날 영국 실업자의 자살률은 대단히 높다. 부요한 자는 부를 과시하고 권세 있는 자는 신분을 빼기지만, 이 역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소치이다. 개인으로서, 국가로서, 우리는 부와 명성에 지나치게 빠져든 나머지 이것이 생명 그 자체인 양 매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와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 학살과 멸절의 위험까지도 불사하는 등 무슨 짓도 하게 된다. 그런 만큼 악령이 ‘거짓의 아비’요 ‘인간성의 제일가는 원수’라 불리우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맘몬’과 부는 비단 금전과 재물의 소유를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갖가지 우상, 우리의 찬미와 공경과 숭배의 초점이 되는 온갖 조물을 표상하기도 한다. 맘몬은 우리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맡기는 어떤 이념이나 ‘주의’(主義)가 될 수도 있다. 옳든 그르든 내 나라, 애국심이 맘몬이 될 수 있고,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이 맘몬이 될 수도 있다. 신앙의 실천 방식이 맘몬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특정한 구조나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정형화에다 온 정신을 쏟고, 이들 구조와 형식을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온존시키는 일을 신비와 사랑의 하느님 — 이분 앞에서 인간의 모든 조직 체계는 시한적인 것에 불과하다 — 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보다 중요시하는 경우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자들 앞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두 개의 깃발” 묵상에서 이나시오가 연기 자욱한 옥좌에 앉아 있

사탄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들판에서 벗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름답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고 거기에서 가장 내밀한 욕구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에게 끌리는 힘을 느껴야만 부귀와 영화에 냉담하고 초연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나시오는 사탄이 부하 마귀들을 온 세상에 파견하는 것으로 묘사한 데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벗들을 ‘모든 지위와 처지의 사람들’한테 파견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는 왕이 종들을 보내서 한길과 골목길로 나가 만나는 사람이면 좋은 나쁜든 모두 초대하도록 만드는 혼인 잔치 비유를 연상케 하고 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벗들은 첫째로 모든 사람이 지극히 고귀한 영적 가난에 매료당하되 하느님의 요구가 그러하다면 실질적인 가난에까지 끌려 들도록 만들고, 둘째로 모든 사람이 세상의 경멸과 모독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갈망하기까지 하도록 만든다. 이유는 가난 및 세상의 경멸과 모독이 다른 모든 덕의 근원인 겸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얼핏 읽으면 가난과 모독과 경멸을 통해 겸손으로 인도한다는 그리스도의 계획은 아주 매력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적 가난이란 하느님을 자신의 반석이자 피난처요 힘으로 굳게 믿는 까닭에 창조계의 그 무엇도 하느님에게서 자기를 떼어놓을 수 없게 만드는 마음과 정신을 뜻한다. 영적 가난은 그리스도와 그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한 단면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다. 그리스도는 당신 아버지의 삶 속에 철저히 뿌리박고 안착한 까닭에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라.”),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권력을 쥐고자 하는 욕망(“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사로잡지 못했다. 성바울로는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필립비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 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필립 4, 12-13).

영적 가난은 망설임과 소심, 자기 경멸과 호느적거리는 비굴과는 정반대이다. 영적 가난은 아무것에도 소유당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소유요, 하느님의 창조물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이를 즐기고 향유하는 능력이며,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발견이다. 영적 가난은, 곧 영적 자유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 3). 이 첫번째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의 산상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요지요, 그분 가르침의 골자이다.

실질적 가난이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강요되는 물질적 결핍으로 이해될 경우,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며 따라서 저지되고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이 세상의 부는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세계 절반이 겪고 있는 물질적 빈곤은 충분한 식량과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영적 가난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영적 가난이란 하느님의 선과 자비와 관용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도록 만들고, 물질적 빈곤에 대항하여 싸우고, 물질적 빈곤을 유발하는 것이면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됐든 정치·경제 체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적 이기심과 탐욕이 됐든 모두 저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표지로 재물을 소유하는 법적 권리 인체를 포기하도록 부름받는 사람이 있다. 엄물수도회와 대부분의 일반수도회에서 수도자는 모두 실질적 가난을 서원한다. 이는 수도자 개인

이 사적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모든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는 공동 소유가 수도자 개개인에게 오직 부유한 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재물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가난을 서원한 사람은 물질 빈곤을 경감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다. 만일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서원한 실질적 가난이 더 이상 영적 가난의 표현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하느님의 선과 자비와 관용의 통로로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물질적 빈곤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하셨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기 때문에, 물질 빈곤을 의미하는 실질적 가난을 체험할 소명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자진해서 감수하는 물질적 가난은 당사자를, 자진하여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한결 깊이 끌어들인다.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나눔으로 바뀌어 가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속에서 보다 진실된 삶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엄청난 불의와 억압에 시달리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종류의 가난을 심화시키도록 부르심받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타 교회가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인간이 아닌 가난한 사람을 일차적 관심 대상으로 삼고 모든 사목과 사업을 수행하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재물의 소유에 초연하기는 비교적 쉽다. 여기에 비하면 이나시오가 말하는 “영화”에 대해서 마음으로 가난해지기는 훨씬 더 어렵다. 이나시오가 말하는 이 “영화”는 하느님과 영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관념을 포함한 관념들과 인기, 사회적 신분, 육체의 건강, 힘, 아름다움, 지성, 자격, 업적 등 그릇된 자존심에 일조할 수 있는 일체의 것들을 망라한다. 이 같은 “영화”로 대표되는 온갖 것이 공격받을 때 느껴 오는

아픔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만큼 영화에 매달리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홀쭉한 존재로 평가받지 못할 때 짓구겨지는 !: 김을 받는 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방어벽이 공략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자기 보존본능 전체는 힘을 규합하여 자신이 내밀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해 오는 공격을 격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것은 실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자기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그릇된 관념인 것이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즉 재물 소유에 대한 애착이 우리 스스로 파는 무덤 구덩이에 비유된다면, 자존심에 대한 애착은 피부에 생겨나서 거북등처럼 딱딱하게 살갓을 죄어드는 단단한 딱지에 비유될 수 있다. 무덤 구덩이를 메우는 일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데 반해서 딱지들을 제거하는 일은 살을 깎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동반한다. 이런 딱지가 생겼는지, 생겼다면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를 알아 내는 아주 좋은 방법은 “생활 속에서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다. 아픈 곳이 탐지되면 그 원인 또한 알아 낼 수 있는 법이다.

내게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적 비판을 관심 있게 경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무능하고 성질이 고약스럽고 주변 사람에 비해 별로 지성적이지도, 감성이 예리하지도, 강하거나 아름답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라면 나는 구태여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 주시고 나는 그분의 눈에 소중한 존재이며 그분의 권능은 내 약함 속에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내 약함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과 하나 되도록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부르심받고 있는 것이 내 진정한 정체요 가치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제노아의

성녀 가타리나는 언젠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휴식이자 기쁨이요 생명이며, 그릇된 이기심은 한결같이 피곤이요 슬픔이며 우리의 참된 자아를 죽이는 살아 있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되는 체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말 속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은 성모의 환희에 찬 외침 그것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루가 1, 46-48).

영적 가난은 사람을 겸손으로 이끈다. 겸손(humility)은 ‘땅’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humus’에서 유래된 재미있는 낱말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 사물을 바라보는 진실된 감각을 지니는 것, 하느님의 거처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은 온갖 형태의 내적 예측에서 벗어나는 자유요, 하느님의 창조계 안에서 고통을 감지하면서도 웃고 즐거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겸손이란 별별 기는 비굴이나 망설임, 자기 혐오나 어릴 적의 순종과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복음서 속의 그리스도를 읽고 관상하는 데 항상 필요한 셋째 지침이 나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마음의 가난을 청하는 기도가 항상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가난을 내려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열어 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 나라는 사람이 밭에 갔다 뿌리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마태 13, 31).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늘 나라의 성장은 느린 속도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라, 이 겨자씨가 발아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마음의 가난을 구하는 기도, 꾸준하고 성장이 별 볼 것 없다는 생각에서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영적 발전에 정신을 파는 것은 거짓된 자아를 드러내는 건전치 못한 표지이다. 우리의 잘못은 실재하는 것이든 상상 속의 것이든 하느님이,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힘이시라는 진리를 보다 확연하게 깨닫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바울로는 이 진리가 주는 기쁨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 38-39).

이 장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지침을 살펴 보았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야만 어렵듯이나마 그분의 신성을 알 수 있는 만큼 인성을 취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관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르심받고 있는 만큼 복음서 속의 그리스도를 주시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장의 대부분을 할애한 것은 셋째 지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 고찰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핵심적인 특징인 그분과 아버지와의 관계였다. 이 관계는 나누는 삶과 타자를 위한 삶을 통한 그분의 인간 관계 안에 표현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동일한 생활 양식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에 주목할 때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 즉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 이것은 다른 인간과 함께 나누는 자비로운 삶으로 표현된다 — 대 우리와 mammon과의 관계가 벌이는 충돌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은 성이냐시오의 “두 개의 깃발에 관한 묵상”을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가난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셋째 지침에 도달하였다. 그분의 가난 정신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의 보물인 그분의 현존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실천 과제

다음은 상상적 관상에 알맞는 복음 말씀들이다.

유아기와 은둔생활

루가 1,26-38 : 마리아께 전달되는 아기 출산 소식,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대와 내 안에서 태어나고 계신다.

루가 1,46-55 : 마리아께서 가난 가운데서 맛보시는 환희.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루가 2,1-20 : 그리스도의 탄생.

루가 2,22-35 : 예수가 성전에서 봉헌되고 시므온이 예수를 팔에 안고 예언한다. 이 예언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

루가 2,41-52 : 예수를 성전에서 찾아 낸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이는 가장 완벽한 가족 사이에서조차 소동을 야기시킨, 그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주제이다.

공생활

마태 3,13-17 : 예수는 집을 떠나 요르단 강으로 향하신다. 그대도 예수와 함께 걷도록 하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그대도 함께 세례를 체험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 4,1-11 :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다. 그분이 당하는 유혹은 그대가 당하고 있는 유혹이기도 하다.

요한 2,1-12 : 가나에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다.

루가 4,16-30 : 예수는 나자렛에서 처음에는 환대받으나 곧 이어 배척당하신다.

요한 1,35-51 : 초대 제자들을 부르신다.

루가 5,1-11 : 베드로를 부르신다.

루가 11,1-13 : 기도하시는 예수.

루가 6,17-49 : 설교하시는 예수.

루가 10,38-42 : 벳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 마르타와 마리아.

요한 4,1-42 : 예수와 국외자 - 우물가의 여인.

마태 14,13-21 :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다.

마태 14,22-33 :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다(물은 혼돈과 파괴의 세력 전부를 상징한다). 예수께서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고 타이르신다. 그러면서 “오너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그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게 하라.

어두운 우리에게 여명이 되게 하라.

진홍빛 쇠초롱에 담긴 동방이 되게 하라.

(G. M. 홉킨스, “독일땅의 난파”)

상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수난당하는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대체로 머리 속이 텅 비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가까운 슬픔을 맛보거나 한다. 그들의 어려움은 매우 상이한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즉 수난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함께 나누는 체험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수난을 관상할 때는 다른 복음 사건을 관상할 때처럼 바로 이 순간에 수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듯이 장면 속에 몰입하도록 한다. 그대는 처음으로 광경을 목격하게 된 사람처럼 기여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요 나자렛 출신의 목수 아들 그리스도와 대면하게 된다.

우리는 그릇된 하느님상을 지니고 하느님을 괴상한 조지 아저씨로 볼 수 있듯이, 유사하게 왜곡된 관념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주제로 하는 설교나 가르침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지극히 끔찍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만족을 모르는 하느님의 복수욕이 — 옹보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단말마적 고통을 겪으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흘리게 하고서야 비로소 누그러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주입받으면 자기도 고통으로 아버지를 달래야 하며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께서 그만큼 더 행복해 하신다는 결론을 내려 버린다. 실제로 어린이까지 포

함시켜 가면서 강도 높은 고통을 당하는 데 주력하는 남녀를 성인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같이 거짓된 하느님상을 굳히는 성인전이 있다. 이런 성인전에 나오는 남녀는 일상생활이 강요하는 고통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몸에 채찍질하고 켄기돌 속에서 구르고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시편을 낭송하고 잠은 잠깐 눈만 붙이되 맨마루에서 자며 극히 소량의 빵과 물로 생활하는 등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 이 같은 행태는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고 그만큼 아버지께 기쁨을 드린다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 준다. 그 결과 우리 여정의 방향은 “삶이 너에게 최대한 힘겹고 고통스럽도록 만들어라. 매사에 네 자신을 철저히 거부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느님을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된다.”는 어리석은 규정으로 위축되어 버린다. 프레드가 그려 냈던, 가나에서 길다란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손에 깃발을 든 채 등받이 높은 의자에 곧추앉아서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같은 종류의 그리스도상이요 하느님상이다. 이런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모습은 결국 악몽이요 ‘기쁜 소식’이 아니며, 사람을 악화시키고 위협할 뿐 힘을 불어넣고 위안을 주지 못하고, 종교적 정신 분열증을 유발할 뿐 하느님 사랑을 창출시키지 못한다.

이처럼 기형화된 수난관은 마땅히 피해야 할 악인 고통을 신성화한다. 고통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 고통의 결과는 통상적으로 파괴를 낳는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뜻이 모든 고통을 피동적으로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소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속세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에서 비롯되는 불의와 압제와 기만에 제물 노릇을 하면서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악에 항거하지 않고 악과 결탁하는 소행이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온 힘을 다해 악에 대항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힘겹더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항

거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믿는다.

인간으로서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관상할 때,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인성과 그 인성이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도록 청해야 한다.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존재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하느님은 내 고통 속으로,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하느님이다.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당신의 신성을 한쪽에 접어 두고 친히 종이 되신 분이시다(필립 2, 6-7 참조).

예수는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활화하셨으며 아버지의 자비와 은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쏟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온갖 형태의 불의와 억압에 대한 아버지의 증오와 분노 등을 증거하셨다. 아버지의 선을 대변하시는 예수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예측시킴으로써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위협하셨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불의와 거짓을 목격하고 아셨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하찮은 종교 법규와 규정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강요하고 그 결과로 당신 아버지의 얼굴이 가면으로 가리워지게 되었음을 아셨다. 예수는 이 같은 악폐를 수동적으로 묵인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셨다.

그 결과 그분에 대한 반발, 죄악의 반발,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도록 가만 두지 않는 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모든 반발을 잠 재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마태 26, 53)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적들을 박멸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위선

을 나무라시고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시되,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가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고통을 손수 걸머지신다. 누적된 온갖 악과 증오, 탐욕, 인간의 잔인성이 힘을 규합하여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께 덤벼든다. 바울로는 말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다.”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선이 서로 마주친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그리스도는 스스로 소화해 내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드리신다. 인간의 죄가 최고로 맹위를 떨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찢린 옆구리로 흘러 나오는 피와 물로 응답하신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증오보다 훨씬 커서 결국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요 기쁨이다. 악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하느님과 맞서고 하느님에게 최악의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으나, 하느님은 사랑을 통해서 이 악한 행위를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다.

우리는 수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관상할 때 단순히 이제는 지나 버린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느님, 우리의 어둠과 나약과 죄악 속을 파고들고 우리의 증오와 절망 안에 뛰어들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느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망으로 망가진 시신을 관상함으로써 지금 내 존재를 받쳐 주고 계시는 하느님, 나를 추적하여 내 어둠과 폐허 속까지 뛰어들어서 이를 함께 나누시고, 내 죽음에서 생명을 출현시키시는 하느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 고통이든 간에, 즉 육체의 질병이나 절망 혹은 자신 스스로 초래한 피해나 타인에게서 입은 피해로 인한 고통이든, 하느님의 연민과 자비와 사랑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고통이든, 능히 수용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 수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만나며, 그분의 현존 및 절망에서 희망을 창출하시는 그분의

치유능력을 깨닫게 된다.

수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이 고통의 고결성과 강도를 관상하노라면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래서 그분의 수난을 함께 나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쑥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고통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척시키는 데 삶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와 영화와 권세라는 우리 나라를 건설하려다 실패한 좌절감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실감하는 열등감에서, 육체적 연약성이나 정신적 나태에서, 기질상의 결점과 고독과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한다는 무력감에서, 애처로울 만큼 평범할 뿐 영광도 영웅적 행위도 없는 무기력한 생활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빼가 저리도록 선명하게 자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아무리 하찮고 열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가지 고통과 시련에 빠진 우리를 만나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겸손하면 우리의 나약과 열등은 기쁨의 근원으로 바뀐다.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그분의 힘이 발견되는 까닭이요,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2 고린 12, 10) 때문이다.

우리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피동적인 고통 감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삶 속에서 표출되도록 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부르심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수난 속에 몸을 담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대로 느끼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은 이 고통을 받아들여 소화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여기에 응답하신다.

우리라면 다른 종류의 하나님, 즉 고통을 가하는 자들한테 고통으로 맞서서 훨씬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짓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선호할 테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1 고린 1, 25).

수난을 관상하는 사람, 수난의 의미에 아무런 선입견이나 왜곡된 편견 없이 수난을 관상하는 사람이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마름과 고독, 내적 어둠,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소외감, 신앙에 거슬리는 요란스런 유혹 등만을 체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하면서 “그분의 시간과 암흑의 때”를 함께 보내며 괴로워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시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으셨던 그분의 체험을 함께 나누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그들이 체험하는 고통과 공허감은 하느님에 대한 열망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다. 그들이 하느님과 대단히 가깝지 않다면 그분의 부재를 그토록 예리한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바로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감각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그들이 영위하는 삶의 질의 변화에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끈기와 선행 안에서 그 실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관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성찬식 하나하나를 모든 창조계가 포함되고 수용되는 그리스도의 삶과 수난, 죽음과 부활의 경축인 것이다.

그분(그리스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

에서 홀리신 예수와 피로써 평화를 이루하셨습니다(골로 1, 18-20).

역사적인 예수 안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똑같은 하느님께서 지금도 빵과 포도주의 표상과 상징을 통해 사랑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고 계신다.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헤골산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단 한 번의 행위는 창조 전반을 통해 지속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성체성사를 집전함으로써 경축하고 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하느님상 내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오염시키고 기형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체성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한 왜곡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성체성사는 우리를 경이와 기쁨으로 채우고 시각을 넓혀 주며 우리를 자기 및 창조계 전체와 합일시키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하느님과 서로에게 관심을 쏟는 대신에 예식 규정과 돈 조달에다 관심을 쏟으면서 기계적으로 집전하는 차갑고 형식적인 의식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은 결석했다가 영원히 단죄받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성가 선정, 성당 안에서 감실의 위치, 성체배령 방식, 어떤 사람에게 영성체를 허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회중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 같은 일로 적대적 관계의 분파로 분열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사항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며, 예식 규정과 규범과 법규는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많은 문제가 실상은 지극히 이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편견을 갖고 서로 갈라지며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사분오열되게 만드는 것은, 성체성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안목이 너무나도 편협된 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이 상징을 하나의 신성한 물건으로 변질시키고, 이 지극히 단순하고 경이로운 표지에 있어서마저도 하느님이 하느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성체성사가 우리에게 위임되고 있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현존이 그분 백성의 삶 속에서 체현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 속에서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스스로 선택한 생활양식 속에서나 항상 살아 움직이는 현존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현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제공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 준 것”(요한 13, 15)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한 나무의 가지들이요,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세포들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현존의 실재는 우리가 상호 관심과 배려를 어떤 형태로든 서로와 주고받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제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서로 낮은 상태로 남아 있거나 설상가상으로 서로 적이 되어 있을 때, 이 회중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은 실재하지 않는다. 관심과 정력을 자신에게다 집중시키는 회중, 전체로서든 개개인으로서든 가까운 이웃에게 관심과 자비를 보이지 않는 회중, 자신이 그리스도교적 집단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식이 결여된 회중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현존하시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현존은 회중 속에서 체현되는 만큼 회중은 종교의 종류와 유무, 인종, 국적, 사회적 계급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를 개방하되, 특히 사회에서 무시받고 경멸당하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래야만 이 회중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깃든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삶과 관계된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이, 부활 또한 하나의 신비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말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활에 관한 유치한 견해를 한때는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그들은 신앙을 잃었나 보다고 우려할지 모르지만 실상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라는 초대와 받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부활은 신비이다. 따라서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움직임과 존재를 포괄하는 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다.

수난기사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 속의 부활기사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사전에 가진 부활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생각들을 가능하면 모조리 떨쳐 버린 채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하게 복음 속의 장면으로 뛰어들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닌 기쁨을 깨닫도록 청해야 한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자렛의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육체의 형상을 지니고 벗들 몇몇에게 발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창조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 발현이 아무리 여러 차례에 걸쳐 아무리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는 발현으로 통용될 수도, 발현으로 축소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진리는 오직 신앙으로만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주일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요한은 먼저 도착하여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놓여 있는 수의를 목격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발현이 있기 전에 믿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토마의 불신앙이 서술되어 있다(20, 28-29). 그리스도께서 발현하시어 토마에게 말씀하신다.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20, 27). 그러자 토마는 만져 보고 얻어 낸 결론이 아닌 신앙의 선언으로 응답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20, 28)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조물들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온 창조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2천 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새롭고 진실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가사들을 매개체로 하고 또 성찬식 집전을 통하여 모든 조물의 삶을 포괄하는 이 신비에 몸 담을 수 있게 된다.

복음의 부활기사들은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그림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분부분이 서로 어긋나 있다. 이들 기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범주, 공간과 시간의 범주를 초월하고 있는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부활 모습을 그려 놓은 세부적인 묘사가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통되는 특징 세 가지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특징은 부활이 현재의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부활기사에서 공통된 특징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발현을 목격하는 사람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기분에 젖어 있다는 점이다.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낙담하여 침울한 상태였고, 마리아 막달라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이충방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싸여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고, 토마는 의혹에 빠져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죽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실망, 일정한 상실, 사별(死別), 공포, 무기력 또는 무의미를 체험하고서 거기에 무신경해지고자 애써 노력하지 않을 때라야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다는 진리를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후속되는 그리스도교적 체험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답은 우리한테 우리의 가난과 하느님 필요성을 알려 주는

고통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난을 인정하고 가난 속에서 평정을 유지한다면,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시는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복음서의 부활기사들에 공통되는 두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그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상당히 먼 길을 함께 걸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마리아 막달라는 부활하신 그분을 정원지기로 오인했다. 이것은 그분의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에도 공통되는 특징이다. 즉 그분이 우리 생활의 세세한 부분들 속에 살아 계시는 현존이라는 진리는 더디게 밝혀지게 마련이다. 처음에 부활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 2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로 제시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부활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걸어잠근 제자들의 방 문을 뚫고 들어오셨듯이, 우리의 빗장 걸린 마음과 상상의 문을 끊임없이 뚫고 들어오신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여 걸어잠근 우리의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며 인사하신다. 그분의 부활이 지닌 힘은 이전까지 절망으로 느껴지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얻게 하고, 이전에는 피해 달아나고만 싶던 일을 마주 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전에는 내 안전과 보호만 생각하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상처를 감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한다.

부활기사들에 공통되는 마지막 특징은 그리스도의 발현을 목격한 사람이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점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마태 28,19). 사도행전은 부활에 관한 기록이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에 관한 기록이

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성령이시요 충돌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성령이시며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성령이시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초대교회에 관한 다음의 간략한 기사 속에 훌륭하게 요약되어 있다.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사도 4,32-35).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상으로 관상할 만한 시간과 공간이 없고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루가 끝나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길 때 그리스도를 방에 모셔 들이고서, 그분께서 온갖 악과 파괴의 세력을 물리치신 수난과 죽음의 표지인 당신의 손발을 내보이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그러면 스스로 자초한 것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그대가 체험하는 모든 위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것이며, 그대를 이끌어 당신 부활의 힘과 영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 올 때 우리가 ‘아무런 평화가 없음에도 평화, 평화를 외치는’ 우리 모습을 빼닮은 그리스도, 우리의 편견을 부추기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복돋는 가공적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창조하여 스스로를 기만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음 장에서는 성이나 시오의 「영신수련」을 바탕으로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지침 몇 가지를 제시하고 끝으로 결심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이기로 하겠다.

다음은 복음서들에 나오는 수난과 부활의 기사와는 별도로,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관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서 구절들이다.

최후만찬 : 시편 113-118(과월절 식사 때 낭송되던 시편)

동산의 번뇌 : 히브 4, 14-5, 10

예수의 체포와 재판 : 시편 35; 38; 40; 55; 57; 64; 69; 70; 102; 142; 143; 이사 50, 4-7; 52, 13-53, 12

십자가의 길 : 시편 55; 72; 골로 1, 15-20

십자가에 매달림 : 시편 22; 31; 88; 필립 2, 6-8; 2 고린 5, 7-18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안장 : 시편 42; 74; 130; 이사 42, 1-9; 1 고린 1, 17-31; 히브 9, 11-28; 지혜 3, 1-9; 4, 7-15

부활 : 시편 2; 8; 19; 24; 62; 116; 118; 이사 30, 18-26; 35, 1-10; 43, 8-13; 에페 1, 15-23; 2 고린 1, 3-7

12

결단 중의 최대 결단 — 하느님이나 맘몬이나

하느님은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며, 따라서 기쁨과 슬픔, 평화와 격동, 패감과 고통 등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작용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어둠의 순간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틀림없는 말이며서도 우리가 그 같은 내적 체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해 주지 않는다. 전쟁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끔찍스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극심한 반감을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나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름의 위압적인 단호한 명령과 결부시켜, 이 반발에 저항하거나 아예 무감각해지거나 한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하느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 작용하는 파괴적인 '의무'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판단에 필요한 것이 첫번째 지침이다.

1. 하느님은 슬픔과 격동을 무마하고 진정한 행복과 영적 기쁨을 주시는 것이 특징이다.

파괴적인 영은 교묘한 거짓 논리로 이 행복과 기쁨을 불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중요한 보편적인 원칙이다. 하느님의 활동은 행복과 영적 기쁨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성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반대로 파괴적인 영은 슬픔과 혼란을 야기하며 우리를 그 상태에 잡아 두기 위해 영리하고 교묘한 이유를 갖다 댈다.

참된 행복과 영적 기쁨은 부단히 '높은' 데서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으며, 배 밑창에 실은 바닥짐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바닥짐을 실은 배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고통을 겪듯이, 풍랑에 휘말릴 수 있지만 설령 파도에 얻어맞아도 재빨

리 바로 서는 까닭에 폭풍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행복과 영적 기쁨 역시 항상 높은 데서 살면서 슬픔이나 상실 또는 비애를 맞보는 일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타격을 받아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폭풍만 지나가면 평화와 고요를 되찾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행동이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내적 동요가 생기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파괴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런 행동과 결심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가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내면에서 작용하는 '의무' 또는 하느님의 뜻 개념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의 생활 상태가 건강이나, 하고 있는 일 때문이든 결혼생활이나 수도자 신분 때문이든 우리를 부단히 슬픔과 불안 속에 붙잡아 두고 있을 경우, 우리는 이 상태를 하느님의 뜻으로 치부하면서 신성시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그 무엇이 하느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평화와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느님은 어쩌면 현재의 생활 상태를 바꾸도록, 아니면 현재의 생활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 방식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도 모른다.

정도가 어찌 됐든 항상적으로 슬프고 착잡한 기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느님은 그대의 어둠 속에서 그대와 함께 계시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하느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느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고 있고, 이 믿음은 내 개인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그대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느님은 참된 위로의 하느님이시며, 그러기에 그대더러 슬픔과 침울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울병을 앓는 사람은 요한복음 11 장에 나오는 라자로의 부활 대목

을 상상 속에서 관상하며 기도드리면 좋다. 무덤에 묻힌 라자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라. 그는 죽어서 썩어 가는 중이며 어둠 속에 갇혀 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 온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대의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의식의 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그대가 슬픔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해 주도록 하라. 그런 다음 무덤 입구 돌이 치워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게야, 나오너라.” 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무덤에서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자기가 슬픔의 무덤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거기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이유에선가 틀어박혀 있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중요한 발견일 뿐이다. 그대에게 이런 현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안해 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가 무덤 속에 틀어박히려는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청할 것이다.

파괴적인 영은 슬픔과 불안을 유발시키는 것을 일반적인 특성으로 하지만, 때로는 거짓된 위안과 평화, 거짓된 기쁨과 열정을 불어넣는 보다 고차원적인 공격 방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음의 두번째 지침이다.

2. 참된 위안과 거짓 위안은 그 결과를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다. 위안이 거짓된 것일 경우, 그로부터 떠오르는 생각은 사악한 것, 보다 덜 좋은 것을 지향하며, 결국에는 불안과 슬픔 등이 야기된다. 참된 위안의 경우에는 떠오르는 생각이 선익한 것을 지향하게 마련이다.

참된 위안과 거짓 위안이 구별되지 않는 때도 가끔 있다. 이럴 때 그

차이는 나중에 가서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하느님의 정의감에서 감도받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한쪽은 위안이 하느님에게서 오고 다른 한쪽은 파괴적인 영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하느님의 정의감에 감도되고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 면에서는 체험하는 위안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둘 다 당연히 이 위안을 받아들이고 하느님한테서 오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이 위안을 느끼면서 머리에 떠올리는 생각을 주시하는 일이다. 참된 위안과 거짓 위안의 차이는 뒤따르는 생각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행동으로 분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위안의 근원이 파괴적인 영일 때는 뒤따르는 생각과 결단이 점차 파괴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거짓된 영감을 받은 사람은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화끈하게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자기와 세계관이 다른 불운한 사람을 경멸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짓 위안과 이를 정확하게 탐지하지 못할 때 뒤따르는 파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로 입증하고 있다. 몬시뇰 로날드 녹스는 「열정」(Enthusiasm)에서 이 점을 상세하게 집중한다.

거짓 위안을 타파하는 좋은 방법은 131쪽에서 기술한 바 있는 매일의 양심성찰이다. 참된 위안에서는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선, 신뢰, 자기 제어력 등이 점차 증폭된다. 하느님이 현존하시면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과 기분 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엄숙, 냉혹, 지나친 심각, 광란에 가까운 서두름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의 표지가 못 된다. 우리가 참된 위안에서 움직이는지 거짓 위안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 없어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은 파괴적이며, 따라서 우리는 고민을 몰아 내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그릇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느님은 이 점을 이해되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게 마련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상의 지침들과 8장에서 제시한 지침들을

생활 속의 결단과 결부시키는 작업에 할애하기로 한다. 우리는 결심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결단에는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누구와 할 것인지, 하지 않으면 수도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제가 될 것인지 같은 인생과 직업 및 평생 경력에 직결되는 주요한 결정도 포함되지만, 특정한 삶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결혼생활 또는 수도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 직업 또는 평생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실직하거나 은퇴하거나 홀몸이 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결정도 포함된다.

하느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가장 내밀한 자아가 진실로 원하는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쪽으로 방향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열망의 힘을 통해 필요하다면 모든 조물에 대한 애착을 떨쳐 버릴 수도 있게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눈 앞에 놓인 선택의 여지들에 초연하고 냉담할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눈 앞에 놓인 선택의 여지들에 초연하다거나 냉담하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적 결단에 핵심이 된다. 이런 초연한 자세가 없으면 뒤따르는 결정은 하느님의 뜻이 되지 못하며, 제아무리 갖가지 기교를 동원해도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일례로 그대가 봉급 높은 새 직장을 제안받았다고 하자. 세상은 으레껏 “얼른 수락하라.”고 말한다. 이럴 때 사람은 인상되는 급료 액수에 애착을 느끼게 마련이며, 이 점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상된 돈이 필요치 않으며 지금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듯이 살고 처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심지어 가외급전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은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미리 결정을 내

려놓고 움직이지 않고 단순히 인상된 봉급 액수가 아닌 하느님을 위한 결정을 아무런 구애 없이 내릴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리는 궁극적이고 올바른 결정이 새 직장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아무 의구심 없이 당연히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럴 때는 우리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신앙적 회심을 체험하거나 사제직 또는 수도생활에의 부르심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경우를 자주 당한다. 그러나 일단 이 결정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게 되면, 여타의 많은 결정도 내려야 하는데 거기에는 어쩌면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문제들도 포함된다. 당사자가 회심 체험 또는 부르심 체험을 진실되어 생활화하자면 당연히 따르는 결정들이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결단 문제에 직면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금방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도를 제아무리 많이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해야 할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핑계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집안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마무리지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기도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면서 무슨 선택을 하든 하느님을 보다 훌륭하게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계기가 되게 해 달라고 청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내린 결정이 기도 시간과 이외의 시간 양쪽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기간 예의 주시함으로써 해야 할 선택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일례로 특정한 직업을 수용하기로 한 일시적인 결정을 놓고서는 기도할 때나 기도가 끝난 다음이나 지속적으로 고독을 체험하게 되는 반면에,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는 위안을 얻게 될 경우, 우리는 위안을 주는 쪽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어느 쪽 대안을 선택한다고 해도 평온한 느낌이 드는 까닭에 이 방법이 도움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안, 고독 체험을 통해서 이미

내린 결정을 재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우선 ‘하느님의 뜻’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초연한 정신을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한다. 그런 다음에 백지 한 장을 두 칸으로 나누어 한 칸에는 “X를 받아들인다.”(여기에서 X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제목을 달고 다른 칸에는 “X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제목을 붙인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각 칸을 이동분하여 “X를 받아들인다.” 칸 한쪽에 ‘이익과 혜택’난을, 다른 한쪽에 ‘불이익과 위험’난을 설정하고 “X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칸에 똑같은 두 개의 난을 설정하면 도합 네 개의 난이 설정된다. 이 난들을 모두 채운 다음에 어느 쪽 선택이 보다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입각해서 일단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 이 결정을 하느님께 바치며, 만일 이것이 하느님께 보다 큰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것이라면 아무쪼록 인준해 주십사 하고 간청한다. 이와는 달리 선택하거나 함께 병행해도 좋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친구가 나한테 이 문제를 협의해 온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거나, 내가 임종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방법도 있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초연함이 자신한테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이 같은 방법을 시도조차 해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완벽한 초연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고자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려고 시도했다가 여기에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깨달은’ 결과 활용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이 방법의 소기 목적을 오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방법은 ‘정확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한 통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역사를 보다 민감하게 감지하고 되도록 올바르게 감응하는 성장의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고결하고 숭고한 목적을 지닌 채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출범한 수많은 조직과 운동 단체가 의식 있고 지성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금세 확 퍼어났다가, 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정신을 너무 빼앗긴 나머지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마침내는 소멸되어 버리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교회 자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걸어잡근 방에서 두려움에 떨던 불과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출범하여 로마 세계를 파고들어 폭발력을 과시하던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까지 올라선 것이 다름 아닌 교회이다. 이런 교회가 줄곧 내부 통솔과 조직, 권위의 높낮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여 왔고, 이 문제는 20세기에 와서 교회가 자체의 ‘승리주의, 성직자주의, 율법주의’로 인해 불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말로 요약되기에 이르렀다. 이 말은 어떤 주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석상에서 했던 발언이다.

교회에 조직과 기구, 교도권과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이 점은 2장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교회는 제도적 요소를 터무니없이 강조함으로써 비판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가 손상되면서 기형화하고 있으며, 자체의 유지 문제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세상에 대한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교회의 진정한 보화가 자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내적 생활은 질식당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곤욕스런 위기—신자수 감소, 신자들 사이의 불만과 분열—는 우리가 문제점을 믿음으로 대처하기만 하면 오히려 축복이 된다. 현재 교회는 거짓된 안정과 부, 영화, 허세, 권력과 특전에 매달리는 온갖 왜곡되고 교묘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표징이 되고, 약함 속에서 권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에게 각별한 사랑을 보이는 그리스도, 이 세상의 고통을 당하고 자기 몸으로 흡수해 들이며 용서로 응답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자신의 참뜻을 회복하도록 부르심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세상 곳곳에 사는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증표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상에 매달리는 교묘한 집착이 가장 맹위를 떨치는 자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서, 이 같은 집착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 점을 예증하기 위해 여기에다 풍자극 하나를 실어 본다. 이 풍자극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이든 남을 위한 결정이든 그 결정에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심하게 과장한 것이다. 이는 어떤 본당 사목회의 모임 자리를 무대로 하고 있으나, 진행되는 발언들을 통하여 작동하는 은밀한 세력은 바티칸 공의회든 한 국가의 내각 회의든 소작인 연합회 회의 석상이든 모든 집단 모임의 결정에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 세력이다. 나는 임원 각자의 발언이 요약된 회의록을 제시하되, 발언 이면에 깔린 의도는 괄호 안에 적어 두었다. 괄호 속의 해설이 냉소적으로 들릴 경우, 모든 집단에는 비밀스런 의도가 담긴 메모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해설로 보면 될 것이다. 물론 이 특정 집단의 숨은 의도는 유달리 파괴적이기는 하지만.

성유다 본당 사목회 회의록

1985년 11월 10일 오후 6시

참석자 : P. 시몬 신부 (본당 사제)

W. 옥스브리지 씨 (성유다 종합고등학교 교장)

G. 그레이 양 (은퇴한 성유다 국민학교 교장)

G. 맥파일 양 (성유다 국민학교 교감 교사)

S. 스프링거 씨 (젊은 사무원)

A. 피셔 씨 (지방의회 의원, 선전 담당)

맥컬럼 씨 (은행 경영주)

10월 10일자 회의록 낭독과 인준이 있었다. 사목회의 첫번째 토의 의제는 “건축 허가가 나오고 장소 선정이 끝나고 은행 용자가 확실시된 작금에, 본당 청소년 회관 건축건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이다.

P. 시몬 신부 : 제안은 환영한다. 그러나 본 사업은 본당의 재정과 능력 양면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만큼 모든 결정을 연기해 주십사 당부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회관이 본당에서 청소년과 교회 일치라는 대의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인지도 의심스럽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목은 교회 일치를 최우선 과제로 보아야 한다.

(P. 시몬 신부는 중년기 후반의 나이를 의식하고 있고 또 주교직에 대한 소망도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위험이나 늘어나는 업무에 맡겨둘 만한 일은 무엇이나 두려워한다. 그는 청소년과의 통교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레이 양 : 신부님 말씀에 찬성한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너무나 제멋대로이다. 이 도시에서 조직적인 기부 사업은 청소년에게 보다 선의의 일을 해 주고 좀더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레이 양은 방갈로와 널따란 정원을 새로 구입했는데, 말끔하게 손질하고 가꾸어야 하는 이 정원이 선정된 회관 부지와 인접해 있다. 한 마디로 그녀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

옥스브리지 씨 : 앞서의 발언자들과 동감이다. 생각해 보라. 시에서는 청소년 단체들에게 해 줄 만큼 해 주었고 학교에서도 훌륭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당구장보다 종교 교육이 훨씬 절실히 요

구된다는 사실은 자명하지 않은가.

(옥스브리지 씨는 야심만만한 사람인 데 비해서 말은 학교의 진학 성적은 하위에서 상위까지 진폭이 심한 상태다. 그는 자기 학생들이 공부 이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리도록 만드는 일이면 무엇이든 반대할 사람이다.)

맥파일 양 : 청소년 회관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논거 제시. 청소년 스스로가 회관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회관을 모든 종교에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단절되고 긍지를 느끼며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 일치 운동도 몸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다.

(맥파일 양은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믿어 내고 교장에 임명된 그레이 양을 죽도록 증오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그레이 양이 제안하는 것이면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맥파일 양이다.)

스프링거 씨 : 청소년 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맥파일 양과 의견을 같이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로서 이 필요성을 체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젊은 사람에게 회관을 맡겨 적절한 봉급을 받으면서 운영하게 하기 바란다. 이런 재안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스프링거 씨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아용하여 봉급도 없이 청소년 회관을 위해 뛰도록 요구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피셔 씨 : 이 기획을 열렬히 지지한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가톨릭 회관을 환영하리라 보증한다. 이 일은 교회의 사업에도 역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회관은 “인력봉사단”에 맡기면 비용도 절감되고 노동력 수급도 무난해서 건축 공사가 순조로우리라 생각한다.

(피셔 씨는 높은 것을 지향하는 야심가로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선전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한다.)

맥컬럼 씨 : 회관을 짓는 쪽에 표를 던진다.

(맥컬럼 씨는 자진해서 본당의 회계를 맡고 있다. 그는 자기 일이 추가되는 것을 끔찍이 두려워하지만 청소년 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일이 불어나는 것이 싫음에도 판단에 따라 옳은 쪽에 표를 던진다.)

본당 사목회 임원들이 제시한 논거와 거기에 반박하는 논거는 그 자체로 보면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맥컬럼 씨를 제외한 임원 모두는 개인의 왕국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선의하고 건전한 제안으로 포장하고 있다. 시몬 신부는 편안한 생활과 승진 기회를 지배적인 관심사로 설정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이 관심사에 종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레이 양은 평화로운 은퇴 생활에, 옥스브리지 씨는 학생들의 진학 시험 합격에, 맥파일 양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에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스프링거 씨는 행여 이익 없는 부담을 떠맡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피셔 씨는 멋진 자기 선전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이 청소년 회관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들 임원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을 경우에, 본당의 청소년을 위하여 이들의 결정으로 좌우되는 여타 사람들까지도 소홀하게 방치될 것이 분명하며, 이들의 사적 관심에 다른 사람들의 선의가 종속당하게 되리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들은 외형적인 태도나 하는 말로 볼 때는 마음으로부터 본당 공동체에 관심을 쏟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데에 공동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말로는 봉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착취하고 있다. 이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맘몬인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본당 사목회 임원들이 지닌 약점은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부터 집단 결정 또는 공동체 결정에서 교묘하게 모습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의도를 탐지하고 배제시키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다음에 제안하는 방법은 단체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통솔상의 세부 문제 결정보다도 중요한 시책 결정에 적합한 것이다. 결정에 임하는 사람은 제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의지를 지니고 제안된 방법을 충실히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정 사항에 필요한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결정 단계에 이를 때까지 집안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구실로 삼을 수는 없다.

이니고 로솔라는 회심한 다음에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갔고, 그 곳에서 자신의 이상에 맞는 한 무리의 친구를 규합한다. 그리고 이 그룹은 모두 한꺼번에 성지 순례를 떠나기로 결정내린다. 파리에서 그 당시 구성원 가운데 사제는 피에르 파브르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출발일을 기다리는 동안 모두가 사제 서품을 받는다. 막상 출발할 때가 되자 터키와의 전쟁이 터지고 순례길에 오를 수 없게 되자, 일행은 발길을 돌려 로마로 가서 교황에게 봉사직 청원서를 제출한다. 교회 안에서 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가서 봉사하고 싶었고, 그런 곳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행은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인지라 그들의 봉사 활동은 요긴한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이탈리아 안팎 여러 지역으로부터 일해달라는 초대를 받는다. 그러나 일행은 서로 헤어지기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정 문제는 애당초부터 '우리가 단일한 집단으로서의 결속을 유지할 것이냐?'와 '우리가 일행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순명을 서원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된다. 후자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도회를 세울 것인가?'라는 말과 통한다. 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정규적

으로 모여 이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첫번째 문제 '우리가 단일한 집단으로서 결속을 유지할 것이냐?'는 아무 어려움 없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도출한다. 그러나 두번째 문제는 사흘이 지나도록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헤어져 며칠을 기도와 단식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모이는데, 이 때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즉 각자가 돌아가면서 순명서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조용히 귀를 기울일 뿐 아무 발언도 하지 않는다. 모두가 나름대로 반대 이유를 말하고 나면 다 함께 기도드리러 나간다. 그 다음에는 순명서원에 찬성하는 이유를 동일한 방법으로 말하고, 이어서 이를 주제로 기도를 바친다. 이 모두가 끝나고서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결정에 들어간다. 그 결과 이들은 일행 가운데 한 사람한테 순명서원을 한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합의해 낸다.

이상의 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면 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5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려는 근본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자세는 '내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자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결정에서 하느님 나라에 맞지 않는 온갖 집착을 떨쳐 버리려는 자세이다. 이러한 근본 자세가 없으면 하느님의 뜻을 진실되게 식별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만일 나나 동아리의 나머지 사람들이 이 같은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찌겠는가? 필경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자 하는 제반 노력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모든 집단은 물론 모든 개인도 완벽한 초탈에 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 완전한 초탈정신으로 임하고자 열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다른 일의 성장도 그렇듯이 초연성의 성장 또한 서서히 이루어진다. 도보 여행에 비유하자면 초연한 정신으로 내리는 결정은 하나하나가 하느님을 향해 떼어 놓는

걸음걸음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행 전체는 이 걸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룩셈부르크에서는 해마다 뒤편기 행진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두 번을 뒤로 뛰고, 세 번 앞으로 뛰는 이 놀이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전진 과정을 훌륭하게 표상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제안이 일단 공식화되면, 각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귀담아들으면서 알아듣지 못한 부분만 질문할 뿐 발언 요지에 왈가왈부를 일체 하지 않는다. 각 사람의 발언이 끝나면 몇 분에 걸쳐 발언 내용을 말없이 음미한다.

각자는 제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놓고 기도드리면서 내면에 느껴져 오는 위안이나 고독을 주시한다. 제안에 대한 반대가 하느님 뜻과 부합되면 반대 이유는 기도 과정에서 기분과 공명하여 평화감과 평온감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제안에 대한 반대 이유가 하느님의 뜻과 상충되면 내면의 느낌 속에 불안감, 불쾌감, 흥분 등이 배어든다.

이어서 찬성 이유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진하고 이를 주제로 기도를 바친다. 이 모두가 끝나면 구성원들에게 자기 결정을 발표하게 한다. 이상이 내가 제안하고자 했던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 복잡하고 실천하기 힘들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노력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이 겉걸의 의식층을 지닌 난해하고 복잡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꼬이고 또 심술궂다. 그 누가 있어 마음의 비밀들을 꿰뚫어 볼 수 있으랴?” 예언자 예레미야 말이다. 회합에서 우리가 지닌 진짜 의중은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냉정과 초연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소속된 집단이 참된 식별에 필요한 초연의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을 때 구성원은 공동체적 식별을 실현시키려는 시도 일체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마련

이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이 모든 피조물에 초연한 상태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결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초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맥컬럼 씨의 경우는 완전무결하게 초연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회관 문제에 있어서만은 업무가 붙어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자신을 극복해 내고 있다. 둘째는 우리의 식별 수련의 목적이 ‘올바른 결정’—다시 말해서 절대 철회할 필요가 없는 결정—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감수성과 감응력을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 방법을 외면하는 것보다 시도해 보는 쪽이 더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 장인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 검토한 생각 몇 가지를, 오늘날 전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에다 적용시켜 보기로 하겠다. 이 위험이란 인간 생명을 지상에서 전멸시킬 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말한다.

13

계곡은 말한다 — 하느님과 핵의 위협

그대와 나는 분리되지 않은 단일한 인격체이다.

(그 옛날 성토요일 강론에서)

하느님은 창조계의 모든 미물들과 우리의 모든 인간적 체험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당신의 거처는 우리 안에다 마련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체험 속에 숨겨진 보물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누시지 않는 두려움과 어둠, 절망과 고통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선하고 덕성스럽고 훌륭하며 고되게 일하는 까닭이 아니라, 당신 손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살아 있는 당신의 영이 만물 안에 내재하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뻗치고 계신다. 우리는 핵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과 만나고 있다. 만일 이 두려움을 맞대면할 수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신의 가까움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다. 만일 이 문제를 외면하려 들 경우, 우리는 창조계의 실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과 공포로부터 단절시키고 여기에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영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영성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판을 친히 걸머지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북웨일스에 있는 예수회 소속의 성부노 영성센터에서 8년간을 살면서 탑꼭대기 방에서 창 밖을 내다보며 나누었던 상상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핵문제를 조명해 볼까 한다. 시인 제러드 맨리 홉킨스가 이 집에 살면서 쓴 시가 “독일땅의 난파”였다.

썩디고운 서편 저 멀리

목가적인 웨일스의 앞머리,

나는 여기 지붕 밑에 있노라. 있으면서 쉬노라.

그리고 저들 강풍의 먹이들은....

서쪽으로 난 내 방 창문에서 내다보면 클뤼드 계곡 너머로 ‘숲, 호수, 목장과 협곡, 골짜기...’가 눈에 들어오고 더 멀리에는 스노우도니아 산맥이 휴식 취하는 거인 용사 형상으로 누워 있었다.

이 대화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기에는 지난 40년을 살면서 누에고치처럼 굳어진 내 마음의 층들 몇 겹을 서서히 깨부수어 준 진리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 대화는 나를 사색으로 이끌고 그리스도인이나 로마 가톨릭인 또는 예수회 회원 대다수가 내렸던 결론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다. 각 사람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그 시각은 자기만의 갖가지 과거 사건에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우리가 그토록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내가 내린 결론에 독자가 동의해 주기를 고대하지 않는다. 그저 내 자신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이다. 나는 교묘한 형태의 자기 기만과 자기 칭찬과 은밀한 호전성이 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내가 내 확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오류가 있다면 하느님은 그 허위를 내게 밝혀 주실 것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나는 성부노 영성센터에 있으면서 한가할 때면 탑에 있는 내 방 창가로 가서 클뤼드 계곡을 내려다보기 좋아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인가 나는 내 자신이 계곡을 상대로 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슨 일로 기분이 나쁠 때, 즉 화가 나거나 초조하거나 두렵거나 조심에 싸일 때면 그 기분을 창 밖으로 내던지면서 “너 가져.”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래도 계곡은 발끈하는 일 없이 평상시대로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런 계곡은 마치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신 안으로 빨아들이면서 둘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평화의 운율을 되살려 주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국 미소를 되찾고 금방 발끈하는 내 좁은 소갈머리

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내 기분이 좋아서 즐겁고,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라치면, 계곡은 내 기쁨을 반향할 줄도 알았다. 그러다 보니 계곡은 내게 있어 하느님의 상징이요, 성사이며 하느님의 현존과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훌륭하게 표상해 주는 길잡이 구실을 하였다. 하느님 역시 내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빨아 들이키시며, 그 대신으로 당신의 평화를 불어넣는 분이시요, 바로 우리가 열망하는 기쁨이시기 때문이었다. 계곡은 또한 하느님의 무한성과 아름다움과 평화의 상징이며, 하느님의 영광의 표현이고 당신의 피조물 속으로 파고드시는 하느님의 숨은 현존도 되었다.

그러나 이 계곡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이 계곡은 검게 타 버린 시신들 위로 하얀 재만 소복소복 내려앉을 뿐 움직임도 생명도 하나 없는 황량한 폐허요, 메마른 사막으로 보였다. 이런 모습은 비단 클뤼드 계곡에서만 아니라 모든 계곡과 모든 언덕, 세상의 모든 도시와 모든 촌락에서도 엿볼 수 있는 모습어요, 언제라도 현실로 전환될 수 있는 악몽 속의 장면이었다. 이것은 결코 기우에 사로잡힌 망상이 아니었다. 엄연한 현실, 그것이였다. 우리는 제3세계의 수백만 되는 사람들에게 물과 식량을 제공할 여유조차 없지만 폭약만은 살아 있는 인간 한 사람당 TNT 2톤에 해당하는 몫이 돌아갈 만큼 탐욕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으니 말이다.

계곡을 이 같은 시각으로 응시하고 나면, 평화로운 교회에서 조율이 잘 된 평온한 억양으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는 기도는 공허하고 쓸데없는 소리로 들렸다. 이런 기도는 마땅히 절규가 되어야 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허용하는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이란 말인가? 하느님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우리의 온갖 노력과 희망과 꿈을, 창조계의 갖가지 아름답고 섬세한 사물을, 그토록 끔찍하게 절멸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선에 관한 인간의 이야기는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느님 이야기는 하나같이 거짓이요, 그분과 타인을 사랑한다는 못 주장은 한낱 힘없는 절규이자 위험을 회피하려는 절망적인 몸부림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이 마지막 자문 속에는 의혹과 어둠으로 점철된 세월이 농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의혹과 어둠은 우리 의식 깊숙이 잠복해 있기에 평소에는 그런 대로 제어되지만 교회가 일부 공식적인 선언문을 통하여 확고부동한 자만을 과시할 때, 무수한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이 세상 권세와 지배 세력의 악마적인 만행을 모른 채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지원까지도 서슴지 않을 때, 그 가식에 암울한 기분과 분노와 환멸을 느끼면서 틈틈이 터져 나오던 것들이었다. 교회는 피임하는 자들을 단죄하고, 복음의 참된 영성을 배신하는 이 시대의 악과 맞붙어 싸우려는 사제와 수도자를 비난해 오지 않았던가? 또, 서구 민주주의의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에게는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면서도, 핵잠수함은 교회의 축복을 내려 진수시키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창 밖을 내다보며 가끔씩 ‘그리스도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곤 하였다.

그럴 때면 계곡은 하느님처럼 가만히 있었다. ‘너와 나는 분리되지 않은 단일한 인격체다.’ 이 음성이 내면으로부터 들려 왔다. 나는 이것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유래된 말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상상 속에서 숨을 거두신 그리스도께서 지옥문으로 내려가셔서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했다. 계곡을 뻔히 바라보는 도중에 ‘너와 나는 분리되지 않은 단일한 인격체다.’는 말씀의 변형에 해당하는 “나와 너” 또는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거처하듯이 너도 내 안에 거처하라.” 같은 말씀이 귀에 들려 오곤 하였다. 그릴 때면 기쁨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불신을 씻어 주었는데, 이 상태는 내가 냉정을 되찾고 계곡을 무시하면서 ‘정신차려라. 너는 필경 너무 피로한 나머지 불쌍사나운 자연신비주의에 빠져

들고 있는 것이야.’라는 말로 자신을 타이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냉정을 되찾으면 윤리적 양심이 엄숙한 음성으로 이 상식의 판단을 지원하였다. ‘너도 알다시피 너는 변덕스럽고 허영심 많고 어리석고 믿음과 불신이 뒤섞인 가망 없는 존재로서, 안정되고 확고부동하기가 기껏해야 바람에 휘날리는 가을 낙엽 정도 아니더냐? 피곤에서 오는 허황된 망상에 빠지고 꿈꾸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려가서 건실하게 일이나 하여라.’ 그래도 나는 다행스럽게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음성이 들려 오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 더 위대하냐? 너냐, 나냐? 너의 죄악이나, 나의 선이나? 너의 변덕이나, 나의 충실이나? 너의 어리석음이나, 나의 지혜냐?’

이런 말들이 내 내면으로 찾아들 때 나는 계곡에서 내 자신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그러면 하느님과 동떨어진 채, 이성과 정확성이라는 벽들로 된 감방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 강요하는 내 일반 상식과 윤리적 양심의 허구성 내지는 거짓을 어느 정도나마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순간적이지만 계곡을 매개로 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이 온 세계의 하느님, 존재하는 만물 속에 거처하시는 하느님, 나와 온 세상을 위해 신성을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신 하느님, 세상 전체의 고통을 손수 걸머지신 하느님이심을 깨닫곤 했다. 실제로 나는 분별 있고 윤리적으로 정확하게 행동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맞대면할 수 없어서 그 분으로부터 허둥지둥 도망치고 있었다는 편이 옳았다. 내가 자란 환경이 달랐더라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거나, 부 또는 지위에서 안전을 찾는 등 도피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지 모른다. 아무튼 나는 종교적 명망성이라는 도피로를 선택하고 있었다.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비꼬이고 또 심술궂다. 어느 누가 마음속의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으랴!” 우상 숭배는 지금도 근본적인 죄가 되고 있다. 내가 어렵듯이 파악한 것도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요, 하느님은 빚혀 두고

내 자신의 보전에 몰두하는 투신이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실상 나는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데 그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종교만큼 하느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도 없다.”

마침내 나는 내 음울한 기분을 비롯하여 특정한 종류의 교회 가르침과 설교 때문에, 일부 교회 인사가 드러내는 폐쇄적인 자만 때문에, 세상의 문제점들에 오히려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원하는 안이한 전례 때문에 치미는 분노와 불만을 좀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일부가 하느님을 굶주려 하는 데 반해서 다른 일부는 스스로 제조한 안전을 추구하면서 거기에다 하느님의 이름을 갖다 붙임으로써 이 굶주림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다. “두 손을 모아 아무리 벌여 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벌고 또 벌여 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 주라”(이사 1 장).

이제 나는 진짜 전쟁이 교회와 사회의 구조를 변혁시키는 작업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신 구조를 개혁하고자 투쟁하는 속에서 벌어지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소리로 들릴지 모르나, 창조적 변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었다. 나는 하느님을 길들일 수가 없으며 제아무리 고결한 대의를 지닌 일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 해야 할 일을 지정해 드릴 수도 없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느님의 영광이 나를 관통하게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도록 해 드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생명 없는 황량한 계곡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상징

이요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모든 인간의 상징임을 알게 되었다. 무가치하다는 두려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늘 붙어 다닌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두려움과 싸우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쳐 숨고 이 두려움을 떼어 놓으려고 방법을 씀는다. 그러다가 방법이 위협받으면 힘에 닿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것을 수호한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 공포에 싸인 인간 보다는 공포에 싸인 쥐가 서로에게 훨씬 인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도 우리가 맞대면하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

하느님과 떨어진 우리는 황량한 계곡이다. 내 스스로 쌓은 방벽은 나를 자비의 하느님과 차단시키면서 파괴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대는 생명을 버리지 않는 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사랑이신 하느님, 친히 만드신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 하느님말고는 안전한 방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창조계를 사랑하고 소중히 키우는 데 있으며,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는 데 있다. 그 밖에 다른 구원은 없으며, 황량한 계곡이 있을 뿐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이나시오는 이 진리를 “사람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섬기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인류의 다수는 그리스도인의 하느님 이름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고, 이해심을 갖고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성실히 살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며, 그분께서도 그들 안에서 울기도 웃기도 하신다. 그들은 자비를 보일 때 하느님을 영접하게 되고, 인간의 고통에 냉담하며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수백만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고 수백만의 사람을 예측화할 때 하느님을 배척하게 된다.

서구의 방위 정책이야말로 인간 스스로 확보해 내는 안보가 인간 자

신을 파괴하는 수단이 된다는 진리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그들은 파멸에 대한 공통된 두려움을 적에게 투영시키고 있고, 이 적은 40년 전만 해도 훌륭한 동맹국이던 소련이 되고 있다. 그들은 핵무기를 축적하여 소련 쪽을 겨냥하면서 명칭하게도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진정한 적은 그들 내부에서, 방위에 이용하고 있는 그 수단을 통해 그들을 성공적으로 파괴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가정이기기는 하지만 그들은 핵무기로 소련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필경 또 다른 적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하여 또 한 번 냉전을 시작하고 또다시 군수 공장을 가동하며 똑같은 거짓 광고로 자기네 소행을 합리화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진짜 적을 마주 대하기에 앞서서 늦든 빠르든 대학살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폭군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국가를 지켜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진짜 폭군을 제대로 짚어 냈는지 확인해야 하고, 세계를 영구히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로 자기 방어를 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핵무기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철학자가 있었다. 나는 전쟁 억제용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다른 논지와 마찬가지로 그의 논지도 계곡에 투영시켜 보았다. 계곡에 아한 제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 철학자의 논지는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폐허화된 계곡은 그를 상대로 반문하는 것이었다. “그대가 제안하는 기준은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엇이 그 가치의 범주인가?”

그래서 나는 전쟁 억제력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논거에 관해서도 계곡에게 물어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사악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세계에는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취급하며 자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은 누구든 처부술 채비를 빈틈 없이 하고 있는 사악한 인간과 사악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계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절도 없었다. 계곡은 대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세대들을 쫓 지켜 보았고, 그래서 이런 논리의 진실성 여부를 너무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이어진다. “우리 서구는 세계 정복을 맹세한 적과 대치하고 있다. 우리의 그리스도교 유산과 민주주의 생활 양식, 언론 자유와 종교 의식의 자유가 모조리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자신과 미래 세대를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말없이 내주어야 옳겠는가? 우리는 전쟁 억제용 핵을 대단히 싫어한다. 그런 것은 없는 편이 낫기는 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앞서의 선조들도 그래왔듯이 자유를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불사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악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소련의 지배라는 악이요, 다른 하나는 전쟁 억제용 핵무기 보유라는 악이다. 이 후자는 바라건대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하느님 덕분에 지난 40년간 우리를 지켜 주는 역할만 해 왔다. 핵무기 제거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CND에 가입하는 그리스도인 —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 대부분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주목할 것이다 — 은 그리스도교 유산을 내팽개치고 대신으로 막연한 인본주의를 맞아들일 쫓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전통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를 위해 싸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까딱 잘못하면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그 결과 핵전쟁의 가능성만 높이는 우둔한 백치들이다.”

계곡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 이상 할 대답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곡이 느끼는 끔찍한 전율을 관상하노라니,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 왔다.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도 싫어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으면 무엇이 스스로 부지할 수 있겠으며
 그분이 불러 주시지 않은 것이 어떻게 스스로 연명할 수 있겠는가?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에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주님의 불멸의 정기는 만물 안에 들어 있다(지혜 11,24-12,1).

뒤이어 이런 목소리도 들렸다. “너희는 내 눈에 소중한 사람들, 내가 죽음으로 건진 나의 고귀한 사람들 수백만을 내 이름으로 살해하였다. 너희는 모든 조물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싫어서 내 곁을 도망쳐 가서 살았다. 내 곁에서 떠나거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영광보다 너희의 안보를 택하였다.”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적은 우리들 각 사람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 모든 창조물의 하느님, 자비로 충만하신 하느님,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다. 국가로서의 우리는 이 하느님을 배척하고 우리의 안보라는 신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가장 가망성 큰 정부를 선택하였다.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선거에서 경제는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누리는 부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누리는 풍요가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든 덕분에 얻어진 것이 아닌가를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는 그 일부가 제3세계 통치자에게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며, 이 무기는 제3세계의 가난한 이

들과 억눌린 이들의 함성을 효과적으로 잠 재우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그 곳 통치자에게 부여한다. 그래도 우리는 내 나라 경제가 안정되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탐욕보다 훨씬 유해한 것은 국가로서의 그릇된 자존심이다. 우리는 영국 내의 병자와 노인, 고아에게나 해외에서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내놓을 돈이 없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우리의 종주권'을 지키기 위한 인명 구출이라면 재빨리 거액의 돈을 모금하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다. 우리는 중미의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나라로 하여금 우리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대량 학살 무기를 우리 영토 안에 비치하도록 허용하고, 새로 생긴 이 '성역 중의 성역'에 감히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발포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우리는 이 같은 탐욕과 오만의 정책을 '자유 수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세계를 파괴시킬 만한 무기로 지키면서, 우리의 노력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계곡을 응시하고 있으면서 나는 전쟁 억제를 위한 핵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무신론의 표현이요 독성죄임을 깨달았다. 적은 소련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자존심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대와 모든 미래 세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형태의 자기 방어를 포기한다."고 선언할 수 있기 전에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순수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시는 생명의 하느님이지만 잔인한 파괴자요 대량 학살자는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내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여러 벗들과 면식 있는 분들 가운데 전쟁 방지용 핵의 진가를 신봉하는 이들이다. 나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전쟁 방지용 핵을 보는 그들의 시각은 그들 내면의 무신론 영역에서 돌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신비로움과 그들이 나보다 하느님께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하느님은 나귀의 턱뼈를 이용해서 말씀하

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귀가 나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거나 말씀 듣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지는 일은 결코 없는 법이다.

전쟁 방지용 핵무기를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하느님의 창조계가 지닌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골짜기와 언덕, 크고 작은 도시를 바라다보고 온 세상 어린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라.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신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보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과 사물을 파멸할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서구의 가치관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라.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을 통해 어떤 답변을 들려 주시는지 귀담아들어 보라.

핵 위협은 기정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은 친절한 법이다. 하느님은 사실들 속에 내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에 관심을 쏟고 그에 대해 관상하면서, 이 가공할 핵 파괴의 위협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빌어야 한다. 핵무기는 우리의 마음자세와 정신자세를, 우리의 두려움과 탐욕과 비정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우리는 비단 핵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그 정신자세도 척결하도록 부르심받고 있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철저히 개혁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가 비축 아닌 나눔 속에 있으며, 우리의 번영이 무절제한 경쟁이 아닌 협조 정신 속에, 자연을 수탈하기보다 소중히 가꾸는 속에, 단죄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쟁취해 낸 사회적 권력과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속에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부르심받고 있다.

핵무기 문제와 핵전쟁의 결정적 표현이 되는 폭력 문제에 부딪치면 문제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복잡하고 절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까닭에, 우리는 가차 없이 밀려드는 지독히 파괴적인 불가항력에 맨손으로

맞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여겨져 압도당하고 만다. 이럴 때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 편에 서서 불가항력적인 힘에 편승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의 파멸을 몰고 오는 길로 치닫거나, 모래에 고개를 쳐박고 나 몰라라 하거나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핵무장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정통파교단(evangelical fundamentalists)과 합세하여 힘껏 준비하고 준비해 온 아마게돈 전쟁이 터져서 나머지 인류가 멸절되고 나면 우리만 남아서 그리스도 덕분에 안전하고 평안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식의 영성을 날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하느님은 우리더러 철저히 회개하고 당신을 깊이 신뢰하라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고 당황하여 갈피를 못 잡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지혜가 표출되게 하며 당신의 진리가 우리의 망상을 깨부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라고 부르고 깨신다. 원자핵이 붕괴되어야 원자력이 방출되듯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폐쇄된 우리의 양식들이 붕괴되어야 하느님의 열과 창조적인 힘이 분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바울로와 더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2 고린 12,9-10).

후 기

이 책은 대부분이 스카이 섬에서 지내던 1984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씌어진 것이다. 당시에 나는 포트리 소재 가톨릭 성당에 딸린 뒤컨 방에서 살았다. 글 쓰는 작업은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다. 하루 내내 한 일이라는 것이 몇 쪽 분량 되는 낙서를 했다가 지운 것이 고작일 때는 특히 그러했다. 그럴 때면 마음은 실컷 짜내서 써 버린 치약깍테기 같은 느낌이었다. 이 무렵에 나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엄마를 따라 성당에 자주 출입하던 네살박이 앵구스 생각을 머리에 떠올리곤 하는 일이었다. 녀석은 미사가 시작하자마자 으레껏 제 엄마 품에 안겨 조용히 코를 골며 자다가, 미사가 끝나면 깨어나서 물병과 포도주병을 제의방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 제의방에는 각종 과자 재료가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는 고결한 야망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거니와 너무 높은 것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대단한 일에는 무관심했으며 경이로운 일들도 안중에 없었다. 아이로서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간직하면 충분했고, 깨어나서는 먹을 것이 생긴다고 아는 것으로 만족했다. 꼬마 앵구스를 생각하면 대체로 시편 131 장이 머리에 떠오르고, 이 시편은 나로 하여금 일의 핵심과 사물의 진실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하느님의 선에 둘러싸여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생생한 깨달음 속에 우리의 보화가 자리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만들곤 한다. 이 책을 읽노라면 “왜 이렇게 알기 어렵지, 좀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들지 모른다. 그

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말해서 이렇다. 우리는 비록 복잡한 조물이지만 의식적 내지 무의식적 자아라는 얽히고설킨 미궁에서 통로를 찾으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단순해야 한다. 혼란, 당황, 환멸, 두려움을 느낄 때 해야 할 일은 현존하시면서 혼돈에 빠진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일이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손을 그분 손에다 내맡겨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께서 너희에게 겨우 연명할 빵과 가까스로 목을 축일 물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는 너희 스승이 되어 다시는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서 눈 앞에 항상 모시게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빗나가려 하면 그가 뒤에서 너희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거라”(이사 30,20-21).

하느님은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며 따라서 세상의 어떤 미물이나 우리의 어떤 체험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려 하고 교회가 정치와 사회 정의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영성은 모두가 거짓 영성이요 우상 숭배이다. 교회가 특정 정당과 한통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관계하는 삶의 방식이 종교 영역과 무관하다는 말이 된다. 정치란 우리가 여타 인간들과 관계 맺는 구조적 관계 방식과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방식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관계들을 통하여 하느님과 연결을 맺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신다. “똑똑히 들어라. 여

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우리과 하느님, 우리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차피 유추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유추는 어느 것도 온전히 들어맞는 것이 없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유추는 유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느님 마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이 한층 진실에 가깝다.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마련이며, 그분의 거처는 온 우주를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제노아의 성녀 가타리나는 언젠가 “내 하느님이 바로 나다. 나는 내 하느님 그분 말고 또 다른 나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다. 다음의 마무리 기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편협한 측량 단위로 축소시키는 일 없이 그분 안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나는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이 기도는 성이냐시오의 「영신수련」 끝부분에서 따 온 것이다.

주여 내 자유, 내 기억, 내 이해, 내 의지 모두를, 내가 지니고 소유한 것 모두를 취하고 받아 주소서.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께서 주신 것이라 주님 것이오니 주께 돌려 드리나이다. 주여, 나를 취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고 내게는 주의 은총과 사랑만 주소서. 나는 그것이면 만족하나이다. 아멘.